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I. 서론

1. 연구목적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의 세대차이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있어온 것이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차이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 세기가 바뀌면서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를 쫓아가는 속도에 있어 기성세대는 신세대들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생활속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며 갈등을 일으키는 점은 청소년들의 신체나 의복 등 외모에 관한 관심이나 치장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청소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매력을 중시하게 되어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된다.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가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자신의 신체와 용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신체변화에 극도로 민감하여 신체적 성장이 자기와 비슷한 연령이나 같은 지위에 있는 동년배들과 병행하지 못할 때는 그들의 고민은 심각하게 되어 자신의 외모관리나 의복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동년배 집단과 동일시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게 된다(이정순, 1994 : 5).

과거에는 열등한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거나 머리가 큰 사람에게는 “머리가

크면 머리가 좋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격려해 주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의 청소년문화에서는 그러한 미덕은 사라지고 "쏘다리"라거나 "큰바위얼굴" 같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열등한 외모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모를 꾸미기 위해 염색을 한다거나 피어싱을 하고 교복을 유행따라 고쳐입는 등의 행동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탈적 하위문화에 불과하다거나 비행의 전조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신체적 자아상(body image)에 따라 그들의 외모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행동들을 어디까지 정상적인 행동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일탈행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 측정을 통해 그들의 신체적 자아상을 살펴보고,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섭식행동과 의복행동 등 청소년의 외모행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청소년의 외모행동을 규율하고 있는 학교교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외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비행, 매체접촉 등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학교교칙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의식을 조사하여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의식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신체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체관 정립방안을 제안하고, 청소년의 외모를 비현실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교칙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를 세대간 갈등 조정방안과 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상이나 외모관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이를 둘러싼 관련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인 '신체적 자아상(body image)'과 유사개념 및 관련개념들에 대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신체적 자아상'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나 태도의 총체를 말하며, 신체상과 혼용하기도 한다(구자명, 1992 : 13). 통상 신체라고 할 경우에는 육체적인 신체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신체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여 육체적인 의미의 신체 뿐 아니라 의복이나 몸단장과 같은 신체 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자 한다.

유사개념으로는 '신체만족도'가 있는데, 이는 육체적인 신체 전체 또는 일부분과 관련된 만족, 불만족을 의미하며, 신체 기능과 신체 외관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의복태도에 반영될 수 있다(구자명, 1992 : 13). 또한 이는 개인이 신체적 부분, 기능 혹은 과정에 대하여 지니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구미희, 1999 : 9).

관련개념으로는 '섭식행동'이 있는데, 섭식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능이다(최진숙, 1991). 그러므로 섭식행동은 단순히 보면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복행동'이 있

는데, 이는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및 작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신분, 태도 등을 반영한다(이정순, 1994 : 5).

한편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용행동'과 '외모행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용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의복 이외의 물리적, 화학적 기술을 이용해 용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용행동이란 이러한 용모단장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모란 신체상과 의복착용의 특성이 동시에 포함되는 개념이고(구자명, 1992 : 8), 사람의 외모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체격, 얼굴모습, 옷, 화장품, 안경, 체취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미옥, 1995 : 17). 그러므로 외모행동은 신체상과 의복 착용의 특성이 동시에 포함되는 외모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및 작용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및 이에 관련되는 청소년의 섭식행동, 의복행동, 미용행동 등 외모행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외모와 관련된 학교교칙에 대한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의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 측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 불만사유를 밝혀냄으로써 그들의 신체적 자아상을 알아보는 한편,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섭식행동과 미용행동, 의복행동 등 청소년의 외모행동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청소년의 외모행동을 규율하고 있는 학교교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넷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외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비행, 매체접촉 등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외모행동, 학교교칙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의식을 조사하여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의식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섭식행동과 신체적자아상
2.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신체적자아상
3.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외모행동에 미치는 영향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섭식행동과 신체적자아상¹⁾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급속한 신체발달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신체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신체상(body image)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는 체형은 남녀 모두 마른 체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체형을 갖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거나 섭식장애를 가지기 쉽게 된다. 사실 섭식이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능이다(최진숙, 1991). 그리고 섭식행동은 단순히 보면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섭식행동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날씬하고 마른 체형을 갖기 위해 하는 다이어트나 비정상적인 섭식행동(예 : 섭식장애, eating disorder)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청소년기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1) 청소년의 왜곡된 신체적자아상

요즈음의 청소년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체중이나 체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Wadden et al., 1991). 여자 청소년들이 체중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날씬하면 지적이고 사회적으로 유능할 것이라고 여기거나, 대인관계에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만은 사회적 상호작용, 학교나 직장에서의 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생각

1) 이 부분은 조아미(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음.

은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청소년이 되면 확고해진다(Feldman, Feldman, & Goodman, 1988).

한편 대중매체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정신과의사는 디즈니만화를 가지고 설명했다(김준기, 1997). 1930년대에 만들어진 백설공주와 1990년대에 만들어진 포카혼타스를 보면, 과거보다 현재에 아름답다고 여기는 체형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중매체에 의해서 청소년이 영향을 받는 현상은 반두라(Bandura)가 주장하는 모방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패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시적 유행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서양에서도 르네상스시대에는 풍만한 체형이 미의 상징이었으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고, 동양에서도 과거에는 날씬한 몸매보다는 약간 뚱뚱한 몸매가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날씬한 몸매가 특히 여성에게는 미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성공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날씬함을 강조하는 현대 문화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날씬한 몸매를 가지기 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체형에는 불만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보다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의 신체발달 특징과 대중매체 및 사회적 압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신체상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상(image)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아미(1999a)에 의하면 여고생의 실제체질량에 있어서 과다체중군은 단지 3.1%에 불과하나 자신이 날씬하거나 정상이라고 지각한 여학생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여고생은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고생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찐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할 확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섭식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섭식장애

(1) 섭식장애의 개념

섭식장애에는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과 폭식증(bulimia)이 대표적인 것이다. 신경성 식욕부진은 날씬한 몸매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는 섭식장애이다. 체중에 대한 관심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체중공포증이라고 하기도 한다(Muuss, 1986). 폭식증을 의미하는 bulimia는 그리스어로 황소와 배고픔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 이름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배고픈 황소처럼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경성 식욕부진과 폭식증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구별되는 것이다. 즉, 신경성 식욕부진의 궁극적 목적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고, 폭식증은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먹는 것이다(Muuss, 1985).

섭식장애는 1800년대 후반까지는 매우 희귀한 병으로 내과 의사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고, 백인 상류층의 여자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80년 이후로는 백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까지,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하류층까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까지 발생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2) 다이어트 혹은 체형불만족과 섭식장애

이러한 다이어트나 체형 불만족 등은 섭식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Hill과 Bhatti(1995)는 체형에 대한 불

만족과 날씬함을 추구하는 경향은 섭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섭식장애로 발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개인이 섭식장애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Hamilton(1985)도 날씬한 몸매를 중요시하거나 완벽주의가 건강하지 못한 체중조절 행동과 섭식장애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Patton 등(1990)도 다이어트는 15세 소녀의 섭식장애의 결정요인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Thompson 등(1995)은 10-15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각된 체중이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다시 섭식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신체상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섭식행동도 부정적일 수 있다. 우정숙(1993)은 초등학교 2, 4,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신체상과 섭식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여자는 모든 학년에서 부적 상관관이 있었고 남자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 이것은 여학생의 경우 신체상이 부정적일수록 섭식행동도 부정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는 일부 학년에서만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Strober(1986)는 청소년들이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다이어트와 같은 체중조절 행동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단지 소수만이 섭식장애를 일으킨다고 했다.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개인이 섭식장애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3) 섭식장애 관련변인

다이어트나 체중조절 행동과 부정적 신체 이미지 등은 섭식장애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섭식장애에 걸리기 쉬운 집단이 있다. 이것을 성,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특

성, 문제행동 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섭식장애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섭식장애는 한때 여성들만의 병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Sasson, Lewin, 그리고 Roth(1995)는 7-11학년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날씬해지려는 욕구가 강했고 날씬해지기 위한 행동들도 더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8학년의 여학생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남자들에게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는 섭식장애에 매우 취약한 시기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섭식장애는 13-18세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Casper, 1996). Ledux, Choquest, 그리고 Flament(1991)에 의하면 남자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이어트를 덜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자율성 확립, 친교관계 확립, 자아정체감의 확립 등과 같은 많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시기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춘기 때 일어나는 신체적 성숙과 맞물리게 되면 청소년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진다. 특히 여학생들은 날씬한 몸매가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풍토에서 신체적 성숙은 동성이나 이성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수립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섭식장애는 중류층 이상의 계층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하류층의 청소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성취욕이 강한 집단에게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가정 특성도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는데 신경성 식욕부진은 엄하고 통제가 심한 가정에서(Sargent, Liebman, & Silver, 1985), 그리고 폭식증은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Boumann & Yates, 1993).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에는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체중조절로 인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정서장애, 알콜중독, 갈등적 가족관계에 놓일 확률도 높다(Kog & Vandereycken, 1985).

3) 관련 문제행동

섭식장애나 다이어트는 문제행동이나 약물사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들은 여자들이 날씬하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흡연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상적 체형이 날씬해질수록 여자들은 흡연을 더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Klesges & Klesges, 1988). 그러므로 담배회사에서도 흡연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선전을 하고 있다. 또한 섭식의 문제와 음주가 서로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알콜은 섭식을 억제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Polivy & Herman, 1976). 그러나 이들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Xinaris와 Boland(1990)가 음주와 흡연과 섭식장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들간에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두승·조아미(1998)의 연구에 의하면, 비만공포, 날씬하고자 하는 욕구, 폭식 및 음식에의 집착, 다이어트와 같은 섭식장애가 설사제나 이뇨제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섭식장애는 이성교제(Gralen et al., 1990)와 같은 문제행동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다이어트를 하려다 약물사용을 하게 되었거나 섭식장애에 걸려 건강을 해친 사례들 중 하나를 발췌하여 소개한 것이다.

저는 키 160cm에 몸무게는 한 54kg 정도 되요. 중2때 생물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뇨제라는 약이 있는데... 살이 빠진다고 하지만 건강에 나쁘다고, 그리고 중3초... 결국 약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앓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결국 큰 결심을 하고 1달 정도 다시 먹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찌는 살들... 저는 다시 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고 어떤 날은 한 알도 부족해 2알까지 먹었습니다. 그런 날은 모르게 귀찮고... 짜증

나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을 안먹고 이노제를 먹고 담배를 뿔더니 속이 뒤집어져서... 그런데... 그 이후로... 이번 달에 생리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리를 못하게 된걸까요? 이노제라는 약이 그렇게 나쁜건가요?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www.youth.net)

2.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신체적자아상²⁾

의복은 외모의 구성 요소로서 신체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존심, 자아개념, 자기확신, 안정감을 증가시킨다. 의복이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신체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추상적인 사고에는 미숙한 청소년기에는 구체적인 의복과 외모를 통해 동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의복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여 수반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료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년배와 동조하는 수단으로 동료집단에서 유행하는 의복을 착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신체의 성장이 비슷한 동년배들과 유사하지 못할 때는 고민이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자신의 외모관리나 의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동년배 집단과 동일시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다(Horn, 1975).

의복에 관한 만족이나 불만의 정도는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생활에 좀 더 적극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과업을 수행하려는 의욕이 높다(구자명, 1993). 또한 실증적인 연구에서 옷을 잘 입는 여학생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음이 밝혀졌다(Hendricks, Kelly, & Eicher, 1963). 반면 빈약하거나 부적당한 의복을 입으면 불안하고 타인 앞에 나서기를 꺼리게 되며(Hurlock, 1974), 집

2) 이 부분은 구자명(성신여대 의류학과 강사)이 집필하였음.

에 돌아가고 싶거나 위축감을 느끼고 구석자리에 앉으려 하고(Ryan, 1966), 사회참여도도 낮아지게 된다(Francis, 1992).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의복은 심리적인 면 뿐 아니라 행동 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로 인해 자신의 변화된 신체를 지각하고 새로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지각, 태도, 평가 등을 말하는데, 청소년기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신체이미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성인이 된 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윤진, 1993).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우리 문화에서의 이상적인 신체 모습이 젊고 날씬하며 서구화된 신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패션잡지의 마르고 서구화된 모델들이나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이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행연구에서도 우리 문화에서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가 날씬함이 강조되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숙, 2000). 즉 마른 신체를 이상적인 신체기준으로 설정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왜곡하여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상에 맞지 않는 열등한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어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1) 청소년기 신체이미지와 문제점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신체적 자아 즉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상(mental image)으로서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요소일 뿐 아니라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신체이미지는 신체크기, 체중, 그리고 얼굴을 포함하는 신체 각 부분들의 생김새와 의복과 화장과

같은 신체적 외모를 결정하는 신체의 다른 면들에 대한 지각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신체이미지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와 유행 등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기 동안에 경험하는 빠른 신체적·심리적 변화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이미지는 크게 지각적(감정적) 신체이미지와 태도적(인지적/행동적) 신체이미지의 2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지각적인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태도적인 신체이미지, 자기우울감, 섭식장애 등에 영향을 준다(Keeton, Cash, & Brown, 1990).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여자들은 자신의 사이즈보다 더 마르고 큰 키의 체형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자신이 실제보다도 더 뚱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Jacobi & Cash, 1994; 이미숙, 2000). 어깨너비에 대한 지각에서는 남녀 모두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의 신체크기를 지각하였으나, 얼굴너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얼굴을 더 크게 왜곡하여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자, 1999).

태도적인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느낌, 평가, 행위 등을 말한다. 태도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측정도구들은 대부분 특별한 신체부분이나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느낌 또는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태도적인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어(송경자, 1999; 김진희, 2000),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또 체중이 적고 키가 클수록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고 외모를 높이 평가하였다(조선명, 2000).

12-17세를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소녀들은 성숙됨에

따라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하여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녔으나, 소년들의 신체이미지는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Duke-Duncan, Ritter, Dornbusch, Gross, & Carlsmith, 1985).

국내 연구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불만족하고(구자명, 1993), 특히 상반신 보다 하반신(김양진, 1992; 이부희, 1996; 정재은, 남윤자, 1997), 체중부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아(구양숙, 추태귀, 1996), 체중에 민감하여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적 관심이 높고, 신체변화에 민감하며, 마른 것이 낯선하다라고 믿도록 사회화된 압력 때문이다. 또한 그 시기에 유행하는 의복, 즉 당시의 이상형을 반영하는 스타일의 의복이 자기 몸에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의복 자체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돌리기 때문이다(Labat & Delong, 1990).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의 변화와 발달로 자신의 신체에 관심이 높으며, 신체의 변화는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자존심이 높으며,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높다. 이 시기에 비교적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선호하여 자신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왜곡하여 지각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자에게서 두드러진다.

마른 체형의 신체이미지가 정형화되고 강화되어 그 외의 다양한 신체 이미지들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놀림을 받으며 자신의 개성과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에 빠지게 되는 것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신체이미지가 왜곡되어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자가지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청소년기 의복행동과 문제점

의복행동이란 인간행동의 하나로써 자신의 의복에 대한 평가, 관심, 선택, 사용 등을 의미하며, 의복은 착용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이 의복행동에 반영된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몰두하므로 의복에 대한 심리적인 동요가 심하고 의존도가 높다. 또한 이성에 대한 흥미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의복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유행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므로, 의복이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크게 적용되는 시기이다(Horn & Gurel, 1981).

청소년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외모에 관심을 두고 타인의 의견과 인정에 민감하여, 자신이 타인의 외모에 대해 많이 지각하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구들간의 수용정도와 인기가 있고, 없음의 요인으로 외모와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Ryan, 1966).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소녀들은 의복이 학교생활의 인기에 영향이 미친다고 인정하였으며, 옷을 잘 입는 여학생은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Hendricks, Kelley, & Eicher, 1963).

청소년기는 신체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여 신체의 성장이 자기와 비슷한 연령이나 같은 지위에 있는 동년배들과 병행하지 못할 때는 그들의 고민은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자신의 외모관리나 의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동년배 집단과 동일시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다(Horn, 1975). 또한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는 기분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어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좀더 적극적이며, 빈약하거나 부적절한 의복을 입으면 불안하고 타인 앞에 나서기를 꺼리게 되고(Hurlock, 1974), 집에 돌아가고 싶거나 위축감을 느끼고 타인의 시야에서 벗어나 구석자리에 앉으려 하여 집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Ryan, 1966).

청소년기에는 의복에 대한 동요가 심하여 의복이 주는 느낌이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타인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며 승인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의복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과시욕구가 크다(윤창숙, 1983).

외모와 몸치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 학생들은 디자인과 맞음새에 불만족스러운 교복을 고쳐 입음으로써 외모를 꾸미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고 개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복변형이 하나의 유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애란, 김양진, 심정은, 1997).

(1) 의복관심

의복관심은 의복에 대한 태도, 습관, 선택 및 착용에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하며, 의복의 선택이나 사용, 관리 등에 소비된 시간, 노력, 금전 등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복을 스스로 선택했던 사람이나 의복에 관심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의복에 관심이 많아지고, 청소년 후기에는 의복이 사회적인 표현도구로 사용되어 의복의 중요성이 증가되므로 의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다(Ryan, 1966). 청소년기에 의복은 정서적 사회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써 청소년들은 의복의 중요성을 깨달음으로써 의복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행복감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자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외모, 행동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특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복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의복이나 외모를 사회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복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나타낸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이상희, 김연식, 손원교, 1997), 사회성이 높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중생일수록(김병미, 1975; 이은미, 1984), 또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질수록 의복에 관심이 많다(이미숙, 2000).

(2) 주의집중성

주의집중성은 타인과 다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타인에게 호감, 지위, 명성을 획득하려는 의복행동을 말한다. 의복의 주의집중성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규범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정숙성과 상반된다. 청년기는 인습에 의한 예의·정숙성과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고자 하는 주의집중성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하여 의복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신감이 많은 사람에게는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주의집중성이 높게 나타난다. 의복에서의 주의집중성 요인은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성은 성적 매력과 동질적 요소를 포함한다. 신체적 자아나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의복을 통해 자신을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경향이 높다(이명희, 1982).

(3) 심리적 의존성

심리적 의존성은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착용자의 심리에 행복감과 자신감, 안정감을 주는 의복행동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지 못했다고 지각하면 사회참여를 거부하게 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며, 적절한 의복을 착용했다고 지각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을 느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그러므로 의복은 착용자의 심리적인 면 뿐 아니라 착용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의복의 영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의복의존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윤창숙, 1983), 일탈정도가 높은 청소년 집단은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고, 일탈정도가 높은 학생은 과시하려는 욕구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의복으로 표현하는 특징으로 인해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허정아, 1997). 또한 신체평가가 높을수록 심리적 의복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이미숙, 2000).

(4) 동조성

동조성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기존 규범에 적응시키는 과정으로 개인이 표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며, 의복에서의 동조성은 의복규범의 수용 또는 고수 즉 특정집단의 규범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Horn & Gurel, 1981). 의복행동에 있어 동조성은 의복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입고자 하는 욕구에 의한 정보적·사회적 영향에 의한 동조가 있고, 의복을 올바르게 입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기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름으로써 집단에서 승인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규범적 영향에 의한 동조가 있다(강혜원, 1996).

사람은 누구나 타인이나 집단에 의해 수용되고자 하며, 이런 사회적 욕구는 의복의 동조현상을 초래한다. 청소년은 역할모호성에서 오는 불안을 동년배집단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자 고등학생은 남자 중학생보다 의복 동조를 많이 하며(정미실, 1983), 남자가 여자보다 의복동조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남학생은 타인과 같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하므로 동조성이 더욱 중요시된다(김병미, 1975). 이것은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의복 이외의 다른 방면에 관심이 더 많으며 의복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데서 오는 결과이다.

의복동조성과 내적 특성과의 관련성에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남자 중고등학생은 의복의 동조성을 중요시하는 반면(정미실, 1983), 지각향성이 긍정적인 학생은 의복에 동조하는 것보다 의복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김영인, 1981). 자신의 의복을 높이 평가하면 타인의 의복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고 의복의 정숙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에도 관심이 높았다(박광희, 1983).

우리 나라 청소년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치인 학업에서 뒤떨어지는 경우에 쉽게 이탈자가 되고 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존재를 다른 쪽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이 의복이나 외모의 방법으로 연출되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탈학생들은 그들의 존재를 자신의 외모관리를 통해 사회에서 부각된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바라며 그것의 수단으로서 의복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학생에 비해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더 많고(이남범, 1985) 심리적 의존도와 의복의 과시성이 높아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며(허정아, 1997), 친구집단내의 인정, 타인의 호감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특이한 의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김연수, 1985). 그러나 복장규범을 거부하는 태도가 높고(홍선옥, 1998) 정숙성은 낮아서 학교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다운이나 정숙함을 중요시하지 않는다(허정아, 1997).

즉 청소년기에는 외모와 의복에 관심이 많으며, 의복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성과 동조성이 크고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였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의복이 주는 만족감은 청소년기의 사회성과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눈에 띄는 의복과 극단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것을 자신의 외모를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으로 여기지만 기성세대는 일탈이라든가 비행의 전조로 보게 되며, 이러한 시각 차이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외모와 의복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학업과 능력 개발에 관심을 쓰지 못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친구들보다 지나치게 값비싸고 좋은 옷만 입어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특별히 취급되어 우대된다고 느낀다면 마치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 자만심을 갖고 교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른 아이들과 옷을 다르게 입어서 의복에 대해 계속적으로 놀림을 당하면 의복이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의복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며 초라한 의복을 입으면 친구들에게 초라한 아이로 자각하고 자기 자신도 초라하게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처럼 자신의 신체의 치수가 변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 자신의 신체를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확한 신체이미지 때문에 자신의 신체상을 왜곡하여 오히려 단점을 드러내는 의복을 선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은 유명상표 선호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유명상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고가의 유명상표 의복 구매와 새로운 유행에 따라 의복을 자주 구매하다 보면 과도한 의복지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된다.

3)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상징적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아진다(Ford & Drake, 1982). 신체에 만족할수록 유행관심이 높고,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을 선호하고(이영운, 강혜원, 1982), 의복의 심미성과 주의집중성이 높으며(이명희, 1982), 의복에 관심이 많고 의복의 과시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다(송경자, 1999). 또한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자기 위주의 의복 착용, 유니섹스 의복선택행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심정은, 1997). 여고생들은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만족할수록 교복이 개성을 표현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적 승인성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았다(고애란, 김양진, 심정은, 1999).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는 의복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에도 만족하게 된다(구자명, 1993).

또한 청년기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신체와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후기 청년기가 전기 청년기보다 신체와 의복에 대한 만족도

가 낮아졌다(MacGillivray & Wilson, 1997).

신체이미지는 착용하는 의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맞고, 몸매가 드러나는 의복을 착용하고, 비만군에 속하는 여성은 여유있게 몸에 맞는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려 한다(박선영, 1998). 체중 부위에 만족할수록 몸에 타이트하게 끼는 의복과 밝은 색상의 의복, 허리와 힘을 강조한 의복을 선호하였다(황진숙, 1998).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으며(이수지, 이인자, 1996), 화려한 의복이미지와 개방적인 의복이미지를 선호하며, 불만족할수록 소박하고 보수적인 의복이미지를 선호하였다(주재은, 1998).

의복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보상하며 신체이미지는 의복에 반영되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Sontag & Schlater, 1982). 의복착용자는 의복을 통해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여 자신의 이상형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정재은, 남윤자, 1997). 이것은 외모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복으로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양진, 1996).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과 의복과사성이 크고 의복만족도가 높아 의복은 청소년기 신체이미지를 증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히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차림, 독특하고 개성있는 의복차림이 신체이미지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의복의 수와 의복에 대한 착용능력도 자기 신체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미숙, 2000).

신체이미지는 의복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의식하고 열중할수록 의복을 통해 개성, 자기표현 태도와 긍정적인 기분, 그리고 이상적인 신체 모습을 위한 태도를 추구하였다(조선명, 2000).

이와 같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이나 유행에 관심이 많고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과 의복과시성이 크고 몸매가 드러나고 화려한 의복 이미지를 선호하며 의복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모습을 변화, 향상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의복은 청소년기 신체이미지를 증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4) 외모에 관심을 쏟는 원인

오늘날 신체적 외모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다수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와 계층에 상관없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몸을 가꾸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현상이 옷, 머리손질, 피부관리, 화장, 심지어는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외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요즈음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 피부관리실, 단식원 등 신체관련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인간은 남에게, 특히 이성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때 외모와 의복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다.

현대인의 신체는 과거 노동의 도구, 생산의 수단으로 치중되던 것이 휴식이나 아름다움을 주어야하는 배려의 대상으로서의 요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체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하고 획득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능력의 하나로 되어 몸을 비만하게 놓아두는 사람은 자신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며 날씬한 몸은 몸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통해 정신적인 힘을 나타낸다.

이제는 신체관련산업의 발달로 아름다움에 대한 평등화가 증가되고 있다. 즉 성형수술로 대변되는 가꾸는 미, 인공미로 아름다움의 개념이 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매력적인 신체와 매력적인 의복의 착용에 대하여 후광효과가 작용하여 다른 특질에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매력적인 신체는 많은 성격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Dion, Berschied, & Walster, 1972; 이선경, 1993), 데이트나 배우자로서 적합하며(Krebs & Adinolfi, 1975; Walster, 1966), 피고용인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지각한다(Dipboye, Arvey, & Terpstra, 1977). 또한 실험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외모나 의복으로 옷을 입은 수필가는 매력없는 수필가보다 수필능력 평가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매력없는 의복의 착용은 수필 내용이 흥미가 없을 때 수필평가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의 작업 능력이 신통치 못할 경우 매력있는 외모나 의복이 후광효과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작용한다(Landy & Sigall, 1974 ; Lapitsky & Smith, 1981).

매스미디어는 소위 좋은 신체적 외모 = 행복과 성공이라는 이미지로 융합하여 아름다운 신체를 통해 자신감과 능력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신체에 대한 문화적 이상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 뿐 만 아니라 남성도 사회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멋진 신체적 이미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는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됨을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가 갖고 있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즉 "beauty is good"을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내면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변화와 발달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몰두하게 된다. 그들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특히 동료집단의 수용과 인기(Ryan, 1966),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으로 외모와 의복을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년들은 외모와 의복을 사회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청소년들은 신체변화에 따른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외모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며 의복을 통해 신체적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Rudd & Lennon, 1994).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외모관리나 의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3.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외모행동에 미치는 영향³⁾

오늘날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세상을 만난다. 그 곳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사회를 만나며 세계를 만난다. 심지어는 대중매체라는 창을 통해 청소년 자기자신과도 만난다. 단순히 만날 뿐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자아상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와 규범을 배우고 행동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미디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향의 정도와 방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로 둘러싸인 숲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적으로 뿐 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날 현대인은 대중매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영상매체의 위력은 대단하다. 이른바 영상세대의 출현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영상으로 말하고 영상으로 들으며 영상으로 느끼고 영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은 곧 현대사회가

3) 이 부분은 김기태(방송평론가)가 집필하였음.

바로 대중매체 숲 속의 사회임을 일깨워주는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시공간적 생활환경의 확대로 인해 직접경험보다는 간접경험에 의해 삶의 방향과 지혜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중매체의 힘은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외모행동 양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셈이다.

1) 대중매체와 청소년의 유행따르기

대중스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TV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장신구나 옷차림은 아예 청소년들의 의상과 외모를 결정하는 모델이나 다름없다.

이른바 'H.O.T 패션', '신데렐라 패션'은 아예 고유명사화되어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의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털모자에 평퍼짐한 옷차림의 젊은 댄스그룹 'H.O.T'가 한참 TV화면에 등장해서 활동할 즈음에 이대앞 등지의 옷가게에서는 비슷한 모양의 모자, 장갑을 비롯한 상품들이 품절될 정도로 잘 나간 적이 있었다.

한때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MBC-TV 주말연속극 '신데렐라'에 출연하고 있던 이승연과 황신혜의 장신구와 옷차림은 그 즈음 각 백화점 매장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유행 품목이 된 바 있었다. 극중에서 황신혜가 첫회부터 장면마다 달고 출연했던 은색 체인의 목걸이는 '신데렐라 목걸이'란 이름으로 널리 유행하였다. 은으로 만든 구치제품으로 지름 1센티미터 정도의 타원이 이어진 쇠사슬 모양으로 작은 막대형 고리장식이 앞으로 나있는 이 목걸이를 당시 액세서리 판매업자들은 이미 유행할 것으로 알고 다량을 주문, 제작해 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 이승연의 손수건 헤어밴드도 신데렐라 패션에 포함되었는데, 손수건 크기의 작은 스카프를 머리 윗부분에 묶어 헤어밴드 대신 활용한 것으로 이승연

이 파리에서 한꺼번에 30장을 구입, 장면마다 바뀌때고 나온다고 소문이 났던 손수건 역시 액세서리 가게에서 인기 품목이었음은 물론이다.

<별은 내가슴에>라는 TV드라마도 종영 후에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유행을 만들어준 경우였다. 극중에서 장민으로 등장한 탈렌트 안재욱의 머리스타일과 장신구가 유행할 뿐 아니라 눈을 덮은 앞머리, 시계모양의 은팔찌와 허리장식, 반지, 목걸이를 한 청소년을 거리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무대에 서고 있는 인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은 한때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표딱지를 떼지 않은 채 TV에 출연하여 이른바 '서태지식 상표부착'이란 기괴한 유행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렇듯 TV가 창조하는 유행의 종류는 세세한 인기인의 몸짓이나 악세사리에서부터 가구 및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기드라마의 세트에 설치된 가구가 장안의 인기품목이 되어 비슷한 종류의 유사(또는 동일)상품가구가 불티나게 팔렸던 사례는 많다. 한동안 MBC-TV 주말연속극 <사랑이 뭐길래>에서 혼수품으로 장식된 하얀 색의 가구는 '지은이네 가구'로 명명되면서 유행을 탔으며, 역시 드라마 <질투>에서는 최진실이 탄 승용차 판매고가 높아져 경쟁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던 회사의 차로 바뀌타고 나오기도 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TV스타의 속마음만 빼놓고는 무엇이든 유행으로 발전한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사랑이 뭐길래>에서 "대밭이 잠옷"이 유행을 타고 어깨끈이 달린 옷을 입은 신애라는 '정은이 옷'으로 불리우는 유행을 만들기도 했다.

은반지를 겹겹이 낀 손가락이 클로즈업 된 이후 비슷한 모양의 은반지 끼기가 아예 유행으로 번져, 특정대학의 여대생들이 상당수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김희애 은반지'가 유행한 사례도 있다. 또한 웬만한 미장원에 가서 '김민희 머리'라고 주문을 하면 특별한 확인과정 없이도 그들끼리 통하는 유행머리를 빚어 놓는다.

TV화면을 통해 창조되는 각종 유행은 결국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기

도 모르는 새에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소비와 연결된다. 각종 몸치장에 관련되는 유행이나 가구 및 자동차 유행은 소비유발을 넘어 과소비를 조장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노래나 음악의 유행은 레코드 판이나 카세트 테이프를 구입하게 할 것이며 거듭해서 창출되는 TV의 유행을 쫓기 위해서는 아직 바꿀 필요가 없는 옷이나 악세사리를 지속적으로 살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몸짓이나 언어 등의 유행을 각종 광고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결국 시청자들의 소비를 자극하는데로 활용된다. 드라마에서 고정화 된 장면이나 관계 등을 유행과 상품으로 연결시켜 광고장면에 삽입한 사례가 많은 것도 모두 유행의 소비창출 기능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웃음과 감동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돈으로 환산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유행의 소비창조 현상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대중매체와 현대인의 이미지 창출

대중매체 특히 영상매체 속에서 현대인은 다양한 이미지화 과정을 거친다. 대중매체식 표현방식에 의해 현대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되고 가꾸어져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대사회 정치구조적 환경에 의해서 때론 대중매체의 메시지 생산과정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등 대중매체 속의 현대인은 다양한 이미지로 창조되는 셈이다. 이런 이미지화 과정에 청소년도 결코 예외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유행창조 현상이 빚어내는 궁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대중매체 특히, 영상매체는 우선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TV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출연자들의 기본 요건이 바로 외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날 대중매체는 사람의 외

모를 중요시한다. 얼굴 생김새 뿐 아니라 의상, 화장에 이르기 까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외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 그려지는 현대인의 이미지는 곧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이미지인 셈이다.

둘째, 날씬한 여성 이미지이다. 남성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날씬한 몸매를 지닌 이미지가 강조되고 심지어는 이상화되기까지 한다.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스스로 살을 빼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바로 이런 이미지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가까운 생각을 갖게 된다는 오늘날 대중매체가 창출하고 있는 날씬한 여성이미지 때문이다.

셋째, 나만 좋으면 그만인 사고를 지닌 인간형이다. 대중매체 속의 현대인은 어떤 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중시하기 보다는 좋고 싫음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영상세대라 불리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인간형인 셈인데 자신의 선호도에 의해 매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윤리, 도덕 등 옳고 그름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충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기적인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런 유형을 개성이나 자기주관이 뚜렷한 인간형으로 분류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넷째, 대중매체는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고 우대한다. 이른바 대부분 황금시간대 TV프로그램이 10대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10대 중심의 TV프로그램 편성경향은 곧 영상매체 속의 현대인 이미지가 어리거나 젊게 형상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셈이다.

다섯째, 대중매체 속의 현대인은 성적 매력이 풍성한 이미지가 지배한다. 선정적이거나 음란하다는 것과 성적 매력이 있다는 평가 사이를 넘나들면서 대중매체는 지속적으로 성을 주제로 또는 소재로 다룬다.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교묘하게 우리 사회가 금기시하

는 기준을 파괴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때론 불륜을 미화하는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각종 미인대회를 열어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는 등 오늘날 대중매체의 성적 이미지화 노력은 끝이 없다.

여섯째, 오늘날 대중매체는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매체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상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우월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그리는 현상인 셈이다. 모든 가치에 앞선 가치로 경제력을 내세우고 사람의 성공여부를 경제적인 면으로 돌리곤 하는 현대사회 대중매체의 행태는 곧 현대인의 이미지를 경제적 동물로 만드는 셈이다.

일곱째, 현대인의 권력지향형 이미지도 대중매체가 만들고 있다. 권력이 미화되고 권력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요소들이 영향을 받는 구조를 우리나라 대중매체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권력지향적인 현대인 이미지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는게 최선이라는 권력지향형의 인간이 최근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한 일이 아닌 셈이다.

Ⅲ. 연 구 방 법

1. 주요변인의 측정
2. 조사과정 및 자료분석 방법
3. 조사대상자의 특성

III.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측정도구의 제작과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절차 및 자료의 분석, 조사대상자의 특성 등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주요변인의 측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에 따라 청소년용과 교사·학부모용으로 나뉜다. 먼저 청소년용 설문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외모행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외모관련 학교교칙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외모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독립변인으로써 자아존중감, 비행경험, 매체접촉도, 사회인구학적 변인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교사·학부모용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신체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외모관련 학교교칙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문항들은 모두 청소년과의 의식비교를 위해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청소년용 설문지

(1)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문항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총 27개 신체부위를 제시하고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설문지로 측정한 후 이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고유값이 1.0이상인 4개의 의미 있는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은 신체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되어 있는데, 이 요인들을 각각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1요인은 ‘몸’, 2요인은 ‘얼굴’, 3요인은 ‘신체 외부’, 4요인은 ‘외모스타일’이라 구분하고 이 척도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Alpha(α)값이 .91, .79, .72, .79로 충분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속해있는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제4장 청소년 의식·실태조사 결과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남녀별로 각각 20가지의 이상적인 외모조건을 제시하고 그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개 이내로 고르도록 하였다.

(2) 외모행동 실태에 관한 문항

먼저 일반적인 외모행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모행동 관심도, 외모행동 정보원, 외모행동 소요비용, 인기있는 친구의 외모조건, 외모로 인한 친구교제의 어려움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다음으로는 섭식행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11개 몸매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경험도를 “안해봤음”, “10일이내”, “1달이내”, “1-6개월”, “6개월 이상”의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설문지로 측정한 후 이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고유값이 1.0이상인 3개의 의미 있는 요인

이 추출되었다.

이들은 몸매관리 방법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되어 있는데, 이 요인들을 각각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1요인은 '식사조절', 2요인은 '운동', 3요인은 '기타 다이어트방법'이라 구분하고 이 척도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Alpha(α) 값이 .61, .65, .82로 충분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속해있는 몸매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4장 청소년 의식·실태조사 결과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 몸매관리 방법 중 경험한 것에 대해 효과있는 것과 해로운 것을 고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미용행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12개의 미용행동 종류를 제시하고 그 중 해본 적이 있는 것과 해보고 싶은 것을 각각 모두 고르도록 하였고, 또한 경험하거나 욕구를 갖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보았다. 또한 의복행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옷 입을 때 신경쓰는 것, 최근 유행복장, 교복에 대한 의견, 교복수선 경험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3) 외모관련 학교교칙에 관한 문항

외모와 관련된 학교교칙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 고등학교의 교칙을 제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또한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과 외모제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외모관련 학교교칙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자아존중감, 비행경험, 매체접촉도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변인에 대해서는 제4장 청소년 의식·실태조사 결과분석의 '관련요인'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 교사·학부모용 설문지

교사·학부모용 설문지는 청소년과의 의식비교가 가능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으로 외모관련 학교교칙에 대한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다만 제시한 외모관련 학교교칙에 대해 이 규정을 어긴 학생은 다른 비행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한 것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해서도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편 신체만족도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기성세대의 의식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청소년의 의식과의 비교를 위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2. 조사과정 및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서울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6개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4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 등 12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총 1,248명을 표집하였다. 또한 지역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을 고르게 표집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7 : 3 정도로 표집하였으며,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별로 각각 남녀의 비율을 절반씩 표집하였다. 교사 및 학부모는 청소년들을 표집한 학교에서 교사 204명과 학부모 240명, 총 444부를 표집하였다.⁴⁾

설문조사 기간은 2000년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청소년의 경우 1,229부였는데, 이 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24부를 제외한 1,20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는 총 412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6부를 제외한 40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에 대하여 SPSS/

4) 구체적인 표집분포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참조.

WIN(ver. 7.5)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항목들이 타당하게 구성된 문항들인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을, 독립변인별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과 t검증(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III-1>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

(단위: %, (명)/ 평균)

변 인		남 자	여 자	전 체
전 체		48.7 (587)	51.3 (618)	100.0 (1205)
교 급	중학생	48.6 (291)	51.4 (308)	49.7 (599)
	고등학생	48.8 (296)	51.2 (310)	50.3 (606)
계 열	인문계	49.2 (203)	50.8 (210)	67.8 (413)
	실업계	49.0 (96)	51.0 (100)	32.3 (196)
가족구조	보통가정	48.2 (533)	51.8 (572)	92.7 (1105)
	결손가정	51.7 (45)	48.3 (42)	7.3 (87)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50.3 (278)	49.7 (275)	48.3 (553)
	전문대졸이상	46.9 (277)	53.1 (314)	51.7 (591)
생활수준	상	53.8 (91)	46.2 (78)	14.1 (169)
	중	46.3 (430)	53.7 (499)	77.5 (929)
	하	61.0 (61)	39.0 (39)	8.3 (100)
지 역	강북	48.0 (336)	52.0 (364)	58.1 (700)
	강남	50.5 (155)	49.5 (152)	25.5 (307)
	강동	48.5 (96)	51.5 (102)	16.4 (198)
성 적	상	52.0 (117)	48.0 (108)	18.9 (225)
	중	46.7 (322)	53.3 (368)	58.1 (690)
	하	52.7 (144)	47.3 (129)	23.0 (273)
용돈 (원)		46950.30	39442.99	-
키 (cm)		170.53	161.33	-
몸무게 (kg)		59.94	49.22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조사에서 표집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48.7%, 여자가 51.3%이고, 중학생이 49.7%, 고등학생이 50.3%이며, 고등학생의 계열은 인문계가 67.8%, 실업계가 32.3%이다. 가족구조는 92.7%가 양부모 모두 생존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고 7.3%만이 그렇지 않은 가정이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48.3%, 전문대졸 이상이 51.7%이고, 생활수준은 상이 14.1%, 중이 77.5%, 하가 8.3%이다.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강북이 58.1%, 강남이 25.5%, 강동이 16.4%이고, 학교성적은 상이 18.9%, 중이 58.1%, 하가 23.0%이다. 용돈은 남자의 경우 46,950원, 여자의 경우는 39,443원을 받고 있고, 키는 남자 170.53cm, 여자 161.33cm이며, 몸무게는 남자 59.94kg, 여자 49.22kg이다.

<표Ⅲ-2> 조사대상 교사·학부모의 특성

(단위: %, (명)/ 평균)

변 인		교 사	학 부 모	전 체
전 체		48.5 (197)	51.5 (209)	100.0 (406)
성별	남자	65.4 (87)	34.6 (46)	32.8 (133)
	여자	40.4 (110)	59.6 (162)	67.2 (272)
지역	강북	50.4 (124)	49.6 (122)	60.6 (246)
	강남	44.6 (41)	55.4 (51)	22.7 (92)
	강동	47.1 (32)	52.9 (36)	16.7 (68)
학교	교급	중학교	51.3 (101)	-
		고등학교	48.7 (96)	-
	계열	인문계	63.5 (61)	-
		실업계	36.5 (35)	-
자녀	성별	남자	-	46.9 (98)
		여자	-	53.1 (111)
	교급	중학교	-	49.8 (104)
		고등학교	-	50.2 (105)
	계열	인문계	-	67.6 (71)
		실업계	-	32.4 (34)
연령 (세)		41.36	41.70	41.54

또한 이 조사에서 표집한 교사와 학부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가 48.5%, 학부모가 51.5%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32.8%, 여자가 67.2%인데, 교사의 경우는 남자가 더 많고 학부모의 경우는 여자가 더 많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강북이 60.6%, 강남이 22.7%, 강동이 16.7%이고, 연령은 평균 41.54세로 교사와 학부모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교사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급은 중학교가 51.3%, 고등학교가 48.7%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은 인문계가 63.5%, 실업계가 36.5%이다. 학부모의 경우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특성은 아들이 46.9%, 딸이 53.1%이고, 중학생이 49.8%, 고등학생이 50.2%이며, 고등학생인 경우 인문계가 67.6%, 실업계가 32.4%이다.

IV. 청소년 의식 ·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신체적 자아상
2. 외모행동 실태
3. 외모관련 교칙에 대한 의견
4. 관련요인

IV. 청소년 의식 ·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신체적 자아상

1) 신체만족도

(1) 신체만족도

가. 신체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7개의 신체부위를 제시하고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각 신체부위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의 빈도분포는 다음의 <표Ⅳ-1>과 같다.

먼저 만족도가 낮은 신체부위는 ‘다리(불만 40.3%, 만족 23.4%)’, ‘몸무게(불만 37.4%, 만족 22.5%)’, ‘키(불만 40.3%, 만족 28.0%)’, ‘배(불만 34.1%, 만족 21.0%)’, ‘얼굴피부(불만 35.6%, 만족 30.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나 몸무게, 키 등에 불만이 많은 것은 전체적인 각선미를 중시하는 최근의 미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만족도가 높은 신체부위는 ‘몸피부(불만 15.4%, 만족 40.9%)’, ‘입(불만 13.7%, 만족 39.0%)’, ‘목(불만 13.8%, 만족 38.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피부나 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위이고, 입의 경우는 특징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만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에 대해 만족하는가 또는 만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므로 이렇게 불만과 만족에 대한 빈도분포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해 순위를 매겨보면 그 추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표Ⅳ-2>에서는 각 신체부위에 대해 불만이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놓았다. 평균이 5점 만점에 3점이면 보통이므로 3점 이하면 불만이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다.

<표Ⅳ-1> 신체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단위: %)

신체부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사례수
얼굴	눈	4.9	16.5	39.1	26.4	13.1	1195
	코	7.8	20.8	41.4	22.5	7.4	1190
	입	3.1	10.6	47.4	28.7	10.3	1189
	치아	9.9	21.7	37.5	19.9	11.0	1184
	얼굴크기	8.2	19.6	43.8	19.0	9.4	1186
	얼굴형	7.1	20.4	42.4	21.4	8.6	1189
	얼굴생김전체	5.6	15.1	51.5	19.7	8.2	1189
몸	목	3.6	10.2	47.4	28.3	10.4	1187
	어깨	5.5	19.8	47.1	19.5	8.1	1185
	가슴	5.9	17.6	56.9	14.0	5.6	1173
	팔	5.3	18.3	46.1	21.7	8.6	1181
	손	7.9	25.1	35.1	20.7	11.2	1181
	허리	6.6	21.1	45.3	19.5	7.6	1175
	배	10.3	23.8	44.9	13.2	7.8	1172
	엉덩이	6.1	16.3	55.8	15.4	6.3	1173
	다리	11.5	28.8	36.3	16.2	7.2	1175
	발	4.8	16.3	48.7	21.6	8.7	1177
	몸매·체격	6.6	19.4	44.4	21.2	8.3	1173
	키	13.4	26.9	31.7	18.3	9.7	1178
	몸무게	9.7	27.7	40.1	14.9	7.6	1178
신체 외부	얼굴색	5.4	15.7	42.4	25.6	10.9	1179
	얼굴피부	11.4	24.2	34.1	18.8	11.4	1189
	머리결	8.9	19.3	34.0	24.2	13.6	1191
	몸피부	4.1	11.3	43.7	29.2	11.7	1183
외모 스타일	헤어스타일	5.5	17.6	50.5	18.6	7.8	1180
	옷차림	3.4	10.1	55.7	22.0	8.9	1175
	외모전체	4.2	15.5	50.7	20.9	8.7	1175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리가 평균 2.79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만이 있는 곳은 몸무게, 키, 배, 얼굴피부, 가슴, 엉덩이의 순이다. 반면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신체부위는 몸피부이고, 다음으로는 입, 목, 눈, 옷차림, 얼굴색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순위는 남녀간에 차이가 많았다. 우선 평균점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장 불만이 많은 신체부위는 치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조차도 평균이 3.01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가장 불만이 많은 신체부위가 다리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48에 그치고 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치아 다음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신체부위를 5순위까지 살펴보면, 몸무게, 키, 얼굴피부, 가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가 가장 불만이라고 하는 다리는 7순위이다.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다리 다음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신체부위를 5순위까지 살펴보면, 배, 몸무게, 키, 엉덩이의 순이고 남자가 가장 불만이라고 하는 치아는 20위로써 매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치아교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후술하고 있지만 치아교정 경험에 있어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험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따라서 치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신체부위는 키와 몸무게인데 이는 신체적 특징이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키나 몸무게는 계량화되어 있어 타인과의 비교가 쉽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만족도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족도가 높은 신체부위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거의 차이가 없어 만족순위 1-3위가 순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1-3위와 일치하고 있다.

<표 IV-2> 신체불만 순위

순위	전 체		남 자		여 자	
	신체부위	평균	신체부위	평균	신체부위	평균
1	다리	2.79	치아	3.01	다리	2.48
2	몸무게	2.83	몸무게	3.01	배	2.63
3	키	2.84	키	3.01	몸무게	2.66
4	배	2.84	얼굴피부	3.02	키	2.67
5	얼굴피부	2.95	가슴	3.05	영덩이	2.79
6	가슴	2.96	배	3.07	손	2.80
7	영덩이	2.99	다리	3.11	허리	2.85
8	치아	3.00	머릿결	3.15	어깨	2.86
9	허리	3.00	얼굴크기	3.15	코	2.86
10	코	3.01	헤어스타일	3.16	몸매·체격	2.87
11	얼굴크기	3.02	코	3.16	가슴	2.87
12	손	3.02	얼굴형	3.17	얼굴피부	2.87
13	얼굴형	3.04	허리	3.17	얼굴크기	2.89
14	어깨	3.05	영덩이	3.21	얼굴형	2.92
15	몸매·체격	3.05	팔	3.24	얼굴생김전체	2.94
16	헤어스타일	3.06	몸매·체격	3.24	발	2.94
17	얼굴생김전체	3.10	어깨	3.25	헤어스타일	2.96
18	팔	3.10	손	3.25	외모전체	2.97
19	발	3.13	얼굴생김전체	3.27	팔	2.97
20	머릿결	3.14	옷차림	3.29	치아	3.00
21	외모전체	3.14	얼굴색	3.32	얼굴색	3.10
22	얼굴색	3.21	외모전체	3.33	머릿결	3.14
23	옷차림	3.23	발	3.34	눈	3.16
24	눈	3.26	눈	3.37	옷차림	3.16
25	목	3.32	입	3.38	목	3.23
26	입	3.32	몸피부	3.41	몸피부	3.26
27	몸피부	3.33	목	3.41	입	3.27

나. 신체만족도의 집단별 차이

청소년의 전체적인 신체만족도는 135점 만점에 83.39로써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09점이므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는 앞의 순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남자청소년은 87.24(5점 만점 3.23)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었으나,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79.86(5점 만점 2.96)으로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생활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는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과 '중 및 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성적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적이 낮을수록 신체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는 성적이 '상'인 집단과 '중 및 하'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3> 전체 신체만족도의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83.39	16.20	1065	
성별	남자	87.24	16.97	515	t=7.579 p=.000
	여자	79.86	14.63	550	
생활수준	상	90.59	18.96	148	F=23.501 p=.000
	중	82.80	15.48	824	
	하	76.69	14.00	87	
성적	상	88.15	18.51	208	F=10.727 p=.000
	중	82.50	15.04	609	
	하	82.09	16.52	233	

Scheffe검정 : 생활수준-상*중/상*하/중*하, 성적-상*중/상*하

이와 같이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신체만족도도 낮은 것은 생활수준이나 학교성적에 대한 변인 측정이 객관적인 수치의 기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개인적인 평가를 통해 '상중

하'를 매기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활수준이나 자신의 성적에 대한 자기평가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도 낮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신체만족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4가지 신체유형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얼굴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56으로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성별, 교급별, 생활수준별, 학교 성적별로 만족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는 생활수준의 상, 중, 하 세 집단간에 모두 차이가 있고, 성적에 있어서는 상 집단과 중 및 하 집단 간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 얼굴 만족도의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4.89	5.24	1140	
성별	남자	25.87	5.47	550	t=6.081 p=.000
	여자	24.00	4.86	590	
교급	중학교	25.21	5.14	559	t=1.975 p=.048
	고등학교	24.60	5.32	581	
생활수준	상	26.85	5.78	162	F=16.712 p=.000
	중	24.70	5.05	879	
	하	23.27	5.21	93	
성적	상	26.55	5.84	215	F=12.913 p=.000
	중	24.58	4.89	660	
	하	24.46	5.44	250	

Scheffe검정 : 생활수준-상*중/상*하/중*하, 성적-상*중/상*하

다음으로 몸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01로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보통 수준이나 성별, 교급별, 생활수준별, 학

교성적별로 만족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는 생활수준의 상, 중, 하 세 집단간에 모두 차이가 있고, 성적에 있어서는 상 집단과 중 및 하 집단 간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의 추세는 얼굴에 대한 만족도와 일치하고 있다.

<표IV-5> 몸 만족도의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39.17	8.84	1110	
성별	남자	41.60	9.04	539	t=9.209 p=.000
	여자	36.88	8.00	571	
교급	중학교	39.85	8.89	537	t=2.493 p=.013
	고등학교	38.53	8.75	573	
생활수준	상	42.61	10.29	153	F=19.928 p=.000
	중	38.90	8.51	859	
	하	35.64	7.43	91	
성적	상	41.49	10.02	214	F=8.929 p=.000
	중	38.74	8.25	633	
	하	38.48	9.05	246	

Scheffe검정 : 생활수준-상*중/상*하/중*하, 성적-상*중/상*하

다음으로 신체 중에 외부로 보여지는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17로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이 역시 성별로 차이가 있었고, 생활수준별, 학교성적별로 만족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는 생활수준의 상, 중, 하 세 집단간에 모두 차이가 있고, 성적에 있어서는 상 집단과 중 및 하 집단 간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것은 몸이나 얼굴 부위와는 달리 교급간에 차이가 없었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나 '머리결' 같은 부위는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관리 가능한 면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경우 그만큼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피부'나 '머리결'에 대한 관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표IV-6> 신체외부 만족도의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2.67	3.15	1165	
성별	남자	12.93	3.10	566	t=2.817 p=.005
	여자	12.41	3.18	599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2.45	3.20	526	t=-2.174 p=.030
	전문대졸이상	12.86	3.11	580	
생활수준	상	13.97	3.40	163	F=20.264 p=.000
	중	12.53	3.00	897	
	하	11.66	3.55	98	
성적	상	13.34	3.39	221	F=6.530 p=.002
	중	12.57	2.97	664	
	하	12.38	3.35	263	

Scheffe검정 : 생활수준-상*중/상*하/중*하, 성적-상*중/상*하

다음으로 전체적인 외모 스타일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14로 이 또한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역시 성별로 차이가 있었고, 생활수준별, 학교성적별로 만족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는 생활수준의 상, 중, 하 세 집단간에 모두 차이가 있고, 성적에 있어서는 상 집단과 중 및 하 집단 간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외부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경향으로 몸이나 얼굴 부위와는 달리 교급간에 차이가 없었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의 경우는 ‘피부’나 ‘머리결’ 보다는 더 후천적인 관리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경우 헤어스타일을 멋지게 꾸미거나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래서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표 IV-7> 외모스타일 만족도의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9.43	2.30	1170	
성별	남자	9.79	2.33	573	t=5.203 p=.000
	여자	9.09	2.23	597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9.15	2.30	536	t=-3.982 p=.000
	전문대졸이상	9.70	2.26	573	
생활수준	상	10.29	2.54	163	F=19.161 p=.000
	중	9.36	2.22	904	
	하	8.57	2.25	96	
성적	상	10.02	2.43	220	F=9.799 p=.000
	중	9.39	2.19	670	
	하	9.11	2.41	263	

Scheffe검정 : 생활수준-상*중/상*하/중*하, 성적-상*중/상*하

(2) 신체불만 사유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 ‘매우 불만’ 또는 ‘불만’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각각에 대해 불만사유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들 청소년의 불만도가 높았던 신체부위부터 차례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다리의 불만사유는 굵다(59.4%)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은 짧다(20.2%)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로 차이가 있어 여자(67.4%)는 굵어서 불만이라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으나 남자는 굵은 것(42.9%)뿐만 아니라 짧아서(33.3%) 불만이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짧거나 굵다는 이유 외에 다른 불만사유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다리가 가늘어서 불만이 12.2%,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휘어서 불만이 17.4%이다.

<표 IV-8> 다리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짧다	굵다	가늘다	휘었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0.2	59.4	4.9	15.5	451	
성 남자	33.3	42.9	12.2	11.6	147	$\chi^2=55.241$ p=.000
별 여자	13.8	67.4	1.3	17.4	304	

다음으로 몸무게에 대한 불만은 여자(95.4%)의 경우 대다수가 많아서 불만이지만 남자의 경우는 많아서(57.0%) 불만인 경우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적어서(43.0%) 불만인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자청소년의 실제 몸무게와 몸무게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 $-0.143(**)$ 으로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0.286(**)$ 으로 이러한 관련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몸무게가 적어서 불만이라고 한 남자청소년의 평균몸무게는 52.12kg(76명)이고, 몸무게가 많아서 불만이라고 한 남자청소년의 평균몸무게는 71.62kg(97명)이었다. 또한 몸무게가 많아서 불만이라고 한 여자청소년의 평균몸무게는 51.87kg(166명)이고, 몸무게가 적어서 불만이라고 한 여자청소년의 평균몸무게는 44.10kg(10명)이었다.

<표 IV-9> 몸무게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적다	많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1.1	78.9	417	
성 남자	43.0	57.0	179	$\chi^2=90.455$ p=.000
별 여자	4.6	95.4	238	

키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차이없이 작아서(93.3%) 불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이유이다. 한편 남자청소년의 실제 키와 키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 .375(**)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키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392(**)로 이러한 관련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키가 커서 불만이라고 한 남자청소년의 평균키는 176.85cm(13명)이고, 키가 커서 불만이라고 한 여자청소년의 평균키는 166.94cm(181명)이었다. 또한 키가 작아서 불만이라고 한 남자청소년의 평균키는 166.25cm(16명)이고, 키가 작아서 불만이라고 한 여자청소년의 평균키는 157.58cm(223명)이었다.

<표IV-10> 키 불만사유

구 분	작다	크다	전 체
비율(%)	93.3	6.7	100.0
빈도(명)	420	30	450

배에 대한 불만사유는 여자의 경우 대부분이 배가 나와서 그렇다는 것이고, 남자의 경우도 배가 나온 것이 불만이라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육질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왕(王)자가 안 생겨서 불만이라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표IV-11> 배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배가 나왔다	왕(王)자가 안생긴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88.5	11.5	382	
성 남자	72.5	27.5	149	$\chi^2=61.349$ p=.000
별 여자	98.7	1.3	233	

얼굴피부에 대해서는 남자는 주로 여드름 때문에 불만이고, 여자도 여드름 때문에 불만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잡티 때문에 불만이라는 경우도 35.6%로 적지 않았다.

<표 IV-12> 얼굴피부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여드름	잡티	거칠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62.7	27.0	10.3	418	
성 남자	67.9	17.1	15.0	193	$\chi^2=22.463$ $p=.000$
별 여자	58.2	35.6	6.2	225	

가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가슴이 작거나 가슴근육이 빈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사유이나 여자의 경우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이라는 경우도 26.2%로 적지 않았다.

<표 IV-13> 가슴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작다(여) 빈약(남)	크다(여) 발달(남)	쭉쭉이	치졌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71.9	19.4	3.8	4.9	263	
성 남자	78.8	11.0	1.7	8.5	118	$\chi^2=17.080$ $p=.001$
별 여자	66.2	26.2	5.5	2.1	145	

엉덩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자의 경우 작아서 불만이라는 경우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여자의 경우는 치져서 불만이라는 경우가 남자보다 많았다.

<표 IV-14> 엉덩이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크다	작다	쭉쭉이	치졌다	오리형	사례수	통계치
전 체	63.9	12.0	1.6	7.6	14.9	249	
성 남자	62.5	15.0	5.0	2.5	15.0	80	$\chi^2=13.404$ $p=.009$
별 여자	64.5	10.7		10.1	14.8	169	

치아에 대해서는 이가 고르지 않아서(68.6%) 불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은 색깔이 좋지 않아서(19.0%)이다.

<표IV-15> 치아 불만사유

구 분	작다	크다	안 고름	색깔나쁨	전 체
비율(%)	7.5	4.8	68.6	19.0	100.0
빈도(명)	28	18	256	71	373

허리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굵어서 불만이라는 것이 가장 많았지만, 남자의 경우 너무 가늘어서 불만이라는 경우가 21.0%로 적지 않았는데 여자의 경우는 굵어서 불만이라는 경우가 90.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IV-16> 허리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굵다	길다	너무 가늘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83.0	8.2	8.8	317	
성 별	남자	69.7	9.2	21.0	119
	여자	90.9	7.6	1.5	198

 $\chi^2=36.240$

p=.000

코에 대해서는 낮아서 불만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커서 불만이라는 것이다.

<표IV-17> 코 불만사유

구 분	낮다	크다	들창코	매부리코	전 체
비율(%)	63.9	21.1	9.0	6.1	100.0
빈도(명)	221	73	31	21	346

얼굴크기에 대해서는 주로 커서 불만이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자의 경우 작아서 불만은 3.2%에 불과해 작은 얼굴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다.

<표 IV-18> 얼굴크기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크다	작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90.0	10.0	319	
성 별	남자	80.3	132	$\chi^2=23.309$ p=.000
	여자	96.8	187	

손에 대한 불만사유는 남자의 경우 작다는 것이 32.4%로 가장 많고 여자의 경우는 굵다는 것이 38.6%로 가장 많다.

<표 IV-19> 손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크다	작다	짧다	굵다	손톱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0.6	19.2	15.8	33.0	21.3	385	
성 별	남자	8.6	32.4	16.5	23.0	139	$\chi^2=27.387$ p=.000
	여자	11.8	11.8	15.4	38.6	246	

얼굴형에 대한 불만사유는 남자의 경우 길다는 것이 31.7%로 가장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둥글다는 것이 39.5%로 가장 많아 선호하는 얼굴형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20> 얼굴형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길다	둥글다	각졌다	광대뼈	살찼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1.8	32.7	15.3	13.0	17.1	339	
성 별	남자	31.7	23.0	16.5	10.8	139	$\chi^2=18.420$ p=.001
	여자	15.0	39.5	14.5	14.5	200	

어깨에 대해서는 통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남녀간에 불만사유가 상충되고 있다. 남자는 78.6%가 좁아서 불만인 반면 여자는 86.5%가 넓어서 불만이라고 한다.

<표 IV-21> 어깨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넓다	좁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63.7	36.3	295	
성 별	남자	21.4	78.6	103	$\chi^2=122.905$ p=.000
	여자	86.5	13.5	192	

몸매나 체격에 대해서는 뚱뚱해서 불만이라는 경우가 균형이 안잡혀서 불만이라는 경우보다 조금 많았다.

<표 IV-22> 몸매·체격 불만사유

구 분	균형이 안잡혔다	뚱뚱하다	전 체
비율(%)	45.3	54.7	100.0
빈도(명)	126	152	278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촌스러워서 불만이라는 경우보다는 개성이 없어서 불만이라는 경우가 더 많아 학교의 두발제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을 엿볼 수 있다.

<표 IV-23> 헤어스타일 불만사유

구 분	촌스럽다	개성없다	전 체
비율(%)	28.3	71.7	100.0
빈도(명)	68	172	240

얼굴생김 전체에 대해서는 개성이 없어서 불만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못생겼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불만인 경우가 67.1%로 더 많았다.

<표 IV-24> 얼굴생김전체 불만사유

구 분	못생겼다	개성없다	전 체
비율(%)	67.1	32.9	100.0
빈도(명)	159	78	237

팔에 대해서도 통상 생각할 수 있는대로 남녀간에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남자는 근육이 빈약해서 불만이 70.8%인 반면 여자는 굵어서 불만이 89.0%이다.

<표 IV-25> 팔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가늌(여) 빈약(남)	굵음(여) 발달(남)	짧다	길다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30.1	59.9	7.8	2.2	269	
성 별	남자	70.8	15.1	12.3	1.9	106	$\chi^2=159.059$ p=.000
	여자	3.7	89.0	4.9	2.5	163	

발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작아서 불만이 39.1%로 가장 많으나 여자의 경우는 볼이 넓어서 불만이 42.0%로 가장 많아 발에 대한 선호도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6> 발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크다	작다	볼 넓음	발톱	사례수	통계치
전 체		30.6	19.2	38.0	12.2	69	
성 별	남자	18.8	39.1	27.5	14.5	176	$\chi^2=27.414$ p=.000
	여자	35.2	11.4	42.0	11.4	245	

머릿결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곱슬머리에 대해 불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거칠어서 불만이라는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아 차이를 보였다.

<표 IV-27> 머릿결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곱슬머리	두껍다	거칠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60.1	15.0	24.9	333	
성 남자	55.3	12.5	32.2	152	$\chi^2=8.248$ p=.016
별 여자	64.1	17.1	18.8	181	

외모전체에 대한 불만사유는 남자의 경우는 못생겼다는 것이 34.2%로 가장 많았으나 여자의 경우는 매력이 없다는 것이 33.8%로 가장 많았다.

<표 IV-28> 외모전체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촌스럽다	개성없다	못생겼다	매력없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6.8	24.9	38.9	29.4	221	
성 남자	12.7	31.6	34.2	21.5	79	$\chi^2=11.814$ p=.008
별 여자	3.5	21.1	41.5	33.8	142	

<표 IV-29> 얼굴색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검다	노랗다	창백하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59.8	34.1	6.0	249	
성 남자	60.2	27.2	12.6	103	$\chi^2=15.182$ p=.001
별 여자	59.6	39.0	1.4	146	

얼굴색에 대해서는 주로 검거나 노랗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 창백해서 불만도 12.6%로 적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옷차림에 대해서는 촌스러워서 불만인 경우보다는 개성이 없어 불만이라는 경우가 68.6%로 더 많았다. 이는 앞의 헤어스타일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역시 교복에 대한 불만의 한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IV-30> 옷차림 불만사유

구 분	촌스럽다	개성없다	전 체
비율(%)	31.4	68.6	100.0
빈도(명)	48	105	153

눈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작아서 불만이 65.5%로 가장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작아서 불만도 49.4%로 많지만 쌍꺼풀이 없어서 불만도 44.1%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자의 경우는 쌍꺼풀이 있어서 불만이 14.7%이고 여자의 경우는 쌍꺼풀이 있어서 불만이 1.2%에 그쳐 남녀간에 선호하는 눈 모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IV-31> 눈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작다	크다	쌍꺼풀 이 없다	쌍꺼풀 이 있다	눈꺼풀이 두껍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55.9	3.1	31.1	6.6	3.1	286	
성 별	남자	65.5	4.3	12.1	14.7	3.4	116	$\chi^2=45.707$ p=.000
	여자	49.4	2.4	44.1	1.2	2.9	170	

목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굵어서 불만이 58.9%로 더 많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짧아서 불만이 70.4%로 훨씬 많았다.

<표 IV-32> 목 불만사유

(단위: %)

집 단	짧다	굵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59.7	40.3	154	
성 남자	41.1	58.9	56	$\chi^2=12.752$ p=.000
별 여자	70.4	29.6	98	

입에 대해서는 입술이 두꺼워서 불만인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는데, 작아서 불만인 경우도 30.3%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V-33> 입 불만사유

구 분	작다	크다	얇다	두껍다	전 체
비율(%)	30.3	18.5	13.5	37.6	100.0
빈도(명)	54	33	24	67	178

몸피부에 대해서는 잡티 때문에 불만이라는 경우가 39.1%로 가장 많았지만 색이 검어서 불만인 경우나 거칠어서 불만인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34> 몸피부 불만사유

구 분	검다	잡티	거칠다	전 체
비율(%)	30.5	39.1	30.5	100.0
빈도(명)	53	68	53	174

2) 이상적인 신체상

(1) 이상적인 여성신체상

먼저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날씬한 몸매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고운 피부를 들고 있다. 세 번

제 조건으로는 남자의 경우 얼굴전체의 조화를 들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큰 눈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외모전체의 스타일, 세련된 옷차림, 흰피부 등이다. 따라서 외모의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35>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조건

(다중응답)

순위	전 체		남 자		여 자	
	조건	빈도	조건	빈도	조건	빈도
1	날씬한 몸매	565	날씬한 몸매	253	날씬한 몸매	312
2	고운 피부	462	고운 피부	200	고운 피부	262
3	얼굴전체 조화	382	얼굴전체 조화	171	큰 눈	228
4	외모전체 스타일	364	외모전체 스타일	170	얼굴전체 조화	211
5	큰 눈	345	흰 피부	128	외모전체 스타일	194
6	세련된 옷차림	306	가름한 얼굴형	122	세련된 옷차림	191
7	흰 피부	305	큰 눈	117	흰 피부	177
8	가름한 얼굴형	276	세련된 옷차림	115	작은 얼굴	170
9	작은 얼굴	255	풍만한 가슴	113	가름한 얼굴형	154
10	가지런한 치아	243	가지런한 치아	106	오뎅한 코	148
11	오뎅한 코	207	세련된 헤어스타일	90	가지런한 치아	137
12	세련된 헤어스타일	191	작은 얼굴	85	큰 키	117
13	쌍꺼풀	174	쌍꺼풀	62	쌍꺼풀	112
14	긴 다리	164	오뎅한 코	59	긴 다리	108
15	큰 키	161	긴 다리	56	세련된 헤어스타일	101
16	풍만한 가슴	139	풍만한 엉덩이	45	도톰한 입술	28
17	도톰한 입술	65	큰 키	44	풍만한 가슴	26
18	풍만한 엉덩이	50	작은 입	38	가는 팔	15
19	작은 입	47	도톰한 입술	37	흰 피부	9
20	가는 팔	24	가는 팔	9	풍만한 엉덩이	5
계		4725		2020		2705

(2) 이상적인 남성신체상

다음으로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큰 키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조건으로는 남자의 경우 균형잡힌 몸매

를 들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세련된 옷차림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외모전체의 스타일, 얼굴전체의 조화 등으로 남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

<표 IV-36>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조건

(다중응답)

순위	전 체		남 자		여 자	
	조 건	빈도	조 건	빈도	조 건	빈도
1	큰 키	588	큰 키	297	큰 키	291
2	균형잡힌 몸매	488	균형잡힌 몸매	270	세련된 옷차림	231
3	외모전체 스타일	411	외모전체 스타일	200	균형잡힌 몸매	218
4	얼굴전체 조화	409	얼굴전체 조화	191	얼굴전체 조화	218
5	세련된 옷차림	389	넓은 가슴어깨	189	외모전체 스타일	211
6	가는 팔	368	세련된 옷차림	158	넓은 가슴어깨	179
7	긴 다리	272	긴 다리	144	세련된 헤어스타일	138
8	세련된 헤어스타일	262	근육질	127	긴 다리	128
9	오뎅한 코	215	세련된 헤어스타일	124	흰 피부	123
10	고운 피부	203	가지런한 치아	97	고운 피부	120
11	짙은 눈썹	174	짙은 눈썹	96	얼굴전체 조화	78
12	가지런한 치아	172	오뎅한 코	92	가지런한 치아	75
13	근육질	163	고운 피부	83	가름한 얼굴형	71
14	가름한 얼굴형	147	가름한 얼굴형	76	작은 얼굴	65
15	큰 눈	112	큰 눈	61	쌍꺼풀없는 눈	63
16	작은 얼굴	102	흰 피부	44	흰 피부	53
17	흰 피부	97	쌍꺼풀	39	큰 눈	51
18	쌍꺼풀없는 눈	90	작은 얼굴	37	근육질	36
19	쌍꺼풀	68	쌍꺼풀없는 눈	27	쌍꺼풀	29
20	작은 엉덩이	25	작은 엉덩이	13	작은 엉덩이	12
계		4755		2365		2390

3) 소결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며, 이상적인 외

모의 여성 또는 남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의 전체적인 신체만족도는 보통이나 남자청소년 보다 여자청소년의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신체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각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다리가 불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만이 있는 곳은 몸무게, 키, 배, 얼굴피부, 가슴, 엉덩이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순위는 남녀간에 차이가 많았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장 불만이 많은 신체부위는 치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는 가장 불만이 많은 신체부위가 다리이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신체부위는 키와 몸무게인데 이는 신체적 특징이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키나 몸무게는 계량화되어 있어 타인과의 비교가 쉽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인데, 이는 신체만족도 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각 신체부위별로 불만이 있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불만도가 높은 신체부위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먼저 다리의 불만사유는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은 짧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몸무게에 대한 불만은 여자의 경우 대다수가 많아서 불만이지만 남자의 경우는 많아서 불만인 경우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적어서 불만인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키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차이없이 작아서 불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이유이다. 치아에 대해서는 이가 고르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은 색깔이 좋지 않아서이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날씬한 몸매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고운 피부를 들고 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남자의 경우 얼굴전체의 조화를 들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큰 눈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외모전체의 스타일, 세련된 옷차림, 흰피부 등이다. 또한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큰 키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조건으로는 남자의 경우 균형잡힌 몸매를 들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세련된 옷차림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외모전체의 스타일, 얼굴전체의 조화 등이다. 남녀 모두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외모행동 실태

1) 외모행동 일반

(1) 외모행동 관심도

먼저 자신을 꾸미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는(70.0%) 청소년들이 없는(8.1%) 청소년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집단별로는 남자보다 여자, 인문계보다 실업계, 생활수준이 중간인 집단보다는 '하'이거나 '상'인 집단, 지역적으로는 강동보다는 강남이나 강북, 성적별로는 중간 집단보다는 '상' 또는 '하'인 경우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모행동 소요비용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한달 평균 지출하는 비용을 알아본 바로는 옷구입비용은 67,256원이고, 모자·머리핀·가방·신발 등의 신체 부착물 구입비용은 29,353원, 화장품 구입비용은 26,366원, 미장원 등의 머리하기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16,257원이다. 이들 비용은 대부분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머리하기에 있어서만은 '하'인 집단의 지출이 가장 많았다.

<표 IV-37> 외모행동 관심도

(단위: %)

집 단	매우 있음	조금 있음	그저 그렇다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5.0	45.0	21.9	6.5	1.6	1198		
성 별	남자	16.9	42.4	27.6	10.0	3.1	580	$\chi^2=85.595$ p=.000
	여자	32.7	47.4	16.5	3.2	0.2	618	
계 열	인문	21.6	45.9	26.0	5.1	1.5	412	$\chi^2=17.256$ p=.002
	실업	35.6	41.2	16.0	4.6	2.6	194	
생 활 수 준	상	28.4	44.4	16.0	8.3	3.0	169	$\chi^2=26.549$ p=.001
	중	24.1	46.1	22.5	6.4	0.9	924	
	하	29.6	35.7	24.5	4.1	6.1	98	
지 역	강북	27.1	42.7	20.9	7.2	2.2	694	$\chi^2=20.753$ p=.008
	강남	26.4	47.9	19.5	5.2	1.0	307	
	강동	15.7	48.7	28.9	6.1	0.5	197	
성 적	상	26.8	49.1	11.2	9.8	3.1	224	$\chi^2=36.104$ p=.000
	중	21.9	46.0	24.7	6.2	1.2	689	
	하	32.5	38.8	22.8	4.5	1.5	268	

<표 IV-38> 옷 구입비용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67285.79	109961.48	689	
생활수준	상	121175.99	180812.08	108	F=16.479 p=.000
	중	55845.92	79879.75	527	
	하	71042.04	148298.20	50	
지역	강북	57027.21	90225.70	401	F=19.178 p=.000
	강남	108960.20	161205.13	176	
	강동	38526.79	25899.31	112	
성적	상	104816.21	189044.56	136	F=9.983 p=.000
	중	57808.43	81393.09	403	
	하	59576.05	63655.08	146	

Scheffe검정 : 생활수준-상*중/상*하, 지역-강북*강남/강동*강남,

성적-상*중/상*하

옷 이외의 신체부착물 비용은 남자(42355원)가 여자(22804원)보다 많았다. 이들 비용과 용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높은 것은 옷(.39**)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머리하기(.21**)이다. 외모꾸미기 비용끼리는 화장품비용과 머리하기 비용의 상관관계(.56**)가 가장 높았다.

<표 IV-39> 옷 외의 신체부착물 구입비용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9353.31	69773.28	606	
성 별	남자	42355.19	85910.24	203	t=3.282 p=.001
	여자	22803.97	59073.47	403	
생활수준	상	56020.62	122662.48	97	F=12.363 p=.000
	중	21500.22	26582.38	463	
	하	49755.79	156531.51	43	
지 역	강북	25137.44	60324.04	350	F=7.802 p=.000
	강남	46542.68	98571.79	164	
	강동	14750.00	13767.80	92	
성 적	상	45192.98	108565.29	114	F=3.760 p=.024
	중	24661.31	58466.27	354	
	하	28762.96	52469.92	135	

Scheffe검정 : 생활수준-상*중/중*하, 지역-강북*강남/강동*강남,
성적-상*중

<표 IV-40> 화장품 구입비용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6365.98	95464.33	232	
생활수준	상	61638.86	171525.79	36	F=4.750 p=.010
	중	15090.64	17336.98	171	
	하	52696.36	197959.01	25	

Scheffe검정 : 생활수준-상*중/상*하

<표 IV-41> 미장원 등 머리하기 비용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6256.96	51908.62	525	
계열	인문고	12803.78	19513.96	186	t=-2.507 p=.013
	실업고	38569.23	136727.14	65	
생활수준	상	26827.43	59931.14	84	F=6.387 p=.002
	중	11892.70	17064.75	397	
	하	36046.49	151552.44	43	

Scheffe검정 : 생활-중*하

<표 IV-42> 용돈 및 외모치장비용 상관관계

구 분	용돈	옷	부착물	화장품	머리
용돈	1.00				
옷	.39**	1.00			
부착물	.30**	.61**	1.00		
화장품	.23**	.49**	.53**	1.00	
머리	.21**	.38**	.26**	.56**	1.00

**p<.01

(3) 외모행동 정보원

외모를 꾸미기 위해 정보를 얻는 곳은 친구나 선후배(35.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TV(17.0%), 패션잡지(16.6%), 길거리(15.8%)의 순이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은 패션잡지(27.1%)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은 길거리(20.5%)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문계보다 실업계 청소년의 경우 길거리(20.5%)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생활수준이 '하'인 집단은 친구나 선후배(42.7%)로부터 주로 정보를 얻는 한편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패션잡지(19.7%)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길거리(18.3%)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43> 외모행동 정보원

(단위: %)

집 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사례수	통계치
전 체	35.0	1.7	0.2	16.6	17.0	3.4	1.0	15.8	2.1	7.0	1150	
성 별	남자	34.9	2.2	0.4	5.4	21.4	4.5	1.4	15.1	1.3	13.5	$\chi^2=169.593$
	여자	35.2	1.3	-	27.1	13.0	2.4	0.7	16.5	2.9	1.0	p=.000
교 급	중	37.5	2.2	0.3	16.6	17.8	4.2	0.7	11.2	1.6	7.8	$\chi^2=27.437$
	고	32.5	1.2	-	16.6	16.3	2.6	1.4	20.5	2.6	6.3	p=.001
계 열	인문	33.8	1.3	-	15.6	17.1	2.8	0.5	19.7	3.1	6.1	$\chi^2=21.400$
	실업	29.9	1.1	-	18.5	14.1	2.2	3.3	22.3	1.6	7.1	p=.011
생활수준	상	34.4	5.1	-	19.7	14.6	3.2	3.2	14.0	0.6	5.1	$\chi^2=34.689$
	중	34.4	1.2	0.1	16.5	18.0	3.6	0.7	16.0	2.4	7.2	p=.010
	하	42.7	1.0	1.0	13.5	12.5	1.0	1.0	16.7	2.1	8.3	
성 적	상	38.7	5.1	-	15.2	15.7	2.8	0.5	12.9	1.8	7.4	$\chi^2=32.814$
	중	32.9	1.1	-	17.2	18.3	3.8	1.2	16.0	2.6	7.0	p=.018
	하	36.5	0.8	0.8	16.0	15.2	3.0	1.1	18.3	1.1	7.2	

①친구나 선후배 ②부모님 ③선생님 ④패션잡지 ⑤TV

⑥인터넷 ⑦영화나 비디오 ⑧길거리 ⑨상점 ⑩기타

(4) 외모와 교우관계

잘금하고 세련된 친구(43.2%)와 얼굴이 예쁜 친구(36.3%)가 친구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다고 했고, 반면 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하는 친구(1.6%)는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별로 여자(9.6%)보다는 남자(14.3%), 고등학생(9.4%)보다는 중학생(14.4%), 다른 지역(강북 11.6%, 강동 11.1%)보다는 강남지역(13.0%)에 사는 청소년들의 경우 최신행을 따르는 친구가 인기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친구사귀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청소년은 12.6%였다. 이런 경험은 여자의 경우 10.1%, 남자의 경우 15.1%로 남자의 경험율이 더 높았고, 한편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외모 때문에 친구사귀기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인기있는 친구의 외모조건

(단위: %)

집 단		이쁜 얼굴	최신 유형	비싼옷 장신구	키크고 날씬	잘꿈 세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36.3	11.9	1.6	7.0	43.2	1161	
성 별	남자	30.9	14.3	2.0	8.4	44.4	559	$\chi^2=17.932$ p=.001
	여자	41.2	9.6	1.3	5.6	42.2	602	
교 급	중	39.8	14.4	1.6	6.6	37.7	578	$\chi^2=18.311$ p=.001
	고	32.8	9.4	1.7	7.4	48.7	583	
지 역	강북	35.0	11.6	0.9	8.6	43.8	671	$\chi^2=25.270$ p=.001
	강남	39.7	13.0	4.0	3.3	40.0	300	
	강동	35.3	11.1	0.5	6.8	46.3	190	

<표 IV-45> 외모로 인한 친구교제 곤란경험

(단위: %)

집 단		없 다	있 다	사 례 수	통 계 치
전 체		87.4	12.6	1161	
성 별	남자	84.9	15.1	559	$\chi^2=6.630$ p=.010
	여자	89.9	10.1	602	
생 활 수 준	상	85.0	15.0	160	$\chi^2=6.630$ p=.010
	중	88.8	11.2	889	
	하	78.3	21.7	92	

외모로 인해 친구사귀기에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과 그런 경험이 없는 청소년 간에 친구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성교제 경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교제곤란경험이 있다고 한 집단이 없다는 집단에 비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아마도 이성교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낄 기회도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된다.

한편 친구사귀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얼굴이 못생겨서(30.9%)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뚱뚱해서(22.2%)이다. 그러나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아 '상' 집단의 경우는 뚱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청소년(3.7%)

이 거의 없었고, 그 보다는 옷을 못입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청소년(25.9%)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아무래도 생활수준이 높을 수록 입을 잘 입고 못 입는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46> 외모로 인한 친구교제 곤란경험과 이성교제경험

(단위: %)

집 단	없다	1명	2명	3-4명	5명이상	사례수	통계치
전 체	50.4	13.3	10.3	10.9	15.2	1115	
곤란	없다	51.5	12.1	10.6	11.2	974	$\chi^2=12.784$ p=.012
	있다	42.6	21.3	8.5	8.5	141	

<표 IV-47> 외모로 인한 친구교제 곤란이유

(단위: %)

구 분	얼굴 못생김	뚱뚱	왜소한 몸	옷을 못입음	유행물 없음	기타	사 례 수	통계치
전 체	30.9	22.2	7.4	9.9	6.8	22.8	162	
생활수준	상	33.3	3.7	3.7	25.9	3.7	27	$\chi^2=21.326$ p=.019
	중	29.2	25.7	6.2	7.1	8.0	113	
	하	36.4	27.3	18.2	4.5	4.5	22	

2) 섭식행동

(1) 다이어트 경험

가. 다이어트 경험의 일반적 경향

몸매관리 경험에 대해서는 그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각각의 다이어트 방법별로 “안해봤음”, “10일이내”, “1달이내”, “1-6개월”, “6개월이상”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경험율이 높은 것이 주로 지속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경험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해 본 것은 운동을 통한 몸매관리이다. 특히 헬

스 이외의 운동에 대한 경험율이 높았다. 다음은 식사조절인데 그중 가장 경험율이 높은 것은 저녁굶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물이나 다이어트법의 시행의 경우는 경험율도 낮고 지속적 경험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다이어트 경험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몸매관리법		안해 봤음	10일 이내	1달 이내	1-6 개월	6개월 이상	사례수
식사 조절	아침굶기	77.0	8.9	3.2	1.6	9.3	1085
	저녁굶기	73.9	18.4	4.7	1.3	1.7	1098
	간식·단음식 안먹기	75.7	14.3	5.2	2.4	2.4	1089
운동	버스탈 수 있는 곳 걷기	69.9	15.8	4.3	1.6	8.5	1079
	헬스클럽·헬스기구	80.9	6.4	6.4	3.7	2.7	1086
	헬스 이외 운동	64.7	11.3	8.5	4.0	11.4	1088
기타 방법	다이어트약	96.8	1.2	0.6	0.2	1.2	1077
	유행다이어트방법	94.6	2.9	0.9	0.5	1.1	1077
	이뇨제·설사제	97.5	1.4	0.2	-	0.9	1081
	담배피기	91.8	1.8	0.5	0.6	5.5	1080
	단식원·비만교실	97.8	0.6	0.1	0.1	1.4	1080

나. 다이어트 경험의 집단별 차이

전체적인 다이어트 경험은 14.69(5점 만점 1.34)이다. 집단간에는 여자(14.35)보다 남자(15.08), 중학생(14.20)보다 고등학생(15.20), 아버지학력이 높은 집단, 생활주준이 '중'보다는 '하'인 집단의 경험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유형별로는 약물이나 다이어트법의 경험이 5.55(5점 만점 1.11), 식사조절 경험이 4.34(5점 만점 1.45), 운동 경험이 4.85(5점 만점 1.62)로 걷기나 헬스 등의 운동을 통해 몸매관리를 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9> 전체 다이어트경험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4.69	5.72	1039	
성별	남자	15.08	7.12	494	t=1.998 p=.046
	여자	14.35	4.03	545	
교급	중학교	14.20	5.56	518	t=-2.825 p=.005
	고등학교	15.20	5.83	521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4.24	4.67	479	t=-2.400 p=.017
	전문대졸이상	15.11	6.60	512	
생활수준	상	15.02	6.17	146	F=4.133 p=.016
	중	14.47	5.32	808	
	하	16.32	8.08	81	

Scheffe검정 : 생활수준-중*하

<표 IV-50> 식사조절 경험의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4.34	2.20	1069	
성별	남자	4.06	2.29	508	t=-3.891 p=.000
	여자	4.58	2.08	561	
교급	중학교	4.16	2.16	532	t=-2.666 p=.008
	고등학교	4.51	2.23	537	
계열	인문고	4.30	2.04	379	t=-3.063 p=.002
	실업고	4.99	2.56	161	
생활수준	상	4.27	2.07	151	F=3.846 p=.022
	중	4.29	2.16	828	
	하	4.98	2.72	84	
지역	강북	4.51	2.31	612	F=5.403 p=.005
	강남	4.20	2.19	279	
	강동	3.94	1.74	178	

Scheffe검정 : 생활수준-중*하, 지역-강북*강동

<표 IV-51> 운동 경험의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4.85	2.72	1066	
성별	남자	5.25	3.24	506	t=4.371 p=.000
	여자	4.51	2.11	560	
교급	중학교	4.67	2.61	533	t=-2.306 p=.021
	고등학교	5.05	2.84	533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4.52	2.44	491	t=-3.709 p=.000
	전문대졸이상	5.14	2.91	524	
성적	상	5.41	3.11	194	F=4.810 p=.008
	중	4.71	2.54	608	
	하	4.87	2.84	249	

Scheffe검정 : 생활수준-중*하, 성적-상*중

<표 IV-52> 기타다이어트방법 경험의 평균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5.55	2.26	1066	
성별	남자	5.78	2.95	506	t=3.024 p=.003
	여자	5.34	1.34	560	
교급	중학교	5.41	2.20	531	t=-2.059 p=.040
	고등학교	5.69	2.32	535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5.41	1.64	488	t=-1.960 p=.050
	전문대졸이상	5.69	2.73	527	
생활수준	상	5.85	2.83	150	F=5.457 p=.004
	중	5.44	1.99	827	
	하	6.15	3.34	85	
성적	상	5.77	2.87	194	F=3.369 p=.035
	중	5.40	1.91	607	
	하	5.77	2.54	250	

Scheffe검정 : 생활수준-중*하

(2) 다이어트 효과

몸매관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헬스 이외의 운동(62.1%)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은 헬스클럽이나 헬스기구 사용(60.4%), 간식이나 단음식 안먹기(68.9%), 버스타할 수 있는 곳 걷기(57.5%), 저녁굶기(56.4%)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집단간에 다소 차이가 있어 아침굶기의 효과에 대해 여자는 6.9%만이 효과있다고 한 반면 남자는 23.6%가 효과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담배피기에 대해서도 여자는 4.0%만이 효과있다고 한 반면 남자는 20.3%가 효과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저녁굶기와 간식이나 단음식 안먹기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효과있는 방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IV-53> 효과 있는 몸매관리법

(단위: %)

구 분	전 체	성 별		
		남자	여자	유의도(p)
아침굶기	14.0(35)	23.6(25)	6.9(10)	.000
저녁굶기	56.4(162)	46.7(35)	59.9(127)	.047
간식이나 단음식 안먹기	58.9(156)	45.6(36)	64.5(120)	.004
다이어트약먹기	34.3(12)	37.5(6)	31.6(6)	-
다이어트법시행	44.8(26)	41.2(7)	46.3(19)	-
이뇨제나 설사제 사용	33.3(9)	53.3(8)	8.3(1)	.014
담배피기	15.7(14)	20.3(13)	4.0(1)	.049
단식원이나 비만교실 참가	29.2(7)	35.3(6)	14.3(1)	-
버스타할 수 있는 곳 걷기	57.5(187)	51.4(55)	60.6(132)	-
헬스클럽·헬스기구	60.4(125)	54.1(60)	67.7(65)	.045
헬스 이외의 운동	62.1(238)	57.2(111)	67.2(127)	.044

일반적으로 앞의 두가지 방법은 다이어트의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뒤의 두가지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여자들은 상식대로 응답하고 있고 남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응

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경향을 보이는 것은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다이어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다이어트방법의 효과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많고, 또한 다이어트법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에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는 아침굶기(49.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담배피기(32.6%), 이노제나 설사제 사용(22.2%), 다이어트약먹기(17.1%), 단식원이나 비만교실 참가(16.7%)의 순이다.

<표Ⅳ-54> 건강에 해로운 몸매관리법

(단위: %)

구 분	전 체	성 별		
		남자	여자	유의도(p)
아침굶기	49.2(123)	42.5(45)	54.2(78)	-
저녁굶기	10.8(31)	10.7(8)	10.8(23)	-
간식이나 단음식 안먹기	6.8(18)	8.9(7)	5.9(11)	-
다이어트약먹기	17.1(6)	6.3(1)	26.3(5)	-
다이어트법시행	12.1(7)	5.9(1)	14.6(6)	-
이노제나 설사제 사용	22.2(6)	6.7(1)	41.7(5)	.030
담배피기	32.6(29)	34.4(22)	28.0(7)	-
단식원이나 비만교실 참가	16.7(4)	11.8(2)	28.6(2)	-
버스타갈 수 있는 곳 걷기	4.6(15)	8.4(9)	2.8(6)	.022
헬스클럽·헬스기구	5.3(11)	8.1(9)	2.1(2)	.050
헬스 이외의 운동	4.7(18)	6.7(13)	2.6(5)	.050

3) 미용행동

(1) 미용행동 경험

미용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12가지를 제시하고 이중 해본 적이 있는 것을 고르도록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경험빈도는 2.45개이고, 이중 수술적

인 방법에 의한 것은 0.27개, 수술 외적인 것은 2.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스·스프레이·젤 등(53.3%)을 사용한 머리치장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염색(42.4%), 코팩(35.2%), 파마(28.2%) 등의 순이다. 집단별로는 문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용행동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의 경험율이 높았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험율이 높았다.

<표 IV-55> 미용행동 경험

(단위: %)

구 분	전체	성 별			교 급			지 역			
		남자	여자	p	중	고	p	강북	강남	강동	p
색조화장	21.8	2.9	39.7	.000	19.4	24.1	.045	24.2	21.8	13.1	.004
속눈썹붙이기	11.8	2.2	20.9	.000	9.0	14.5	.003	14.7	8.5	6.6	.001
코팩	35.2	15.7	53.7	.000	29.4	40.9	.000	34.6	37.1	34.3	-
피부마사지	25.5	8.3	41.7	.000	20.9	30.0	.000	28.6	23.5	17.7	.005
무스 등	53.3	47.0	59.2	.000	47.7	58.7	.000	54.9	49.2	54.0	-
파마	28.2	7.5	47.9	.000	25.9	30.5	-	30.0	26.7	24.2	-
염색	42.4	30.0	54.2	.000	36.4	48.3	.000	44.3	37.5	43.4	-
성형수술	2.3	2.9	1.8	-	2.3	2.3	-	2.6	2.6	1.0	-
치아교정	10.0	8.0	11.8	.017	10.0	9.9	-	8.7	13.7	8.6	.041
시력교정	2.5	2.4	2.6	-	3.0	2.0	-	2.6	3.3	1.0	-
피어싱	9.0	3.9	13.9	.000	7.8	10.2	-	8.6	12.1	6.1	-
문신	3.2	3.9	2.6	-	3.8	2.6	-	3.4	4.2	1.0	-

(2) 미용행동 욕구

미용행동에 대한 욕구는 염색(2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력교정수술(23.1%), 치아교정(22.6%) 등의 순이다. 성별로 색조화장이나 속눈썹붙이기, 파마 등에 여자의 욕구가 많은 것은 기존의 통념과 일치하는 것이고, 특기할 만한 것은 치아교정의 경우 남자들이 자신의 치아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던 것과는 달리 이 또한 여자들의 욕구가 남자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표 IV-56> 미용행동 욕구

(단위: %)

구 분	전체	성 별			교 급			지 역			
		남자	여자	p	중	고	p	강북	강남	강동	p
색조화장	10.4	2.7	17.7	.000	9.3	11.6	-	11.3	7.2	12.6	-
속눈썹붙이기	13.1	2.5	23.1	.000	13.4	12.9	-	13.1	13.0	13.1	-
코팩	9.1	6.5	11.7	.002	10.4	7.9	-	9.0	9.4	9.1	-
피부마사지	19.0	10.9	26.7	.000	16.5	21.5	.029	18.6	17.9	22.2	-
무스 등	4.2	4.8	3.6	-	4.8	3.6	-	4.7	3.9	3.0	-
파마	10.3	4.6	15.7	.000	8.0	12.5	.010	11.3	7.8	10.6	-
염색	24.0	22.3	25.6	-	28.0	20.0	.001	23.6	25.7	22.7	-
성형수술	18.8	7.7	29.3	.000	16.2	21.3	.024	20.1	16.3	17.7	-
치아교정	22.6	13.6	31.1	.000	20.5	24.6	-	23.6	21.2	21.2	-
시력교정	23.1	11.8	33.8	.000	21.0	25.1	-	23.6	21.8	23.2	-
피어싱	13.1	7.7	18.3	.000	12.4	13.9	-	12.7	13.7	13.6	-
문신	9.9	8.3	11.3	-	7.8	11.9	.019	10.6	9.1	8.6	-

(3) 미용행동 이유

이러한 미용행동 경험을 하거나 욕구를 갖는 이유는 미용행동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예뻐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다음은 그냥 좋아서 한다는 것이다. 다만 피어싱과 문신의 경우는 튀기 때문에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집단별로 대부분의 미용행동에 대해 예뻐지기 때문에 한다고 응답한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고, 튀니까 한다고 응답한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아교정과 같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자들의 대부분(73.3%)은 예뻐지기 때문에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시력교정수술에 대해서도 남녀간 차이없이 41.2%가 예뻐지기 때문에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IV-57> 미용행동 이유

(단위: %)

미용 행동	집 단	유행이니까	예뻐지니까	튀니까	하지 팔라는 거니까	그냥 좋아서	기타	사례수	통계치	
색조 화장	전 체	2.9	64.6	5.4	2.1	14.6	10.0	240		
	성별	남자	9.1	40.9	9.1	9.1	22.7	9.1	22	$\chi^2=12.803$ p=.046
		여자	2.3	67.0	5.1	1.4	13.8	10.1	218	
	교급	중	3.6	50.5	9.0	2.7	19.8	13.5	111	$\chi^2=19.616$ p=.003
		고	2.3	76.7	2.3	1.6	10.1	7.0	129	
속눈썹 붙이기	전 체	4.2	65.8	3.7	2.6	15.3	8.4	190		
	성별	남자	4.5	45.5	9.1	13.6	13.6	13.6	22	$\chi^2=15.842$ p=.007
		여자	4.2	68.5	3.0	1.2	15.5	7.7	168	
코팩	전 체	1.9	58.2	1.6	1.6	17.4	19.3	316		
	성별	남자	2.2	45.7	4.3	2.2	27.2	18.5	92	$\chi^2=17.299$ p=.004
		여자	1.8	63.4	0.4	1.3	13.4	19.6	224	
	교급	중	0.7	48.3	3.4	3.4	17.0	27.2	147	$\chi^2=27.227$ p=.000
		고	3.0	66.9	-	-	17.8	12.4	169	
피부 마사지	전 체	1.7	71.6	0.9	1.7	15.2	8.9	348		
	성별	남자	2.2	59.6	2.2	5.6	22.5	7.9	89	$\chi^2=20.038$ p=.001
		여자	1.5	75.7	0.4	0.4	12.7	9.3	259	
무스 등	전 체	6.2	31.9	7.1	1.0	34.8	19.0	420		
	성별	남자	8.1	26.5	8.5	0.9	42.7	13.3	211	$\chi^2=22.382$ p=.000
		여자	4.3	37.3	5.7	1.0	26.8	24.9	209	
파마	전 체	8.6	46.6	10.9	1.1	15.4	17.3	266		
	성별	남자	1.8	21.1	12.3	3.5	21.1	40.4	57	$\chi^2=41.728$ p=.000
		여자	10.5	53.6	10.5	0.5	13.9	11.0	209	
염색	전 체	10.6	30.3	22.0	1.5	30.5	5.0	518		
	성별	남자	10.8	18.4	22.0	1.8	40.4	6.7	223	$\chi^2=33.278$ p=.000
		여자	10.5	39.3	22.0	1.4	23.1	3.7	295	
성형 수술	전 체	2.6	76.2	1.6	3.6	4.7	11.4	193		
	성별	남자	3.9	49.0	3.9	7.8	11.8	23.5	51	$\chi^2=29.521$ p=.000
		여자	2.1	85.9	0.7	2.1	2.1	7.0	142	
	교급	중	1.2	74.4	1.2	7.0	1.2	15.1	86	$\chi^2=12.192$ p=.032
		고	3.7	77.6	1.9	0.9	7.5	8.4	107	
치아 교정	전 체	0.7	66.1	2.6	1.5	7.3	21.9	274		
	성별	남자	2.0	53.9	5.9	2.0	10.8	25.5	102	$\chi^2=17.979$ p=.003
		여자	-	73.3	0.6	1.2	5.2	19.8	172	
시력수술	전 체	1.3	41.2	-	3.1	15.8	38.6	228		
피어싱	전 체	11.5	24.7	25.3	4.4	23.1	-	42		
문신	전 체	5.8	13.2	23.1	6.6	28.1	23.1	121		
	성별	남자	4.8	16.1	17.7	8.1	38.7	14.5	62	$\chi^2=12.198$ p=.032
		여자	6.8	10.2	28.8	5.1	16.9	32.2	59	

4) 의복행동

(1) 일반 의복행동

다음으로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행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23.6%)와 친구들과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23.2%)는 것이다.

<표 IV-58> 의복행동 영향요인

(단위: %)

집 단	유행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	친구들과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	비싸 보여야 한다	이성친구에 게 멋지게 보여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야 한다	기타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3.6	23.2	2.4	13.4	7.9	29.2	1142	
성 별	남자	18.6	23.5	2.0	15.8	7.2	544	$\chi^2=20.816$ p=.001
	여자	28.3	22.9	2.7	11.7	8.5	598	
계 열	인문	20.3	22.3	2.7	11.9	8.2	403	$\chi^2=14.952$ p=.011
	실업	23.2	19.9	0.6	21.5	9.4	181	

<표 IV-59> 최근 유행복장

(단위: %)

집 단	세미 힙합	리얼 힙합	빈티 지룩	케쥴 얼	명품	정장	기타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7.3	5.8	8.6	33.1	3.8	10.4	10.9	522	
성 별	남자	24.3	9.6	5.2	31.4	4.2	9.0	579	$\chi^2=70.846$ p=.000
	여자	30.1	2.4	11.7	34.5	3.5	11.7	1101	
교 급	중	31.0	8.3	9.8	25.1	1.7	11.3	533	$\chi^2=53.538$ p=.000
	고	23.9	3.5	7.6	40.5	5.8	9.0	568	
계 열	인문	30.4	3.3	5.9	37.1	7.4	5.6	391	$\chi^2=58.167$ p=.000
	실업	10.1	3.8	11.2	47.8	2.2	18.5	178	
생 활 수 준	상	30.7	9.2	5.9	25.5	7.8	9.8	153	$\chi^2=30.830$ p=.002
	중	27.0	5.7	9.0	34.8	3.3	9.5	856	
	하	23.3	1.2	10.5	29.1	2.3	20.9	86	
지 역	강북	17.7	3.8	10.4	39.0	3.2	13.7	633	$\chi^2=146.158$ p=.000
	강남	46.9	11.7	2.4	21.0	5.2	7.6	290	
	강동	29.8	3.4	12.4	31.5	3.9	11.8	178	

이를 통해 개성보다는 유행이나 또래와의 동일시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복장은 케쥬얼(33.1%), 세미힙합(27.3%), 정장(10.4%)의 순이고, 지역별로는 강남의 경우 세미힙합(46.9%)이 가장 유행이지만 강북(39.0%)이나 강동(31.5%)은 케쥬얼이 가장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의 유행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교복관련 의복행동

가. 교복착용에 대한 의견

교복착용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지금보다 규제를 줄인다면 찬성한다는 입장(52.2%)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를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청소년(27.3%)은 적었다.

<표IV-60> 교복착용 찬반

(단위: %)

집 단	찬성	지금보다 규제 줄이면 찬성	반대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7.3	52.2	20.5	1184	
성 별	남자	27.4	42.9	576	$\chi^2=64.548$ p=.000
	여자	27.1	61.0	608	
교 급	중	18.4	53.5	591	$\chi^2=67.044$ p=.000
	고	36.1	50.9	593	

<표IV-61> 교복불만 여부

(단위: %)

집 단	없다	있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36.0	64.0	1146	
성 별	남자	40.4	564	$\chi^2=9.656$ p=.002
	여자	31.6	582	
교 급	중	27.8	576	$\chi^2=33.598$ p=.000
	고	44.2	570	

<표 IV-62> 교복불만 이유

(단위: %)

집 단	존스러운 디자인	칙칙한 색깔	나쁜 천	계절변화 수용곤란	가격고가	종류제한	개성없음	사례수	통계치
전 체	32.9	12.7	6.8	9.5	14.9	8.4	14.7	777	
성 별	남자	31.2	13.0	5.9	11.3	22.7	1.4	14.4	353
	여자	34.4	12.5	7.5	8.0	8.5	14.2	14.9	424
교 급	중	38.3	12.6	6.0	8.3	11.2	8.9	14.7	436
	고	26.1	12.9	7.9	11.1	19.6	7.6	14.7	341
계 열	인문	30.2	14.0	8.1	9.4	20.9	6.0	11.5	235
	실업	17.0	10.4	7.5	15.1	17.0	11.3	21.7	106
생활 수준	상	44.3	8.50	8.5	8.5	12.3	4.7	13.2	106
	중	32.6	14.0	6.2	9.0	13.6	9.3	15.3	601
	하	18.5	6.2	10.8	15.4	30.8	6.2	12.3	65

불만이유로는 디자인이 존스럽다(32.9%)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격이 비싸다(14.9%), 개성이 없다(14.7%), 색깔이 칙칙하다(12.7%)의 순이다.

<표 IV-63> 교복수선 경험

(단위: %)

집 단	없다	있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52.0	48.0	1148	
성 별	남자	64.8	35.2	557
	여자	39.9	60.1	591
교 급	중	64.7	35.3	575
	고	39.3	60.7	573
지 역	강북	47.9	52.1	662
	강남	60.9	39.1	294
	강동	52.6	47.4	192

나. 교복수선 경험

교복을 예쁘게 하기 위해 수선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48.0%)이 거

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고, 특히 여자(60.1%)와 고등학생(60.7%)의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64> 여학생 교복수선 내용

(단위: %)

집 단		허리	엉덩이	어깨	A라인 치마형	치마 길이	윗도리 길이
전 체		27.7	17.6	28.4	19.3	25.1	28.4
교 급	중	21.4	14.6	17.3	13.1	21.9	20.9
	고	33.9	20.6	39.5	25.7	28.3	35.9
	유의도	.000	.049	.000	.000	-	.000
계 열	인문	28.6	17.1	32.5	20.4	33.5	25.7
	실업	45.0	28.0	54.1	36.7	17.3	57.1
	유의도	.004	.027	.000	.002	.003	.000
지 역	강북	36.5	25.8	38.6	28.6	25.3	37.8
	강남	11.2	0.7	5.3	3.3	22.7	5.3
	강동	20.6	13.7	26.0	10.0	28.0	29.0
	유의도	.000	.000	.000	.000	-	.000
성 적	상	29.6	16.7	26.7	16.2	22.9	25.7
	중	23.1	14.9	25.3	19.5	25.8	27.7
	하	40.3	27.1	39.8	23.4	25.0	33.6
	유의도	.001	.007	.006	-	-	-

여학생의 수선내용은 어깨에 꼭 맞게(28.4%) 고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허리에 꼭 맞게(27.7%), 치마길이를 짧게(25.1%)의 순이다. 치마의 모양을 A라인으로 고친 경우는 특히 지역간에 강북(28.6%)이 가장 많고 강동(10.0%), 강남(3.3%)의 순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의 수선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강남은 세미힙합으로 고치는 경우(42.6%)가 많고 강북은 꼭 끼는 바지로 고치는 경우(21.7%)가 많아 교복에도 유행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복을 수선해서 입는 이유 역시 다른 미용행동과 마찬가지로 예뻐지기 때문(50.2%)이라는 것이 가장 많고, 다음은 그냥 좋아서(20.9%) 고친다고 한다.

<표 IV-65> 남학생 교복수선 내용

(단위: %)

집 단		세미힙합 바지	꼭 끼는 바지
전 체		20.1	14.1
교 급	중	14.1	6.9
	고	26.0	21.3
	유의도	.000	.000
계 열	인문	34.0	12.3
	실업	8.3	39.6
	유의도	.000	.000
지 역	강북	9.8	21.7
	강남	42.6	2.6
	강동	19.8	6.3
	유의도	.000	.000

<표 IV-66> 교복수선 이유

(단위: %)

집 단		유행이니까	예뻐지니까	튀니까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좋아서	기타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2.6	50.2	2.7	2.2	20.9	11.5	636	
성 별	남자	22.7	27.1	5.6	3.2	29.9	11.6	251	$\chi^2=108.681$ p=.000
	여자	6.0	65.2	0.8	1.6	15.1	11.4	385	
교 급	중	15.4	45.5	5.3	1.2	17.1	15.4	246	$\chi^2=24.664$ p=.000
	고	10.8	53.1	1.0	2.8	23.3	9.0	390	
계 열	인문	7.5	53.3	0.4	2.0	26.3	10.6	255	$\chi^2=16.347$ p=.012
	실업	17.0	52.6	2.2	4.4	17.8	5.9	135	
지 역	강북	14.4	51.4	2.5	3.0	19.6	9.2	403	$\chi^2=21.791$ p=.016
	강남	14.7	41.9	3.9	0.8	23.3	15.5	129	
	강동	2.9	55.8	1.9	1.0	23.1	15.4	104	

5) 소결

이 절에서는 외모행동에 대한 관심도 등 외모행동 일반에 대한 사항과 몸매관리를 위한 다이어트 경험 등 섭식행동 실태, 여러 가지 미용을 위한 행동 경험과 욕구, 일반의복과 교복에 대한 의복행동 실태와 의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자신을 꾸미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없는 청소년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집단별로는 남자보다 여자, 인문계보다 실업계, 생활수준이 중간인 집단보다는 '하'이거나 '상'인 집단, 지역적으로는 강동보다는 강남이나 강북, 성적별로는 중간 집단보다는 '상' 또는 '하'인 경우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를 꾸미기 위해 정보를 얻는 곳은 친구나 선후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TV, 패션잡지, 길거리의 순이다. 한편 깔끔하고 세련된 친구와 얼굴이 예쁜 친구가 친구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다고 했고, 자신의 외모 때문에 친구사귀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청소년은 12.6%였다. 친구사귀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얼굴이 못생겨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똥뚱해서다.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한달 평균 지출하는 비용을 알아본 바로는 옷 구입비용은 67,256원이고, 모자·머리핀·가방·신발 등의 신체 부착물 구입비용은 29,353원, 화장품 구입비용은 26,366원, 미장원 등의 머리하기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16,257원이다. 이들 비용과 용돈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높은 것은 옷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머리하기이다. 외모꾸미기 비용끼리는 화장품비용과 머리하기 비용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몸매관리 경험의 지속성은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1.34이다. 집단간에는 여자보다 남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아버지학력이 높은 집단, 생활수준이 '중'보다는 '하'인 집단의 경험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유형별로는 운동을 통해 몸매관리를 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몸매관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헬스 이외의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은 헬스클럽이나 헬스기구 사용, 간식이나 단음식 안먹기, 버스타갈 수 있는 곳 걷기, 저녁끓기의 순이다. 반면에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는 아침굼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담배피기, 이노제나 설사제 사용, 다이어트약 먹기, 단식원이나 비만교실 참가의 순이다.

다음으로 미용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12가지를 제시하고 이중 해본 적이 있는 것을 고르도록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경험빈도는 2.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스·스프레이·젤 등을 사용한 머리치장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염색, 코팩, 파마 등의 순이다. 집단별로는 문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용행동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의 경험율이 높았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험율이 높았다. 미용행동에 대한 욕구는 염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력교정수술, 치아교정 등의 순이다. 이러한 미용행동 경험을 하거나 욕구를 갖는 이유로는 예뻐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다음은 그냥 좋아서 한다는 것이다. 다만 피어싱과 문신의 경우는 튀기 때문에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행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와 “친구들과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성보다는 유행이나 또래와의 동일시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복장은 지역별로 강남의 경우 세미힙합이 가장 유행이고, 강북이나 강동은 캐주얼이 가장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의 유행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복착용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지금보다 규제를 줄인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를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청소년은 적었다. 불만이유로는 디자인이 촌스럽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격이 비싸다, 개성이 없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순이다. 따라서 교복을 예쁘게 하기 위해 수선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고, 특히 여자와 고등학생의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수선내용은 어깨에 꼭 맞게 고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허리에 꼭 맞게, 치마길이를 짧게의 순이다. 치마의 모양을 A라인으로 고친 경우는 특히 지역간에 강북이 가장 많고 강동, 강남의 순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의 수선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강남은 세미힙합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고 강북은 꼭 끼는 바지로 고치는 경우가 많아 교복에도 유행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외모관련 교칙에 대한 의견

1) 학교교칙에 대한 평가

먼저 보기로 제시한 외모관련 학교교칙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검정색이나 갈색의 학생화와 굽이 없는 운동화만 허용한다(65.3%)”이고, 다음은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cm를 넘어서는 안된다(64.4%)”, “학생용 책가방과 책만 허용하며 원색은 금한다(63.8%)”,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63.0%)” 등의 순이다.

<표 IV-67> 개정요망 머리관련 학교교칙

(단위: %)

구 분	전체	성 별			교 급			계 열		
		남자	여자	p	중	고	p	인문	실업	p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63.0	42.1	82.8	.000	62.3	63.7	-	71.7	46.9	.000
머리를 묶을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53.9	39.0	68.0	.000	55.9	51.8	-	56.9	41.3	.000
머리핀은 검정색 일자형 편만 쓸 수 있다	56.5	35.4	76.5	.000	56.3	56.8	-	61.5	46.9	.001
염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36.6	35.1	38.0	-	40.1	33.2	.013	36.8	25.5	.006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5.5	50.3	40.9	.001	43.4	47.5	-	55.7	30.6	.000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cm를 넘어서는 안된다.	64.4	71.0	58.1	.000	62.1	66.7	-	75.8	47.4	.000

<표 IV-68> 개정요망 용모관련 학교교칙

(단위: %)

구 분	전체	성 별			교 급			계 열		
		남자	여자	p	중	고	p	인문	실업	p
귀를 뚫어서는 안된다	46.8	28.3	64.4	.000	45.9	47.7	-	51.3	39.8	.008
매니큐어, 화장, 반지, 팔찌, 귀걸이, 장식용목걸이는 안된다	37.4	29.5	45.0	.000	39.1	35.8	-	38.5	30.1	.043
고의적인 문신이나 흉터는 금한다	13.0	14.5	11.7	-	11.7	14.4	-	16.2	10.7	-

<표 IV-69> 개정요망 가방·신발관련 학교교칙

(단위: %)

구 분	전체	성 별			교 급			계 열		
		남자	여자	p	중	고	p	인문	실업	p
학생용 책가방과 책반 허용하며 원색은 금한다	63.8	55.0	72.2	.000	61.1	66.5	.029	73.8	50.5	.000
검정색이나 갈색의 학생화와 굽이 없는 운동화만 허용한다	65.3	55.4	74.8	.000	63.1	67.5	-	72.9	55.6	.000

<표 IV-70> 개정요망 복장관련 학교교칙

(단위: %)

구 분	전체	성 별			교 급			계 열		
		남자	여자	p	중	고	p	인문	실업	p
지정된 교복 외의 착용과 휴대를 금한다	42.8	39.7	45.8	.032	45.4	40.3	-	44.6	31.1	.002
치마를 접어 올려 짧게 입는 것을 금한다	30.9	25.2	36.2	.000	33.6	28.2	.045	34.1	15.8	.000
동절기엔 검은색 스타킹을 하절기엔 흰색 양말을 신는다	46.7	34.2	58.6	.000	43.7	49.7	.039	58.6	30.6	.000
교복의 형태를 규정을 어겨 변형시켜서는 안된다	41.1	34.4	47.4	.000	37.4	44.7	.010	47.0	39.8	-

이 외에도 머리핀(56.5%)이나 여학생의 머리묶기(53.9%)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무스·스프레이·젤 사용(45.5%)과 귀뚫기(46.8%)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이 적지 않았다. 다만 문신(13.0%)에 대

해서는 청소년들도 대부분 제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모제한과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

(1) 외모제한에 대한 의견

학교교칙을 통해 청소년의 외모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청소년의 의식을 알아보았는데,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11.5%)고 보는 청소년은 적었으나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53.2%)고 보는 청소년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청소년은 인문계(45.3%)가 실업계(19.8%)보다 현저히 많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업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이 외모에 대한 제한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71> 외모제한과 전인적 발달

(단위: %)

집 단	도움 된다	부분적 도움	도움 안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1.5	53.2	35.3	1150	
계 인문	8.7	46.0	45.3	404	$\chi^2=36.050$ $p=.000$
열 실업	16.9	63.3	19.8	177	

<표 IV-72> 외모제한과 탈선방지

(단위: %)

집 단	도움 된다	부분적 도움	도움 안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7.1	48.8	44.1	1020	
계 인문	5.2	44.4	50.4	363	$\chi^2=11.605$ $p=.003$
열 실업	9.6	55.4	35.0	157	

그러나 외모제한이 청소년의 탈선방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찬성율이 떨어져서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7.1%)고 보는 청소년은 매우 적었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48.8%)는 청소년과 도움이 안된다(44.1%)는 청소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인식도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펼치고 있는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78.8%)가 알고 있어 두발제한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청소년은 극소수(2.3%)이고 대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3>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인식여부

(단위: %)

집 단	모른다	안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1.2	78.8	1153	
성 남자	25.3	74.7	565	$\chi^2=10.918p=.001$
별 여자	17.3	82.7	588	

<표 IV-74>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찬반

(단위: %)

집 단	찬성	부분적 찬성	반대	사례수	통계치
전 체	71.0	26.7	2.3	954	
교 중	77.4	21.4	1.3	473	$\chi^2=19.964p=.000$
급 고	64.7	32.0	3.3	481	
계 인문	69.9	29.2	0.9	339	$\chi^2=27.839p=.000$
열 실업	52.4	38.5	9.1	143	

3) 학교교칙 개선방안

외모관련 학교교칙에 대해서는 13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하는 편”, “그저 그렇다”,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의 5점 척도로 의견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응답경향은 <표IV-75>와 같다.

<표IV-75> 학교교칙 개선방안의 일반적 경향

(단위: %)

개선방안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하는 편	그저 그렇다	동의 하는 편	매우 동의	사례수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로만 제한한다	60.5	15.9	13.4	5.1	5.0	1149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을 때는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9.1	5.2	18.9	23.2	43.7	1143
머리핀이나 곱창고무줄, 머리띠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10.8	6.7	20.1	20.2	42.2	1141
갈색 염색이나 코팅은 허용한다	8.2	9.3	22.6	23.8	36.1	1156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허용한다	8.7	9.0	27.9	21.5	33.0	1155
남학생의 머리는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고 앞머리는 5cm까지 허용한다	20.5	11.8	26.3	21.1	20.4	1154
귀를 뚫고 하는 눈에 띄지 않는 귀걸이는 허용한다	12.6	11.5	22.2	23.2	30.5	1161
연한 색의 텀그로스를 허용한다	7.1	8.5	29.7	23.5	31.3	1145
단순한 형태의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를 허용한다	7.3	8.7	23.2	25.7	35.1	1158
가방을 제한하지 않는다	4.3	3.5	14.4	22.3	55.4	1159
스타킹과 양말을 제한하지 않는다	4.2	4.4	19.1	20.5	51.8	1148
교복의 형태를 다양화해 선택하게 한다	7.8	8.2	27.8	18.6	37.6	1155
굽높이 5cm이하인 신발은 제한하지 않는다	10.5	9.2	31.3	19.7	29.3	1157

또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외모관련 학교교칙 개선안에 대해서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모두 3점 이상으로 나와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이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율이 낮은 1개 문항은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로만 제한한다”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선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순서대로 기술하면 “가방을 제한하지 않는다(4.21)”, “스타킹과 양말을 제한하지 않는다(4.11)”,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을 때는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3.87)” 등의 순이다.

<표Ⅳ-76> 학교교칙 개선방안의 동의순위

순위	전 체	평균	남자 순위	여자 순위
	개 선 방 안			
1	가방을 제한하지 않는다	4.21	1	1
2	스타킹과 양말을 제한하지 않는다	4.11	3	2
3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을 때는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87	7	3
4	머리핀이나 곱창고무줄, 머리띠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3.77	8	4
5	단순한 형태의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를 허용한다	3.73	6	6
6	갈색 염색이나 코팅은 허용한다	3.70	5	8
7	교복의 형태를 다양화해 선택하게 한다	3.70	5	9
8	연한 색의 립그로스를 허용한다	3.63	9	5
9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허용한다	3.61	2	11
10	굽높이 5cm이하인 신발은 제한하지 않는다	3.48	10	10
11	귀를 뚫고 하는 눈에 띄지 않는 귀걸이는 허용한다	3.47	11	7
12	남학생의 머리는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고 앞머리는 5cm까지 허용한다	3.09	12	12
13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로만 제한한다	1.78	13	13

4) 소결

이 절에서는 청소년의 외모를 제한하는 학교교칙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먼저 외모관련 학교교칙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검정색이나 갈색의 학생화와 굵이 없는 운동화만 허용한다”이고, 다음은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cm를 넘어서는 안된다”, “학생용 책가방과 썩만 허용하며 원색은 금한다”,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등의 순이다. 이 외에도 머리핀이나 여학생의 머리 묶기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무스·스프레이·젤 사용과 귀뚫기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이 적지 않았다. 다만 문신에 대해서는 청소년들도 대부분 제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교칙을 통해 청소년의 외모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청소년은 적었으나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청소년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청소년은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현저히 많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업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이 외모에 대한 제한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외모제한이 청소년의 탈선방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떨어져서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청소년은 매우 적었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청소년과 도움이 안된다는 청소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펼치고 있는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알고 있어 이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청소년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관련 학교교칙 개선안에 대해서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모두 3점 이상으로 나와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이

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칙 개선안에 대해 동의율이 높은 순서대로 기술하면 “가방을 제한하지 않는다”, “스타킹과 양말을 제한하지 않는다”,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을 때는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등의 순이다.

4. 관련요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시기에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신분”에 맞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했다. 어른들의 눈에는 짧게 자른 머리에 교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이 청소년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청소년들은 모두 똑같은 머리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성, 특히 신체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타인의 평가를 해야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거나와 또 있다고 해도 그다지 민감해 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장을 한다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파마를 한다거나 패션에 신경쓰는 일은 아주 극소수의 ‘잘 나가는’ 아이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었다.

이같은 생각은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찾아내며 밎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고쳐서라도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또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용모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몇 년사이에 몰아친 각종 다이어트 열풍은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자신의 몸을 보다 길고(다리), 보다 크고(키), 보다 작고(얼굴), 심지어 보다 풍만하게(가슴)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은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자신의 부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신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통해 몸매를 가꾸면서 동시에 화장이나 염색, 피

며, 의상 등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감추는 용모 꾸미기에도 관심을 갖는다. 예전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로션정도를 바르는 것이 고작이었던 데 반해, 지금의 여학생들은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바르고 학교에 등교한다고 한다. 화장품 업체들은 이들 10대 여학생들을 위한 화장품을 상품화하여 여학생들의 외모 꾸미기를 한층 더 북돋우고 있다.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이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서 10대 모델을 광고에 등장시켜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소비자로 확보하려고 애쓰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그 광고에 나온 모델과 동일시하거나 모방의 대상으로 삼도록 계속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평가, 그리고 다이어트(주로 살빼기)와 용모꾸미기는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신체만족도와 다이어트, 용모꾸미기가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측정도구

(1)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는 두가지 변수(총신체만족도와 신체만족유형)로 측정되었다. 먼저 총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만족정도(5점척도 :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불만은 2점, 매우 불만은 1점을 부여)를 묻는 질문문항 27개의 총점을 합해서 만들었다. 또 하나 신체만족유형은 만족점수에 따라 4개의 유형(최소값 27점, 최대값 135점)으로 나누어 ①불만형(27-53점), ②평균형(54점-70점), ③만족형(71점-107점), ④자신만만형(108점- 135점 사이)으로 분류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와 Guttman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윤옥경, 1987: 43-46, 재인용). 이 척도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 의해 이미 검증되어 있는 도구이다. 자아존중감도 두가지 형태의 변수로 재구성되었는데, 하나는 5점 척도로 구성된 10개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자아존중감이며, 나머지 하나는 총자아존중감 점수를 상중하로 나누어 만든 변수로써 ①자아존중감이 높은 형(40점 이상), ②보통형(26점-39점), ③자아존중감이 낮은 형(10점-25점)으로 분류하였다.

(3) 교칙상 제한되는 미용행동 경험과 교칙완화 의식

학교교칙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미용행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항목마다 1점씩 부여되어 있는 7개 문항을 합산하였다. 또한 학생의 외모를 제한하는 교칙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역시 항목마다 1점씩 부여되어 있는 15개 문항을 합산하였다.

(4) 비행성향 및 비행유형

비행성향은 비행경험 여부를 묻는 12개 문항의 총점(최소값 12점, 최대값 48점)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비행유형은 이를 높은 비행성향(36-48점), 보통(24점-35점), 낮은 비행성향(12점-23점)의 3개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 신체만족도와 외모에 관한 의식

신체에 대한 만족정도는 용모관과 상당한 정도의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신체만족도와 용모관과의 관련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신체 만족도와 용모관의 관계는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표본에 대한 결과와 함께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신체만족도와 용모로 인한 교제경험 곤란여부

만족도와 외모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과의 관련을 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의 경우 모두 카이제곱값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표본값이 전체 모집단 값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감마수치는 서열척도를 가진 변수간의 관련정도를 측정하는 통계치인데,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1이다. 두 변수사이에 관련이 전혀 없는 경우 0의 값을 갖게 된다. 위의 표에서는 감마값이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변수사이에 역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체만족 정도가 높아질수록 외모 때문에 곤란을 겪은 경험은 없다고 해석된다.

<표IV-77> 신체만족도와 외모로 인한 어려움 경험여부

(단위: 명)

전체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없다	8	99	718	69	894
있다	9	41	68	7	125

χ^2 : 74.02(df=3), $p < .0001$, gamma: - .541

남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없다	2	20	354	49	425
있다	4	20	43	6	73

χ^2 : 58.18(df=3), $p < .0001$, gamma: - .571

여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없다	6	79	364	20	469
있다	5	21	25	1	52

χ^2 : 35.03(df=3), $p < .0001$, gamma: - .602

<표 IV-78> 신체만족도와 성형수술 허용도

(단위: 명)

전체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매우긍정	6	22	70	21	119
조금긍정	7	41	202	14	264
보통	3	48	290	23	364
조금 부정	-	24	125	2	151
매우부정	1	10	103	13	127
전체	17	145	790	73	1025

 χ^2 : 55.73(df=12), $p < .0001$, gamma: .07

남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매우긍정	3	5	23	12	43
조금긍정	1	10	73	9	93
보통	-	18	147	16	181
조금 부정	-	4	68	2	74
매우부정	1	3	73	11	88
전체	5	40	384	50	479

 χ^2 : 45.15(df=12), $p < .0001$, gamma: .04

여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매우긍정	3	17	47	9	76
조금긍정	6	31	129	5	171
보통	3	30	143	7	183
조금부정	-	20	57	-	77
매우부정	-	7	30	2	39
전체	12	105	406	23	546

 χ^2 : 24.90(df=12), $p < .05$, gamma: -.01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이며, 특히 감마값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크다는 것을 볼 때, 여학생에게 있어 이러한 관련이 더 강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신체만족도와 성형수술 허용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카이제곱값은 표본결과를 전체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체만족도와 성형수술에 대한 의견사이에는 그다지 의미있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감마값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큰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지만 흥미로운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감마값의 방향이 정반대인 점이다. 남학생의 경우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여학생의 경우는 그 반대로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해 허용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학생의 경우, 주위에서 자신의 신체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부러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으며 그럴수록 수술에 대해 처음에 가질 수 있는 선입견들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3) 신체만족도와 교복착용에 대한 의견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자신의 신체부위 및 몸매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으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개별학생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모양의 교복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표 IV-79> 신체만족도와 교복착용

(단위: 명)

전체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찬성	6	44	224	23	297
조건부찬성	9	72	437	25	543
반대	3	27	146	30	206

 χ^2 : 22.51(df=6), $p < .005$, gamma: .10

남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찬성	-	14	119	15	148
조건부찬성	3	11	186	16	216
반대	3	17	97	25	142

 χ^2 : 19.74(df=6), $p < .005$, gamma: .04

여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찬성	6	30	105	8	149
조건부찬성	6	61	251	9	327
반대	-	10	49	5	64

 χ^2 : 9.01(df=6), $p > .05$, gamma: .01

신체만족도와 교복착용에 대한 의견사이의 관련성을 측정한 결과가 표에 나와 있다. 먼저 신체만족도와 교복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만 아주 약간의 관계가 있을 뿐 여학생의 경우는 관계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신체에 대한 자신이 있을 경우, 교복착용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개성을 도외시하는 교복의 착용은 신체의 약점을 가리고 싶어하는 남학생보다는 신체의 강점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남학생들에게 더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신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교복착용에 반대할 것이다)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4) 신체만족도와 두발자유화에 대한 인식

신체만족도와 두발자유화에 대한 의견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청소년들의 두발제한반대운동에 대한 찬성여부를 물어 보았다.

<표IV-80> 신체만족도와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체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찬성	14	77	457	47	595
부분적찬성	2	38	177	10	227
반대	-	4	13	3	20

 χ^2 : 9.44(df=6), $p > .05$, gamma: -.10

남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찬성	5	21	212	34	272
부분적찬성	1	8	82	9	100
반대	-	4	9	-	13

 χ^2 : 10.89(df=6), $p > .05$, gamma: -.18

여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찬성	9	56	245	13	323
부분적찬성	1	30	95	1	127
반대	-	-	4	3	7

 χ^2 : 37.24(df=6), $p < .001$, gamma: -.05

신체만족도와 두발자유화 의견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학생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카이자승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표본의 통계가 일반화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해석의 대상이 된다. 여학생의

경우, 감마값이 마이너스 부호라는 말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두 발제한반대운동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복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수록 획일적인 교복착용이나 두발제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학생의 경우는 교복착용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여학생은 두발제한의 반대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성별차이로 지적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교복착용이나 두발제한이 모두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성별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5) 신체만족도와 외모규제의 효과에 대한 견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외모규제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모제한의 교육적 효과와 비행방지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발제한이나 교복착용의무 같은 청소년의 외모규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교육적 효과나 비행방지 효과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만족도가 큰 학생일수록 교육적 효과나 비행방지 효과에 대해 별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외모규제를 반대하는 나름대로의 이유일 것이다.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교육적 효과측면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비행방지효과에 대해서는 신체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외모제한의 비행방지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교육적 효과나 비행방지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표 IV-81> 신체만족도와 외모규제 효과

(단위: 명)

	전 체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①	도움	1	20	75	16	112
	부분적도움	6	79	424	29	538
	도움안됨	10	44	285	28	367
②	도움	1	15	41	6	63
	부분적도움	5	69	340	23	437
	도움안됨	9	43	323	29	404

① 교육적 효과 χ^2 : 18.35(df=6), $p < .01$, gamma: .01② 비행방지 효과 χ^2 : 13.81(df=6), $p < .05$, gamma: .15

	남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①	도움		7	42	12	61
	부분적도움	2	23	210	20	255
	도움안됨	3	11	135	19	168
②	도움	1	8	22	4	35
	부분적도움		15	153	18	186
	도움안됨	2	10	158	21	191

① 교육적 효과 χ^2 : 10.99(df=6), $p > .05$, gamma: -.01② 비행방지 효과 χ^2 : 16.99(df=6), $p < .01$, gamma: .18

	여자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①	도움	1	13	33	4	51
	부분적도움	4	56	214	9	283
	도움안됨	7	33	150	9	199
②	도움		7	19	2	28
	부분적도움	5	54	187	5	251
	도움안됨	7	33	165	8	213

① 교육적 효과 χ^2 : 7.26(df=6), $p > .05$, gamma: .05② 비행방지 효과 χ^2 : 7.41(df=6), $p > .05$, gamma: .11

3) 신체만족도 · 외모행동과 매체이용의 관계

상식적으로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방송이나 잡지 등 인쇄, 또는 전파 미디어를 이용하는 정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몸매나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 의술적이건, 아니면 정신치료를 통해서건,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만족도와 매체이용 정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IV-82> 신체만족도와 하루 TV 시청시간

(단위: 명)

구 분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전 체	17	146	794	75	1032
안본다	4	6	39	7	56
30분	-	9	68	9	86
1시간	2	24	150	13	189
2시간	2	36	221	20	279
3시간이상	9	71	316	26	422

χ^2 : 23.24(df=12), $p < .05$, gamma: -.13

신체만족 정도와 일일 TV 시청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두 변수사이에 역방향(inverse)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gamma value). 다시 말해 신체만족정도가 높을수록 TV시청시간이 짧아진다는 말이다. 거꾸로 말하면 신체만족 정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시청시간이 길다고 말할 수 있다. 감마값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고 말할 수 있다.

<표 IV-83> 신체만족도와 하루 인터넷 접속시간

(단위: 명)

구 분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전 체	17	146	794	76	1033
안본다	4	15	70	7	96
30분	3	16	87	10	116
1시간	1	27	183	11	222
2시간	5	42	210	15	272
3시간이상	4	46	244	33	327

 χ^2 : 15.71(df=12), $p > .05$, gamma: .05

<표 IV-84> 신체만족도와 한달평균 영화·비디오 관람시간

(단위: 명)

구 분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전 체	17	146	792	76	1031
안본다	4	23	116	14	157
1편	6	52	231	14	303
2편	4	38	210	21	273
3-4편	-	20	142	12	174
5편 이상	3	13	93	15	124

 χ^2 : 16.59(df=12), $p > .05$, gamma: .12

인터넷 이용정도와 영화·비디오 관람은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반면 패션잡지 이용정도는 신체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패션잡지 구독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두 변인사이의 관계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사이에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었다.

<표 IV-85> 신체만족도와 한달평균 패션잡지 구독

(단위: 명)

구 분	신체만족정도				전체
	불만형	평균형	만족형	자신만만형	
전 체	17	146	789	76	1028
안본다	10	60	404	35	509
1편	2	53	206	17	278
2편	1	21	114	11	147
3-4편		9	33	2	44
5편 이상	4	3	32	11	50

χ^2 : 43.32(df=12), $p < .001$, gamma: -.02

한편 몸매관리나 미용행동 등 외모행동과 매체이용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바로는 몸매관리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용행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션잡지 이용의 경우는 몸매관리와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게 나타났고, 특히 미용행동에 있어서는 $r=.305$ 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6> 매체이용과 외모행동의 상관관계

구 분	TV	인터넷	영화·비디오	패션잡지
몸매관리경험	-.073*	.069*	.070*	.147**
미용행동경험	.105**	.126**	.157**	.305**

* $p < .05$ ** $p < .01$

4) 신체만족도 · 자아존중감과 비행성향

앞에서는 교차분석을 통해서 신체만족도와 용모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의견 및 태도 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신체만족도 정도와

비행성향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알아보았다.

신체만족 유형별 비행성향 평균점수를 보면 자신만만형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불만형이며, 평균형과 만족형은 차이가 별로 없다. 물론 평균점수를 가지고 유형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수는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간 평균차이검증, 즉 분산분석을 이용해야 한다.

<표IV-87> 신체만족도에 따른 비행성향 평균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사 례 수
전 체	18.93	6.77	983
불만형	20.88	9.94	16
평균형	18.76	6.09	137
만족형	18.53	6.07	755
자신만만형	22.87	11.25	75

<표IV-88> 신체만족도에 따른 비행성향 분산분석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유의도
집단간	1350.158	3	450.053	10.082	p< .001
집단내	43703.714	979	44.641		
합 계	45053.872	982			

위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신체만족도에 따른 유형별로 비행성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F값이 유의미하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상과 같이 신체만족도 유형이 비행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은 비행성향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또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여겨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통념이 검증되지 않았다.

<표 IV-89> 자아존중감에 따른 비행성향 평균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전 체	18.90	6.86	1081
낮은 자아존중감	19.09	70.3	88
보통	18.73	6.57	785
높은 자아존중감	19.43	7.79	208

<표 IV-90> 자아존중감에 따른 분산분석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유의도
집단간	82.94	2	41.47	.880	p> .05
집단내	50776.272	1078	47.102		
합 계	50859.510	1080			

5) 비행성향을 설명하는 변인들

많은 청소년비행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청소년비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족과 학교는 청소년의 생활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부정적 영향중의 하나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의 세계에 발들여 놓게 하는 방출요인으로서의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이나 학교생활에의 부적응이다.

다른 한편, 자신에 대한 낮은 신체만족도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청소년들을 비행으로 빠지게 하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여겨지는 여러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변인의 영향정도를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모델이 설정되었다. 첫 번째 모델은 가족관계(기능적 결손여부), 생활수준(구조적 결손여부)과 학교부적응 지표로서 학교

성적이 비행성향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전통적 모델이며, 두 번째 모델은 본 연구의 관심주제인 신체만족도와 교칙상 제한되는 미용행동 경험과 이러한 교칙에 대한 의식이 비행성향에 주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이 둘을 합쳐서 종합적인 모델을 구성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91> 비행성향과 관련요인의 상관관계

	비행성향	신체만족	미용행동	교칙완화	가족관계	생활수준	학교성적
비행성향	1.00						
신체만족	.120**	1.00					
미용행동	.166**	-.087**	1.00				
교칙완화	.120**	-.088**	.273**	1.00			
가족관계	.072*	.008	.042	-.021	1.00		
생활수준	-.002	.205**	-.053	-.054	.113**	1.00	
학교성적	.056	.117**	.028	-.094**	.106**	.233**	1.00

* $p < .05$ ** $p < .01$

단순상관관계 수치를 보면 변인들간의 관련성이 그리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인은 미용행동과 교칙완화 의식으로 $r=.27$ 을 보이고 있다. 신체만족도와 교칙상 제한되는 미용행동 경험 및 이러한 교칙에 대한 의식간의 관계는 예상만큼 크지는 않으나 관계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먼저 전통적인 변수들을 가지고 모델을 구성하여 회귀분석한 결과가 Model 1에 나타나 있다. 가족관계는 비행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두분 모두가 친부모인 경우보다 두분 중 한분 또는 두분 다 안계시거나 양부모인 경우에는 비행성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절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생활수준은 비행성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학교성적도 비행성향을 높이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IV-92> 비행성향 관련요인의 회귀분석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가족관계	.08*		.06*
생활수준	-.03		-.01
학교성적	.04		.08*
신체만족		.14***	.16***
미용행동		.15***	.15***
교칙완화		.10**	.11**
R-square	.01	.06	.07

* $p < .05$ ** $p < .01$ *** $p < .001$

흥미롭게도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교칙상 제한되는 미용행동 경험 및 이러한 교칙에 대한 규제완화 의식은 비행성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Model 2). 이 세 변인 중에는 미용행동 경험이 비행성향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가정적, 학교배경을 통제한 후에 이러한 영향력은 감소하거나 사라지는가? Model 3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 분석에서 포함된 모든 변인을 모두 고려해 모델을 구성한 결과, 가족관계, 학교성적, 교칙상 제한되는 미용행동 경험, 이러한 교칙에 대한 규제완화 의식과 신체만족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미용행동 경험이 많을수록 비행성향이 높다는 이 분석결과는 용모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청소년 불량화, 일탈화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관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 소결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 자신의 신체조건에 대한 만족도 또는 평가정도와 외모규제와 관련된 의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 신체만족도와 미용행동 등이 비행성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교차분석과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만족도에 따라 외모로 인한 친구관계의 어려움이 다른지 알아본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외모로 인해 친구들 또는 이성과 어울리는데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외모가 남성의 외모보다 인간관계에서 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청소년들도 이런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흥미롭게 나왔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해 더 부정적인데 반해, 여학생의 경우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착용에 대한 의견과 두발제한반대에 대한 의견을 통해 신체만족도와 용모규제에 대한 의견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교복착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두발제한반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규제반대의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여학생-머리모양, 남학생-교복)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머리를 이용한 개성표현이 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외모규제가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이나 비행방

지의 측면에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만족도의 면에서 보면 신체만족도가 클수록 외모규제가 교육적 효과나 비행방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행동이나 기대에 대한 합리화 기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즉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외모규제가 교육적 효과나 비행방지 효과가 없으므로 그러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들의 인식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실과 정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체만족도와 매체이용도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체만족도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이나 패션잡지 구독은 차이가 있었으나, 인터넷 접속이나 영화·비디오 관람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한편 미용행동 경험과 매체이용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패션잡지 이용과는 관련성이 높았다.

신체만족도와 교칙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미용행동 경험, 외모관련 교칙의 완화에 대한 허용도가 비행성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회귀분석 결과는 세가지 요인 모두 비행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위에서 살펴본 외모규제가 비행방지 효과가 없다는 청소년들의 인식과는 꺾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관련성의 정도나 설명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교칙에 위반한 미용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곧 비행청소년일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V. 교사 ·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신체상에 대한 의견
2. 외모관련 교칙에 대한 의견
3.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의식비교

V. 교사·학부모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신체상에 대한 의견

1) 자녀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녀 신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7개 신체부위를 제시하고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먼저 만족도가 낮은 신체부위는 ‘몸무게(불만 21.3%, 만족 37.4%)’, ‘치아(불만 17.4%, 만족 42.2%)’, ‘키(불만 23.0%, 만족 46.2%)’, ‘태(불만 20.0%, 만족 47.8%)’, ‘허리(불만 16.0%, 만족 48.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신체부위는 ‘얼굴생김 전체(불만 3.9%, 만족 68.3%)’와 ‘외모 전체(불만 2.5%, 만족 62.6%)’로써 자녀의 전체적인 외모에 가장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에 대해 만족하는가 또는 만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므로 이렇게 불만과 만족에 대한 빈도분포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해 순위를 매겨보면 그 추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전체 신체만족도는 97.45(5점 만점 3.61)로 청소년 자신의 만족도인 83.39(5점 만점 3.0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딸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어 아들은 99.93(5점 만점 3.70), 딸은 95.30(5점 만점 3.53)으로 딸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신체에 대한 불만순위를 살펴보면 몸무게에 대한 만족도가 가

장 낮고 그 다음은 치아, 키, 배의 순이다. 자녀의 성별로는 아들의 경우는 치아, 몸무게, 허리, 배, 얼굴피부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고, 딸의 경우는 키, 몸무게, 배, 치아, 엉덩이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V-1> 자녀신체에 대한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단위: %)

신체부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사.레수
얼굴	눈	1.9	4.9	34.5	36.9	21.8	206
	코	2.4	8.7	24.6	39.1	25.1	207
	입	2.0	7.4	26.6	44.3	19.7	203
	치아	5.3	12.1	40.3	30.1	12.1	206
	얼굴크기	1.5	4.9	34.3	38.2	21.1	204
	얼굴형	0.5	3.9	32.0	41.9	21.7	203
	얼굴생김전체	1.0	2.9	27.8	43.9	24.4	205
몸	목	1.5	4.4	35.0	39.4	18.7	203
	어깨	1.9	14.0	32.4	36.7	15.0	207
	가슴	2.0	9.8	39.7	32.8	15.7	204
	팔	1.0	10.7	33.5	38.3	16.5	206
	손	1.9	9.7	28.0	41.5	18.8	207
	허리	3.9	12.1	35.9	34.0	14.1	206
	배	4.9	15.1	32.2	31.2	16.6	205
	엉덩이	3.9	10.7	36.9	31.6	17.0	206
	다리	5.3	10.2	29.6	35.0	19.9	206
	발	3.9	8.9	36.0	36.0	15.3	203
	몸매·체격	5.8	7.7	36.7	32.9	16.9	207
	키	6.7	16.3	30.8	28.4	17.8	208
	몸무게	5.8	15.5	41.3	21.4	16.0	206
신체 외부	얼굴색	1.5	9.2	26.7	41.7	20.9	206
	얼굴피부	2.4	11.7	28.8	39.5	17.6	205
	머리결	2.4	10.1	33.3	31.9	22.2	207
	몸피부	3.4	7.8	33.5	38.8	16.5	206
외모 스타일	헤어스타일	4.9	7.8	42.6	27.0	17.6	204
	옷차림	1.5	6.8	42.2	32.0	17.5	206
	외모전체	1.0	1.5	35.0	40.3	22.3	206

<표 V-2> 자녀신체 불만순위

순위	전 체		아들		딸	
	신체부위	평균	신체부위	평균	신체부위	평균
1	몸무게	3.26	치아	3.33	키	3.15
2	치아	3.32	몸무게	3.33	몸무게	3.20
3	키	3.34	허리	3.46	배	3.29
4	배	3.40	배	3.52	치아	3.30
5	허리	3.42	얼굴피부	3.55	엉덩이	3.33
6	헤어스타일	3.45	키	3.56	헤어스타일	3.34
7	엉덩이	3.47	헤어스타일	3.56	어깨	3.35
8	몸매·체격	3.47	머릿결	3.58	발	3.38
9	어깨	3.49	몸매·체격	3.58	몸매·체격	3.38
10	가슴	3.50	옷차림	3.61	허리	3.39
11	발	3.50	가슴	3.63	다리	3.39
12	다리	3.54	발	3.63	가슴	3.40
13	몸피부	3.57	눈	3.64	팔	3.47
14	옷차림	3.57	엉덩이	3.64	몸피부	3.48
15	얼굴피부	3.58	어깨	3.65	옷차림	3.54
16	팔	3.59	몸피부	3.68	손	3.58
17	머릿결	3.61	다리	3.70	얼굴피부	3.61
18	손	3.66	얼굴색	3.71	얼굴크기	3.65
19	얼굴색	3.71	팔	3.72	머릿결	3.65
20	목	3.71	손	3.74	목	3.67
21	눈	3.72	코	3.76	입	3.68
22	입	3.72	목	3.77	얼굴색	3.72
23	얼굴크기	3.73	입	3.78	코	3.75
24	코	3.76	얼굴크기	3.81	눈	3.79
25	얼굴형	3.80	얼굴형	3.82	얼굴형	3.79
26	외모 전체	3.82	외모 전체	3.85	외모 전체	3.79
27	얼굴생김 전체	3.88	얼굴생김 전체	3.96	얼굴생김 전체	3.81

2) 이상적인 신체상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나 남성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본 바는 먼저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외모전체의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얼굴전체의 조화, 고운 피부, 가지런한 치아, 날씬한 몸매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표 V-3>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조건

(다중응답)

순위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조건	빈도	조건	빈도	조건	빈도
1	외모전체 스타일	184	얼굴전체 조화	99	고운 피부	91
2	얼굴전체 조화	180	외모전체 스타일	96	가지런한 치아	89
3	고운 피부	166	고운 피부	75	외모전체 스타일	88
4	가지런한 치아	157	가지런한 치아	68	얼굴전체 조화	81
5	날씬한 몸매	138	날씬한 몸매	66	날씬한 몸매	72
6	세련된 옷차림	104	세련된 옷차림	54	세련된 옷차림	50
7	가름한 얼굴형	78	가름한 얼굴형	33	가름한 얼굴형	45
8	큰 눈	71	흰 피부	30	큰 키	45
9	큰 키	66	큰 눈	29	큰 눈	42
10	세련된 헤어스타일	65	세련된 헤어스타일	27	세련된 헤어스타일	38
11	흰 피부	61	오뎅한 코	26	흰 피부	31
12	오뎅한 코	57	긴 다리	21	오뎅한 코	31
13	긴 다리	44	큰 키	21	작은 얼굴	25
14	작은 얼굴	36	풍만한 가슴	13	쌍꺼풀	25
15	쌍꺼풀	33	작은 얼굴	11	긴 다리	23
16	풍만한 가슴	21	쌍꺼풀	8	도톰한 입술	9
17	도톰한 입술	12	도톰한 입술	3	풍만한 가슴	8
18	작은 입	7	작은 입	2	작은 입	5
19	풍만한 엉덩이	7	풍만한 엉덩이	2	풍만한 엉덩이	5
20	가는 팔	3	가는 팔	1	가는 팔	2
계		1490		685		805

다음으로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몸매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얼굴전체의 조화, 외모전체의 스타일, 긴 다리, 넓은 가슴과 어깨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표 V-4>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조건

(다중응답)

순위	전 체		교 사		학 부 모	
	조 건	빈도	조 건	빈도	조 건	빈도
1	균형잡힌 몸매	203	균형잡힌 몸매	106	균형잡힌 몸매	97
2	얼굴전체 조화	194	외모전체 스타일	100	얼굴전체 조화	97
3	외모전체 스타일	189	얼굴전체 조화	97	큰 키	91
4	긴 다리	158	큰 키	67	외모전체 스타일	89
5	넓은 가슴어깨	130	넓은 가슴어깨	58	넓은 가슴어깨	72
6	가지런한 치아	108	가지런한 치아	42	가지런한 치아	66
7	세련된 옷차림	88	세련된 옷차림	39	세련된 옷차림	49
8	오뎅한 코	57	근육질	25	오뎅한 코	38
9	짙은 눈썹	57	긴 다리	22	짙은 눈썹	36
10	근육질	56	짙은 눈썹	21	근육질	31
11	긴 다리	51	오뎅한 코	19	세련된 헤어스타일	30
12	세련된 헤어스타일	48	세련된 헤어스타일	18	긴 다리	29
13	큰 눈	31	고운 피부	11	큰 눈	22
14	고운 피부	22	큰 눈	9	가름한 얼굴형	13
15	가름한 얼굴형	18	가름한 얼굴형	5	고운 피부	11
16	쌍꺼풀없는 눈	16	쌍꺼풀없는 눈	5	쌍꺼풀없는 눈	11
17	흰 피부	12	흰 피부	4	흰 피부	8
18	쌍꺼풀	8	작은 엉덩이	1	쌍꺼풀	8
19	작은 엉덩이	3	작은 얼굴	1	작은 엉덩이	2
20	작은 얼굴	1	쌍꺼풀	0	작은 얼굴	0
계		1450		650		800

2. 외모관련 교칙에 대한 의견

1) 학교교칙에 대한 평가

보기로 제시한 외모관련 학교교칙 중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장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머리핀은 검정색 일자형 핀만 꼽을 수 있다(72.9%)”와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cm를 넘어서는 안된다(71.9%)”이고, “머리를 묶을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69.2%)”와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63.0%)”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 V-5> 개정요망 학교교칙

(단위: %)

구 분		전체	신 분		
			교사	학부모	유의도
머 리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68.5	71.6	65.6	-
	머리를 묶을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69.2	70.6	67.9	-
	머리핀은 검정색 일자형 핀만 꼽을 수 있다	72.9	77.7	68.4	.036
	염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20.7	20.8	20.6	-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5.1	47.7	42.6	-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cm를 넘어서는 안된다	71.9	80.2	64.1	.000
용 모	귀를 뚫어서는 안된다	30.0	31.0	29.2	-
	패니큐어, 화장, 반지, 팔찌, 귀걸이, 장식용목걸이는 안된다	16.5	17.3	15.8	-
	고의적인 문신이나 흉터는 금한다	6.7	5.1	8.1	-
가 방 · 시 발	학생용 책가방과 책만 허용하며 원색은 금한다	61.6	61.4	61.7	-
	검정색이나 갈색의 학생화와 굽이 없는 운동화만 허용한다	63.5	67.0	60.3	-
복 장	지정된 교복 외의 착용과 휴대를 금한다	37.2	34.0	40.2	-
	치마를 길어 윗리 짧게 입는 것을 금한다	28.3	26.4	30.1	-
	동절기엔 검은색 스타킹을 하절기엔 흰색 양말을 신는다	65.3	71.1	59.8	.017
	교복의 형태를 규정을 어겨 변형시켜서는 안된다	26.1	25.9	26.3	-

그 외 신발(63.5%)이나 가방(61.6%)에 대한 제한 스타킹과 양말(65.3%)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교복 이외의 착용·휴대(37.2%), 귀뿔기(30.0%), 치마 접어 입기(28.3%), 교복변형(26.1%), 염색(20.7%), 화장(16.5%)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리고 문신(6.7%)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다.

<표 V-6> 위반시 비행관련 학교교칙

(단위: %)

구 분		전체	신 분		
			교사	학부모	유의도
머리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14.8	13.7	15.8	-
	머리를 묶을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12.3	12.7	12.0	-
	머리핀은 점정색 일자형 핀만 쓸 수 있다	10.3	9.6	11.0	-
	염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58.6	58.4	58.9	-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4.7	33.5	35.9	-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용으로 앞머리는 3cm를 넘어서는 안된다.	13.1	10.2	15.8	-
용모	귀를 뚫어서는 안된다	47.8	46.7	48.8	-
	매니큐어, 화장, 반지, 팔찌, 귀걸이, 장식용목걸이는 안된다	65.3	66.0	64.6	-
	고의적인 문신이나 흉터는 금한다	79.1	79.2	78.9	-
가방·신발	학생용 책가방과 적당한 허용하며 원색은 금한다	16.5	16.8	16.3	-
	점정색이나 갈색의 학생화와 굽이 없는 운동화만 허용한다	18.7	18.8	18.7	-
복장	지정된 교복 외의 착용과 휴대를 금한다	41.1	43.1	39.2	-
	치마를 접어 올려 짧게 입는 것을 금한다	46.6	45.7	47.4	-
	동절기엔 점은색 스타킹을 하절기엔 흰색 양말을 신는다	15.5	13.2	17.7	-
	교복의 형태를 규정을 어겨 변형시켜서는 안된다	46.3	46.2	46.4	-

한편 제시한 교칙 중에서 그 규정을 어긴 학생은 다른 비행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 모두 유의한 차이 없이 동일한 견해를 나타냈다. 대체로 앞에서 규정완화에 소극적으로 응답한 문항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비행과 관련있다고 보는 것은 “고의적인 문신이나 흉터(79.1%)”이고 다음은 “화장과 악세사리 착용(65.3%)”, “염색(58.6%)”, “귀뚫기(47.8%)”, “치마 접어 입기(46.6%)”, “교복변형(46.3%)” 등의 순이다.

2) 외모제한과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

(1) 외모제한에 대한 의견

교사와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제한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부분적 도움 포함 87.3%)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탈선방지에 도움이 된다(부분적 도움 포함 89.7%)는 견해는 더욱 많았다.

<표 V-7> 외모제한과 전인적 발달

(단위: %)

집 단	도움 된다	부분적 도움	도움 안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21.3	66.0	12.7	403	
신 교사	21.8	66.5	11.7	197	-
분 학부모	20.9	65.5	13.6	206	

<표 V-8> 외모제한과 탈선방지

(단위: %)

집 단	도움 된다	부분적 도움	도움 안됨	사례수	통계치
전 체	41.8	47.9	10.3	397	
신 교사	41.8	51.0	7.2	194	-
분 학부모	41.9	44.8	13.3	203	

(2)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인식도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펼치고 있는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80.8%)가 알고 있으나 이 운동에 대해 반대(24.0%)하는 입장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분적 찬성을 포함하여 찬성(76.0%)하는 입장이 절대 다수로서 두발제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표 V-9>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인식여부

(단위: %)

집 단	모른다	안다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9.2	80.8	401	
신 교사	11.7	88.3	196	$\chi^2=13.779$ p=.000
분 학부모	26.3	73.7	205	

<표 V-10>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찬반

(단위: %)

집 단	찬성	부분적 찬성	반대	사례수	통계치
전 체	14.2	61.8	24.0	346	
신 교사	7.4	67.6	25.0	176	$\chi^2=13.689$ p=.001
분 학부모	21.2	55.9	22.9	170	

3) 학교교칙 개선방안

외모관련 학교교칙에 대해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13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하는 편”, “그저 그렇다”,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의 5점 척도로 의견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응답경향은 <표 V-11>과 같다.

또한 동의율의 평균을 비교하면, 학교교칙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는 동의율이 낮았지만, 그래도 가방, 머리핀, 스타킹·

양말, 남학생 머리, 여학생 묶은 머리, 신발 등에 관한 교칙 개정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 여학생의 머리길이, 교복, 무스 등, 립그로스, 악세사리, 귀뚫기, 염색 등에 관한 교칙 개정에 대해서는 3점 미만으로 반대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학교교칙 개선방안의 일반적 경향

(단위: %)

개선방안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하는 편	그저 그렇다	동의 하는 편	매우 동의	사례수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어깨에 달지 않는 정도로만 제한한다	19.8	26.4	12.8	30.4	10.6	405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을 때는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13.1	26.0	11.6	33.4	15.8	404
머리핀이나 곱창고무줄, 머리띠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11.7	16.5	14.2	39.2	18.5	401
갈색 염색이나 코팅은 허용한다	40.6	29.2	12.7	11.5	6.0	401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허용한다	31.9	24.9	15.2	21.9	6.0	401
남학생의 머리는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고 앞머리는 5cm까지 허용한다	14.2	16.7	16.7	39.7	12.7	401
귀를 뚫고 하는 눈에 띄지 않는 귀걸이는 허용한다	39.1	29.0	12.9	13.6	5.4	404
연한 색의 립그로스를 허용한다	30.7	23.9	21.7	17.7	6.0	401
단순한 형태의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를 허용한다	33.4	30.7	14.9	17.1	4.0	404
가방을 제한하지 않는다	8.9	17.4	18.1	36.2	19.4	403
스타킹과 양말을 제한하지 않는다	10.9	19.4	17.7	35.3	16.7	402
교복의 형태를 다양화해 선택하게 한다	24.5	26.5	13.6	24.3	11.1	404
굽높이 5cm이하인 신발은 제한하지 않는다	15.2	19.9	16.4	35.3	13.2	402

<표 V-12> 학교교칙 개선방안의 동의순위

순위	전 체		교사 순위	학부모 순위
	개 선 방 안	평균		
1	가방을 제한하지 않는다	3.40	4	1
2	머리핀이나 곱창고무줄, 머리띠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3.36	1	4
3	스타킹과 양말을 제한하지 않는다	3.27	2	2
4	남학생의 머리는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고 앞머리는 5cm까지 허용한다	3.20	3	5
5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을 때는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13	6	3
6	굽높이5cm이하인 신발은 제한하지 않는다	3.11	5	6
7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로만 제한한다	2.86	7	7
8	교복의 형태를 다양화해 선택하게 한다	2.71	8	8
9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허용한다	2.45	9	10
10	연한 색의 립그로스를 허용한다	2.44	10	9
11	단순한 형태의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를 허용한다	2.27	11	11
12	귀를 뚫고 하는 눈에 띄지 않는 귀걸이는 허용한다	2.17	13	12
13	갈색 염색이나 코팅은 허용한다	2.13	12	13

3.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의식비교

1) 신체상에 대한 의식비교

이 절에서는 자녀의 신체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와 이상적인 외모의 남녀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고, 이를 청

소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녀 신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신체 만족도는 청소년 자신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딸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어 아들보다 딸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의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과 일치하고 있다.

자녀의 신체에 대한 불만순위를 살펴보면 몸무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치아, 키, 배의 순이다. 자녀의 성별로는 아들의 경우는 치아, 몸무게, 허리, 배, 얼굴피부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고, 딸의 경우는 키, 몸무게, 배, 치아, 엉덩이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몸무게와 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나 아들의 치아에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나 남성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본 바는 먼저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외모전체의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얼굴전체의 조화, 고운 피부, 가지런한 치아, 날씬한 몸매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몸매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얼굴전체의 조화, 외모전체의 스타일, 긴 다리, 넓은 가슴과 어깨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순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위에 오른 조건들의 경향은 청소년들과도 큰 차이가 없어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생각은 세대간에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외모관련 교칙에 대한 의식비교

이 절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학교교칙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고 이를 청소년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보기로 제시한 외모관련 학교교칙 중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장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머리핀은 검정색 일자형 핀만 꼽을 수 있다”와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cm를 넘어서는 안 된다”이고, “머리를 묶을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와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외 신발이나 가방에 대한 제한, 스타킹과 양말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청소년들과도 일치하는 것이고, 또한 무스·스프레이·젤 사용에 대해서도 청소년과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문신에 대한 제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이 적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교사와 학부모는 지정된 교복 이외의 착용·휴대, 귀뚫기, 치마 접어 입기, 교복변형, 염색, 화장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문신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은 청소년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제시한 교칙 중에서 그 규정을 어긴 학생은 다른 비행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 모두 유의한 차이 없이 동일한 견해를 나타냈다. 대체로 앞에서 규정완화에 소극적으로 응답한 문항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비행과 관련있다고 보는 것은 “고의적인 문신이나 흉터”이고 다음은 “화장과 악세사리 착용”, “염색”, “귀뚫기”, “치마 접어 입기”, “교복변형” 등의 순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이러한 생각이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신이나 화장, 염색, 귀뚫기 등의 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비행경험도 많은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교사나 학부모의 응답에서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이 외모에

신경 쓰고 꾸미는 일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편 교사와 학부모들은 청소년들과는 달리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제한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탈선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는 더욱 많았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펼치고 있는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절대 다수가 알고 있으나 이 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청소년과는 달리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분적 찬성을 포함하여 찬성하는 입장이 절대 다수로써 두발제한에 대해서는 세대간 차이 없이 반대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학교교칙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는 동의율이 낮았지만, 그래도 가방, 머리핀, 스타킹·양말, 남학생 머리, 여학생 묶은 머리, 신발 등에 관한 교칙 개정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 여학생의 머리길이, 교복, 무스 등, 립그로스, 악세사리, 귀뿔기, 염색 등에 관한 교칙 개정에 대해서는 3점 미만으로 반대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VI. 현안문제와 정책제언

1.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과 학교규율 개선
2. 청소년의 신체관 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VI. 현안문제와 정책제언

1.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과 학교규율 개선

1)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의 현황과 추진계획⁵⁾

(1) 청소년 웹 연대 With의 소개

가. 청소년 웹 연대 with란?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청소년 웹진 사이버유스와 한국 최초의 청소년 웹진 채널텐, 청소년 웹 커뮤니티 아이두 세 개의 사이트가 참여하는 자율·자치를 기본으로 한 패밀리 사이트 명이다.

각 사이트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각 사이트 편집장들이 청소년 웹 연대 with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각 사이트의 멤버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with의 운영에 참여, 활동할 수 있다. 공동대표는 편의상의 합의기구이며, 대표와 운영진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팀제로 운영된다.

또한 10월 28일에 있었던 서울 시민의 날 행사 때 <두발제한반대 - 내 친구들을 아름답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오프라인 행사를 청소년 문화 기획 게릴라 P-style(Pray for blessings :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이라는 문화 소모임으로 창단해 진행함으로써 문화비평과 이벤트 기획, 출판기획 등도 준비하고 있다.

나. 첫 번째 프로젝트 - 교실붕괴 / 무너진 교실에서 살아남기

‘교실 붕괴’로 언론과 학계가 시끄러울 때, 아무도 청소년의 목소리에

5) 이 부분은 박준표(사이버유스 편집장)가 집필하였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우연히 세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청소년의 말할 공간'을 만들자는 이야기에 공감했다. 교실붕괴라는 현상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있는 학생 청소년들은 이야기 할 공간이 없었기에 또한 학교에는 아무런 의사소통 수단이 없었기에 -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그 말할 공간을 웹상에서 만들기로 했다.

다. 웹이라는 공간을 택한 이유

우리나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하나는 훈육, 보호, 통제라는 관점에서 청소년을 보는 엄숙주의 공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소비능력을 겨냥하고 있는 상업주의 공간이다. 그 공간 사이를 비집고 우리는 제 3의 공간 웹을 택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기 힘든 청소년들이 자리잡을 공간은 사이버였다. 여기저기 규제만이 있는 real 공간에서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불량청소년들이었으며, 인 천화재사고를 만든 문제의 학생들로 취급당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때는 '이 새끼가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덮어두어야했던 청소년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은 마지막 산소 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웹 상의 공간은 나이와 직업, 혹은 사회적 평가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된다. 자퇴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심지어는 그것이 아버지 뻔 되는 사람이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 주며, 서로의 의견을 진지하게 답변해준다. 나이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자신의 이야길 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웹을 택한 이유이다.

(2)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

가. with 게시판에 올라온 생각들(출처: <http://www.mywith.net>)

두발제한은 학생들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어 획일화시켜 감정을 억압시키고 학생들의 심상을 통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많은 학교에서 이용되어 왔습니

다. 하지만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두발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획일화되고 똑같은 외모와 옷차림새로 자율성을 말살하는 이러한 제도가 아이들에게 반발을 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24시간 학교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지는 불편함들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불평등, 강제로 신체의 일부를 잘려나가는 데 대한 반발, 학생들에 대한 편견,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신체의 자유, 사생활자유를 침해당하고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권리"-천부인권을 말살당한다는 법적인 요소까지 더하자면 이 제도의 부당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중략) 교육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합목적적 제한으로 두발제한을 보는 현 정부의 입장, 하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공공복리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생략)

어른들이 우리의 머리 한올한올 자를때마다 자라는 것은 우리의 분노요 사그라드는 것은 자신감이니... 우리의 얼마남지 않은 인권과 또 우리의 뒤를 이을 후배를 위해 나는 싸우고 아니 싸울 위치가 되지 못하면 뒤에 숨어서라도 자유를 주장하겠다. - 인천 고등학생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 금요일에 두발검사를 하러온 선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두발자유화에 대항하는 이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퇴출 당할만한 석기시대 사고방식을 가진 선생들에겐 먹히지 않을 것 같아 말았습니다. 이번엔 약간 규정이 변해서 앞머리 5cm, 다른곳은 3cm로 좀 늘려줬다면서 뭔가 큰일을 해낸듯 으쓱하는데 학생들 눈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략) 학생들을 억압하여 반항심만 키워 불량학생을 배출하는 학교. 학생이지만 보기 안 좋습니다. - 서정일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를 짧게 끊으면 쌀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이딴 머리, 이딴 머리 가지고 왜 그렇게 선생들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저희 학교도 두발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토론 때마다 언제나 두발 자유화를 외쳤건만 언제나 그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니다. 귀밑 3센치 그 망할 놈의 귀밑 3

센치: 그럴 거면 선생님들도 귀밑 3센치 시키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법 조항 중 신체의 자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우리는 신체의 자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두발자유화를 주십시오! 이것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일본의 잔해이고 또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에게 인권의 자유를 주십시오! - 남선진

나. 서명운동의 시작과 현황

2000년 5월 11일 - 두발제한 반대 서명운동사이트를 오픈했다. 세 곳의 with멤버 사이트의 배너광고 이외의 어떠한 다른 광고도 하지 않았던 No cut사이트는 청소년들의 입과 입을 통해 널리 홍보되었고, with 멤버 사이트 Ch.10이 (주)다음에 실리는 자신들의 배너광고를 포기하고 No cut 배너를 실음으로 해서 네티즌들 사이에 급속도로 No cut운동이 퍼지게 됐다.

가) 민원 제출과 1차 회신

서명인단 1만명이 넘었을 때, 교육부에 서명인단과 건의서를 보내 시행일자 2000년 6월 29일자 문서번호 학교07000-1229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부 장관 명의의 회신을 받았다.

- ① 학생이 제출한 민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되어 교육부에 처리 요청된 바, 그에 대한 회신입니다.
- ② 학생 두발 자율화에 관한 사항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각기 달라 교육부에서 전국수준의 두발 자율화를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③ 따라서 교육부는 각급 학교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참여·의견 수렴·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두발 자율화 여부, 규제 범위, 지도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④ 다만, 두발 지도방법에서 '가위로 자르기', '강제 이발' 등 학생의 인격적

순상행위는 지양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전국생활지도담당장학관(사) 연찬회 및 전국 초·중등교육과장회의 등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나)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 변경

9월 1일, 개학과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시달하려고 했던 공문을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다음은 국민일보 이광호기자의 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방침을 바꿔 중·고생들의 두발자율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기로 했는데도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시교육청은 3일 두발 등 생활지도 관련규정은 학교장 위임사항이라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는 공문은 보내지 않을 것이며, (중략)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여름방학 직후 두발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낼 계획’이라는 지난달 9일 발표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채 한달도 안돼 공문발송 방침을 슬그머니 철회한 셈이다. - 9월 6일, 국민일보

최근 두발제한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정하겠다고던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취소한 채 은폐한 것이 밝혀져 학생과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중략) 서명건수는 이미 7만명이 넘어섰고, 8월에 발표된 전교조 소속교사 6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5%의 교사들이 “두발 및 용의 검사는 학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하는등 두발 제한 제도의 폐지, 재개정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정 공문을 조용히 취소한 것이다. (중략) 특히나 학교 구성원간의 토론에 의해 재개정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학부모들은 “학교장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번복에 어이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국내언론보도, with 게시판

이게 모여. 정말 짜증이야. 들어 오다가 봤는데 교육청이 슬그머니 피해버렸다면? (중략) 교육청까지 우리 학생들을 배신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한거야?

- 9월 6일, with 게시판에서

다) 4만여명의 서명인단과 함께 보낸 건의서와 처리결과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다음과 같은 건의서와 함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첨부해서 청와대에 민원신청을 냈다. 9월 23일 민정번호 07009-13676으로 확인된 교육부 기관처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처리내용 : 현재 두발 규제에 관한 사항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 재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의견수렴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향후대책 : 관련 정책에 반영

라) 10월 4일 교육부 지침 발표

10월 4일, 16개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 각 학교별 토론회를 열어 학교차원에서 두발 규정을 자율결정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일보 신창호기자의 기사이다.

지금까지 학교장에게 맡겨졌던 중·고교생 두발 관련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강제적인 두발 규제가 최소한으로 완화되거나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4일 16개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해 이 달 안에 학교별로 토론회를 열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 차원에서 두발 규정을 자율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중략) 교육부는 또, '학생의 인격을 고려치 않은 두발 규제는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권고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생략) - 10월 4일, 신창호기자

교육부는 중고교 두발자유화 문제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각 교육청과 학교별 토론회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등교길에 현장에서 강제로 머리를 자르는 등 비인격적인 두발 규제는 자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학교장 독단으로 시행돼온 강제적 두발 규제는 최소한 완화되거나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10월 4일, 이주승 기자, MBC 뉴스

마) 청소년 웹 연대 with의 환영 성명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 4일 저녁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의 '토론회 의무화'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제정, 준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중·고교의 몇 개 학생회가 자율적이며 자치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학생회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 토론회는 지금까지 이름으로만 존재한 '학생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학생회의 자율·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론회는 무효임을 각인하여 주십시오. 또 자율적으로 결정한 학교교칙이 구시대적인 유물로 남지않게 정기적인 '교칙과 학생생활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건의하며 죽은 규칙이 아니라 개정되고 다듬어져 필요한 규칙으로 남길 바랍니다.

① 교육부는 학생회의 토론회 진행시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 각 학교당국의 학생회 자율권 침해여부를 감시·감독하여야 합니다.

②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학생회의 자율권 침해와 토론회에서의 부당사태 수집을 계속하여, 토론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③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두발제한 및 신체의 자유와 학생회 자치권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④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회 의견수렴이 꾸준히 계속될 것을 요구합니다.

⑤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학생회의 자치권과 자율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를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전에 KBS뉴스 예고 보았는 데요~(8시)(kbs2) 넘넘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교육부에서 토의하고 있대여(맞나?) 언능 뉴스 봐보세여~기분 조아서 일케 글써여. - with 자유게시판

오늘 뉴스봤다. 전국 학교 머리 길르랜다. 두발 자유랜다. 여러분 정말 ㅠㅠ 눈물나여. 우리의 서명운동이 빛을 발했나봐여. 여기다 욕쓰니깐 다 지워지대. 다시 쓰는거지만, 짜증나게 암튼 머리 길러여. 신난다. - 장은진

전 모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등교 길에 계단에서 머리 잘리는 모습을 마니 보았습니다. 참 한심하더군요! 선생님들은 할일도 없나~ 우리도 엄격한 인격체 입니다. 물론 말을 안듣는 거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래도 됩니까? 오늘 분명히 뉴스에 나왔습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의 권리에 맡기겠다고. 저도 다음주 학교 건의 때 낼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 with 자유게시판

바) 토론회지시 이후, 각급 학교 토론회 및 설문조사

교육부의 지시 후, 일선 학교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설문 조사는 어의가 없다. 설문 조사의 경우, 굉장히 비논리적인 질문들과 답변이 적혀있었으며, 토론회 역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다. 학교측은 토론회나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 표출의 공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가) with사이트에 접수된 학교 설문조사 예시

1번. 두발완전자유/ 현재상태유지

2번. 염색허용/ 염색불가

3번. 뽀퍼허용/ 검은색 톱딱이 뽀만 허용 - 서울 A여고

Q.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교육부의 두발제한 개정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대로 두어야한다 2) 더욱 강화해야한다 3) 일부 완화해야한다

Q. 우리 학교 두발 제한은 앞머리 3cm입니다. 어떻게 개정했으면 합니까?

1) 2cm 2) 3cm 3) 4cm 4) 5cm 5) 6cm

- 광주 B고교 학부모 설문조사

2학년의 모반에서는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토론시간에 담임선생님이 끼어들어서 “니들 몇센치 원하냐”라구 물었대여. 애들이 “10몇센티요~” 그러니깐 선생님이 괜히 화내면서 뭐라 그랬나봐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서 그 반에는 전원 4cm에 찬성했다구 하더군요. 정말 말이 됩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시간에 선생님이 끼어들다뇨. - 서울 M고교

(나) 비민주적 토론회 사례

저는 경기도의 어느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중략) 지금의 학교는 사실상 교장1인체제이지요. 저는 이번 두발제한 반대운동을 통해 학교의 이런 비민주적인 제도가 조금은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고, 이 토론회가 어찌면 그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진했습니다.

결국 교육청보고와 학생들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었고, 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거죠. (중략)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의 야량을 보는 자리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관심을 갖긴 하지만, 학생회 차원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움직임도 없답니다. 선생님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 경기도 모중학교 교사

토론회에 두발자유화를 반대하는 10대의 목소리가 없다고, 억지로 두발 자유화를 반대하는 역을 저희 반장에게 떠맡겼습니다. 반장 자신은 두발자유화에 찬성하는데, 어떻게 주위의 압력으로 자기 입장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억지로

그 토론회가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토론회입니까? 어른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여? 기가 막혀서 원... - 서울 모 중학교

교육부에서 자율화 한다는 소리를 듣고 무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머리를 깎으라 하십니다. “교육부에서” 라고 했다가 맞을뻔 했습니다. - 강원도 태백 모고교

토론은 학생대표와 학부모, 각 인사(머, 장학사 오겠지) 글구선 결재와 결정은 교장이 한대여. 이렇려면 뭐하러 하는거저!? - 서울 G고교

사) 서울지역교육관련 기관장회의 김성기씨 발언과 with의 대응

10월 9일 한국일보에 서울 지역 교육 관련 기관장 회의에서의 김성기 연구원장의 발언이 공개됐다. 이는, 교육부 토론회 지침 이후의 발언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적 인권 찾기 과정을 교권의 침해로 보는 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서울지역교육관련 기관장회의에서 김성기 서울교육과학연구원장이 발제를 통해 “두발 자유화는 교복과 달리 방과 후 학생들이 신분을 위장, 청소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등 학생들의 하위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강경 대응할 것을 촉구(중략) 김 원장은 “학생 두발 문제는 교사와 교사간, 교사와 학생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더 이상 학생지도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교권수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월 9일, 한국일보

이에,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두발 제한 반대를 외치는 것은 인권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찾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아래와 같은 입장표명을 했다.

우선 김성기 서울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방과 후 위장, 청소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논점에 몇가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중략)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음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상인들의 의식과 사회의 전체적인 의식을 통해, 즉 상인들의 상도덕을 통해 판매를 통제해야 하는 문제이며 (중략) 또한,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교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중략)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선생님들의 교권을 부정하거나, 선생님들과의 대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제자로서, 아들·딸로서 인권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신촌 시민의 날 행사 참가, 김대중 대통령 공개초청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10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을 with의 신촌행사에 공개 초청했다. “인권 대통령 김대중 할아버지! 머리카락 하나만 보내주세요! 10대들도 ~ 청소년들도 인권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는걸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with의 첫 페이지와 청와대의 게시판, 웹마스터에게 메일을 보냄으로써 김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했다. 두발제한 반대 뿐만 아니라, 모든 억압과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려고 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받은 사회의 각계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에 복장규제로 방송출연의 불이익을 당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폭행을 고발한 노래로 사회를 질타한 <디제이 디오씨>, 그 외에 청소년보호법으로 18세 미만 판매금지 음반 판정을 받은 <조PD>, 같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2집 앨범 18세미만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김진표>, 1집 전곡을 방송사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거리의 시인들>, 듀스의 2집 ‘힙합’이라는 곡의 제목을 심의로 인해 ‘무제’로 바꿨던 <이현도> 또, 얼마전 청소년 보호법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현세 화백>과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97년 정보법 반대 운동에 나섰던 <박무직 화백>, ‘즐거운 사라’로 실형을 구형 받았던 <마광수 교수>, 아침이슬의 주인공이자 청소년 뮤지컬 ‘모스키토’의 기획자 <김민기>, 한국 락의 대부 <신중현>, 얼마전에 다시 돌아온

한국 락의 선구자 <들국화>, 성지로 불리는 명동 성당의 <정진석 대주교> 등이 있다.

청소년 웹 연대 with의 신촌 축제는 교육부의 토론회 지침 이후, 비민주적인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 조작등을 알리고 비인권적인 두발제한에 관해 시민들과 이야기하고자 한 대화의 시도였다.

(3) 향후 추진계획

가. 하나의 축제가 되길

두발제한반대운동이 하나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학생과 학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칙 제정은 학생에게 신뢰를 학교에게는 정당성을 안겨 줄 것이다.

이에,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오프라인 포럼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하는 파티를 기획중에 있다. 투쟁을 위한 투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발전적인 이야기, 믿음을 갖기위한 의미있는 과정은 서로 어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축제 공간이 되길 바란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으로 존재하길 바란다.

나. 학생회의 캠페인과 상도덕 세우기

두발제한을 없앨 경우, 학생들이 성인과 구분이 안돼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에 접근하기가 쉬워진다는 우려들이 많다. 앞에서도 몇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 탈선의 요소는 한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의 상도덕과 사회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총체적인 문제이다.

이에, 청소년 웹 연대는 각 학교 학생회가 자치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장한다. 아직 한번도 자율을 느껴보지 못한 학생회이기에, 자체 캠페

페인이나 훈련이 없었으나, 각 학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금연과 금주 캠페인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학교 주변 상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도덕을 세우는 캠페인과 신분증 확인 캠페인을 벌인다면 두발제한철폐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오프라인 잡지

웹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은 서로를 확장한 공간, 서로가 보안적인 관계이다.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기에, 웹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오프라인에 모습을 갖추어 나온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with가 온라인에서 이야기한 두가지 테마 ‘교실붕괴’와 ‘두발제한반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된 온라인의 목소리를 오프라인 잡지로 엮을 생각이다. 청소년들의 생각을 포착하는 오프라인 잡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어떠한 이야길 하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을 것이다.

(4) 청소년 신체적 자아상과 두발제한

가. 20년 동안 같은 모습, 같은 틀 안에서

20살 경수는 이제야 자신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며 생활하는 경수는 노란머리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다닌다. 고등학교 때, 짧은머리를 한 경수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머리를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쓰고 다니던 경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졸업 후에 난 나의 모습을 찾는 실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경수는 헤어스타일도 여러번, 옷입는 스타일도 여러번 바꾸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과 주위사람들이 가장 어울린다는 스타일을 찾은 것 같다.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여러번의 실험,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았을 때의 자신감은 경수의 여러 사회활동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비로소 나의 모습을 찾은 것 같다”라는 경수의 지난 날은 경수가 아니고 누구였

을까? 그를 가두어놓은 제도가 아니었을까?

나. 진정한 ‘나’를 찾기 - 자기결정권의 학습과 판단력

의복의 초기 기능은 추위와 더위로부터의 보호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대 의복의 의미는 커뮤니케이션 - 즉, 옷을 입음으로 해서 타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게 됐다. 획일화된 모습과 생각, 그리고 옷차림과 외모가 필요한 집단이 있다. 그러한 집단을 그에 맞는 유니폼과 일정한 외모를 필요로 하는데, 규율과 통제가 필요한 ‘군대’의 경우 한 집단이 같은 머리모양과 같은 제복을 입음으로서 빠른 명령체계와 빠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21세기의 학교는 어떠한가? 자율성과 창의력이 국가 경제력의 근간이라고 가르치며, 문화의 시대, 자기표현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획일화된 외모 규정은 자신을 표현하기에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에 부적합하다.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다양한 외모와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자신을 표현함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외모,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하는 곳에서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 집단만이 존재하며,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양함이란 낙오자나 방관자일 뿐이다.

지금의 학교 교칙 규정의 문제점은 다양한 머리 스타일의 경험을 제한하는 것이다. 결국, 학생 각자는 자신에게 어떠한 외모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혹은 어떠한 머리스타일이 자신의 생활에 부적합한가를 경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발자유화는 자신을 판단하는 판단력 - 즉, 자기결정권을 학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외모를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오류와 함께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외모관련 학교규율 개선 및 지도방안⁶⁾

(1) 서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의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인권 의식이 날로 신장되고 인터넷 등 발달된 매체를 통해 그들의 주장이 여과 없이 분출되어 신·구세대간 가치관의 갈등과 문화적 충돌(culture impact)이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두발규제 등 외모관련 학교규율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자율화해야 한다는 서명이 인터넷에 다량으로 탑재되고 각급 학교로 확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웹 연대 with(cyberyouth+ch10+idoo)」는 지난 5월11일부터 <청소년과 비 청소년 등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웹 커뮤니티 idoo의 서버에 “No cut”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두발제한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있으며 10월 28일에는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두발제한 반대 “내 친구를 아름답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이름으로 참여 미술과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행사를 거행하였다.

또한 지난 9월 30일 명동에서는 「인권과 교육개혁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 연합」이 민주화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두발제한 철폐, 교육법 및 동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학교 밖에서 일어나 교육부 및 학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 요지>

○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법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 두발, 복장 용의 등 신체적 표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마땅히 학

6) 이 부분은 김성식(본원 초빙연구위원, 전 서부교육장)이 집필하였음.

교장이 아닌 학생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

○ 학생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의 행위에 대한 규칙도 있어야 한다.

○ 학생의 자율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장계 권한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정하여 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2) 현행 학교교칙 현황 및 개선방안

가. 학교교칙 현황

학교 교칙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의 집합이다. 자의적 제·개정을 허용할 경우 교육권이 침해되거나 초·중등학교의 현장교육과 국가교육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법 및 시행령 등에 의거 보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되어 있다.

- 국립학교 : 교육부 장관

- 공·사립학교 : 교육감

또한 학교교칙 제정 절차를 명시하여 학칙 개정안의 제안 방법, 교사의 의견 수렴여부, 학생의 참여 방법 등을 해당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교칙제정 절차와 개정 절차가 대단히 단선적이고 통합적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칙에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등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 있는 사항은 간략히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학생의 용의·복장규정, 징계규정, 체벌규정, 포상규정, 장학금 지급 규정 등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규정은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서울특별시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나. 학교교칙 유형

학교의 규율을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복장과 용모에 관한 규율, 교수 학습과 관련된 규율,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규율,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음주, 흡연, 약물복용 등), 형법위반에 관한 규율(절도, 폭력 등),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 출결과 관련된 규율,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규율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규율이 학생들에 의해 위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는 훈계에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까지의 위계에 따라 학생 보호 및 선도의 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규율위반 시 적용되는 조치에 따라 처벌과 징계로 나눌 수 있다.

처벌은 꾸짖는다거나 기립하게 하는 것 등으로 체벌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처벌은 사실행위로서 행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교장의 위임에 의해 개별교사가 수시로 가할 수 있는 벌이고, 이에 비해서 징계는 법적인 효과(당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의 신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 의미)를 수반하는 것이며, 학교의 공식적 처분으로서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만이 그 처분권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제정되어 사용되는 규율은 그 내용과 위반 시 적용되는 절차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시대 상황이나 학생들의 인식이 변하면 마땅히 학교교칙도 이에 부응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명실상부한 민주화·자율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학생들의 의식도 10년,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헌장’ 제정·선포 등 학생들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어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을 펴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학교에서는 시대 정서에 부합되게 학교규칙들에 대한 개정·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용의복장

과 관련하여 과도한 통제나 규제 중심의 학칙을 고집하거나, 개정했다 해도 민주적인 합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 용의복장 규정이 상식적으로나 학생들의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학생들의 반발을 빚는 경우가 있다.

이번 학생들이 두발제한 폐지 주장의 시발도 바로 이러한 시의에 맞지 않는 비민주적 학교규칙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 용의복장 관련 교칙은 자율화 취지를 살려 학생들을 통제와 규제 대상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식을 전환하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 정서와 학생들의 자율화 욕구를 교육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학교규칙을 마련하여 학생들 스스로의 실천 의지를 북돋워 주는 일이야말로 바람직한 용의복장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라 믿는다.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서울지역과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144명의 교사 138명의 학부모, 5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규율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첫째, 학교규율 제정절차가 대단히 단선적이고 통합적이고 규율을 적용받는 학생과 규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규율이어서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학교규율이 학생들의 개성적인 생활과 개별적인 활동 및 자주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성격을 담고 있어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력과 창의력 육성이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통제위주의 학교규율을 자율위주의 규율로 바꾸고 학생 선도 위주의 학교규율 등 학생 참여 위주의 규율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부에서 학생회의 토론과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학생 외모관련 지도방안

가. 학생들의 용의·복장 자율화요구 배경

학생들 용의·복장제도는 일제시대인 1906년 이화학당이 처음 시작하여 시행해 오다가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각 시·도 단위로 획일화되었다.

일제 잔재형의 교복형태를 청산하고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하고 미적 품성을 함양하며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82년 1월 2일 학생 교복 자율화('83.3.1시행)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간 학생외모 관련 지도사항을 요약해보면 중학교 학생은 평준화('69.1.13)이후 시·도별로 통일된 교복을 착용토록 하였으나 그 후 고등학교와 같이 학교별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일임('80.1.26) 하였으며 교모는 위생 및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동모와 하모로 구분 착용을 권장('78.3.30)하였다. 두발은 파마·염색(여학생)을 금지하고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도록(남학생) 규제하였다.

○ 교복자율화 개선사항

구 분	적용대상	개선내용	비 고
교 복	1983년도 입학생부터	자 유 복	· 교복과 자유복 병행 착용 · 교련복 착용
교 모	1983년도 입학생부터	폐 지	· 위생모 및 교련모 착용가
두 발	1982년도부터 전체학생	자 유 형	· 특수목적 고교는 학교 방침에 의한 별도 규정 설정가

○ 규제사항

- 두발 : 남학생의 경우 파마, 염색,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에 닿는 것/ 여학생의 경우 파마, 염색
- 신발 : 하이힐, 부츠 외 사치성 구두 착용

그러나 교복자율화 이후 기대했던 긍정적 측면보다는 자유복 착용에 따른 학생간의 위화감 조장, 학부모의 부담 증가,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이나 일탈행위 증가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교복착용 희망 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결정하여 적극 권장해오고 있다. 다만 획일화를 피하고 학교 나름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복의 모양, 옷감, 색상, 가격, 업체선정 등은 학교별로 교복선정위원회를 설치(1992.3)하고 이를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가족 모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협의·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각급 학교 학생들의 용의·복장 착용 실태를 보면 완전히 자율화하여 다양한 두발형태를 인정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대체로 규정만 정해 놓고 학생자율에 맡기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은 세부 규정을 정해놓고 엄격히 지도하고 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두발 규제 등 외모관련 문제가 새로운 논쟁으로 부각된 것은 청소년의 인권이 신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외부 문화 유입으로 일부 인기 연예인 등이 염색머리를 하고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일률적으로 머리 길이를 3cm, 귀밑 3cm라는 두발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가위나 바리칸으로 학생머리를 흠집 내는 것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어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에서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나. 학생 외모관련 자율화 한계

두발 자율화가 아무리 개성화 자기표현이 존중되는 시대흐름에 맞는다는 주장이 있다 해도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사춘기의 일부 학생들 중에는 연예인들의 대걸레형 빨강머리나 무스 바른 도깨비형 머리를 흉내낼지도 모르며, 방송매체가 퍼뜨리는 상업적인 유행에 학생들이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머리 모양을 자유로

이 할 경우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해져 청소년 보호정책이 다시 사회문제화 될 것이므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율화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중·고생의 두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 외모관련 규정사례 1

항 목	세 부 규 정 내 용
머 리	1.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머리를 묶을 경우는 사전에 담임을 통해 학생과의 허락을 받는다. 3. 머리핀은 검정색 자동 핀 등을 꼽을 수 있다(길이7cm, 폭0.5cm). 단, 나비 핀, 집게 핀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4. 색은 허용되지 않으며, 형태는 커트 또는 단발형의 학생다운 형태가 되도록 한다. 5.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남학생의 경우는 스포츠형으로 하며, 앞머리의 길이가 3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용 모	1.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2. 여학생의 경우 귀고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귀를 뚫어서는 안 된다. 3. 메니큐어, 화장, 반지, 팔찌, 장식용의 목걸이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신체 부위의 문신, 고의적인 흉터 등을 금한다.
가 방	1. 학생용의 책가방(보조 가방의 경우 끈으로 메는 색은 허용)만을 허용한다. 성인용의 사무용 가방이나 등산용 배낭은 금한다. 2. 색깔은 검정이나 흑색 등을 권장하며, 원색(빨강, 노랑 등)은 제한한다.

○ 외모관련 규정사례 2

항목	세 부 규 정 내 용
복 장	1. 등교할 때는 지정된 교복 이외의 옷은 절대 착용과 휴대를 금한다(등교시 휴대하였을 때는 가정에 통보한다). 2. 동절기에는 흰색 폴라 티셔츠, 하절기에는 흰색 블라우스의 착용을 허용한다(학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넥타이를 반드시 착용하고, 치마를 접어 올려 짧게 입는 것을 금한다. 4. 동절기에는 검은색 스타킹(학생용), 하절기에는 흰색 양말을 신어야 한다(투명 스타킹이나 흰색 바탕에 무늬가 있는 것을 신어서는 안 된다). 5. 교복 형태의 규정을 어겨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신 발	1. 검정색이나 갈색의 운동화나 단화(학생화). 2. 원색의 운동화나 농구화, 뒤 굽이 높은 운동화나 구두는 허용하지 않는다(복숭아 뼈를 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3. 구두의 경우 광택이 있거나 악서사리가 부착되는 등 성인용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실내화 및 실내화 주머니를 반드시 지참하여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다. 교육부 입장

○ 학생의 두발 자율화는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이 제각기 다르므로 전국 단위 획일적인 자율화 추진이 어려움

○ 단위 학교별로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화 여부, 규제 범위·지도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학생들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지도방법은 지양함

- 학생회 등 학생자치회를 통한 토론·건의
-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제로 상정 토론

○ 지도과정에서 ‘가위로 자르기’, ‘강제 이발’ 등 학생의 인격적 손상 행위를 지양하고 학생의 인격 존중

○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 학생 두발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10월중 개최하여 11월에 결과 제출

(4) 결

오늘날 학생 생활지도는 학교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나 버렸다. 두발 문제를 포함한 용의복장 생활뿐만 아니라 전통적 가치의식이 희박해진 반면 자율화에 따르는 책임의식이나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 등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용의·복장 생활을 비롯한 학생생활 기풍을 바로 세우려면 학부모들의 의식부터 내 자녀의 생활지도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가정에서의 자녀 생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 문화가 무분별한 방종으로 흐르게 된 데는 매스미디어 특히 TV나 영화 등 영상매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눈앞에 상업적인 이익에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에 미치는 해악을 먼저 생각하고 영상물 제작에 앞서 이를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영상매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청소년 관련 건전한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감시하는 압력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자율화·개성화·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이제 우리도 학생들의 용의·복장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학생들의 자율생활 능력, 성숙도에 따라 학교규칙을 단위 학교별로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되 세부적인 자율화의 정도는 학교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오늘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별로 지나치게 규

제의 차이를 두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외모 관련 각종 학교규율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자율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합의된 학교교칙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사회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역할이다.

2. 청소년의 신체관 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1) 청소년 섭식장애 관련 정책제언⁷⁾

(1) 정책제언

① 섭식장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문제와는 달리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기존의 연구는 이미 섭식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섭식장애의 원인이나 관련변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섭식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섭식장애는 특정 집단에서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병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효과가 높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여자청소년 집단, 특히 사춘기의 여자청소년이 섭식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다른 집단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도 있다.

7) 이 부분은 조아미(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음.

③ 섭식장애와 약물오남용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같이 다루는 것이 좋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섭식장애는 여러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술, 담배, 설사제, 이뇨제와 같은 약물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섭식장애를 치료할 때는 약물사용에 관한 것도 같이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④ 또래로 구성된 예방 프로그램이나 가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같은 또래로 구성한다면 서로에 대해 공감도 빠르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효과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섭식장애는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인만의 치료로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가족을 함께 포함시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다양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섭식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직접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이 섭식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다이어트가 체중조절을 위한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이어트가 섭식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이어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섭식장애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요요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⑦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섭식장애에 걸린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

하여 낮아진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도 섭식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⑧ 교사,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이 위험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본인에게 알려준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섭식장애로 발달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조차 모른 채 행동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위험신호는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릴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주위의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신호를 감지할 때마다 그것을 재빨리 청소년에게 알려준다면 섭식장애로의 발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⑨ 대중매체나 사회의 분위기가 날씬하고 마른 체형만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날씬하고 마른 체형을 원하는 것은 대중매체나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에서는 비만을 죄악시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고, 날씬하고 마른 체형만을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⑩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섭식장애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알린다. 대중매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앞의 제안처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달리 이용하면 섭식장애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가 아니더라도 담배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를 담배 겉포장에 삽입한 것처럼 다이어트 식품에도 다이어트의 폐해에 대해 알리는 문구를 적어 넣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⑪ 자신의 신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인 영향뿐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날씬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들이 날씬하고 말랐다는 것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연구에도 보면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살이 췌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이 많이 있다.

(2) 예방 프로그램의 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섭식장애 예방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효과적인 섭식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Killen과 그의 동료들(1993)이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인데, 대상은 963명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다. 이들은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되었다. 실험집단은 섭식장애에 걸릴 위험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으로 나누었다. 실험집단은 건강하지 못한 체중조절의 해악에 관한 강의, 균형잡힌 영양섭취와 정기적인 운동을 통한 건강한 체중조절의 촉진, 그리고 체중에 관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처하는 기술에 대해서 18시간 강의를 들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섭식장애 예방 프로그램은 이것에 걸릴 확률이 높은 집단의 여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Killen 등은 예방 프로그램이 섭식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2) 청소년 의복행동 관련 정책제언⁸⁾

청소년기는 소속한 집단에 동조하려고 하는 열망이 가장 강한 때이며, 의복을 그들의 동료집단에 승인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므로 의복이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시 된다.

의복은 외모의 부분이고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체의 연장으로서 개인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나 느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신체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의복행동에 반영되어 의복에 대한 태도, 느낌, 만족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의복은 자신에 대한 매력을 증진시킴으로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바

8) 이 부분은 구자명(성신여대 의류학과 강사)이 집필하였음.

람직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자기개념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의복과 신체에 대한 만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의복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보상할 수 있고,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로 인한 낮은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이다.

의복은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를 증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신체 이미지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의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1) 특별활동의 활성화

학생들은 의복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패션 잡지에 의존하고 있다. 외모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에 정규 교육에서 의복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유의한 의생활 교육이 되도록 한다.

가정 - 기술교과서에 의복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옷에 대한 미적 안목과 미적 가치관을 확립시킨다. 경우에 맞게 옷을 입는 방법이나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 방법, 타인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주도록 옷 입는 방법, 각자 개성에 맞는 의복차림, 유행을 보는 시각 등 옷에 대한 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미적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용적인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배정한다. 학생들 스스로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다.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이나 좋아하는 옷차림(여학생이 좋아하는 남학생의 옷차림,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의 옷차림), 연예인의 옷차림 등 그룹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여 조사, 분석하여 토의를 하게 한다. 청소년들의 옷차림에 대해 청소년들이 보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옷에 대한 미적인 안목과 올바른 가치관을 터득하게 한다. 또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옷차림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옷

차림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다른 견해를 수용하며,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의복구매행동에서 유명상표를 구입하는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청소년기의 바른 의복구매행동을 위해 유명 브랜드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며 의복의 평가기준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건전한 외모관 확립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가 왜곡되면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자기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외모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① 현대 사회에서 아름다운 신체 기준이 현실과 다른 지나치게 이상화된 신체이미지여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름다운 신체가 동양인의 신체조건과는 다른 서양적인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서구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왜곡된 미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② 대중매체에 의해 이상화된 신체 모습은 전문적인 신체관리와 메이크업, 그리고 발달된 사진 기술과 편집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장된 모습이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조장되고 꾸며진 모습을 현실에 가까운 실제의 모습으로 보고 있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신체적 열등감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에 의해 왜곡된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에 자신을 맞추려 하는 행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시킨다.

③ 자신의 신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자신의 신체를 왜곡

하여 자기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④ 자신을 정상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하게 한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면 사물을 왜곡되게 지각하기 쉽고 삶의 방식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생활에서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한다.

⑤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적 신체이미지가 아닌 신체이미지에 대해 가치없고 차별받는 차원을 넘어 '부끄러운 신체', '개조해야 할 신체' 등의 무형의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무형의 폭력을 받으며 자신의 개성을 살려 자연스럽게 자유로우며,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곤란하다. 신체에 대한 무형의 폭력을 지양하고 열등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을 격려하여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한다. 키가 작은 경우 '작은 고추가 맵다' 라거나 머리가 큰 경우 '머리가 좋다'라는 등의 말로 격려해 준다.

⑥ 미의 다양성과 미적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아름다움은 외적인 외모 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여러 가지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⑦ 의복 착용자와 지각자의 지각 특성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알게함으로써 자신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맞게 의복을 연출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지나친 청소년들의 옷차림을 규제나 억압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옷차림을 통해서도 타인의 지각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⑧ 청소년들이 신체를 가꾸고 다듬는 데 열중하여 외모 이외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과 신체의 통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성세대의 인식전환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매력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외모를 꾸미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이 보이는데 최근에는 일부 청소년들에게 귀, 입술, 혀 등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여러 개씩 하는 피어싱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이 피어싱이라는 패션에 몰입하는 이유는 이러한 스타일이 하나의 패션이며 유행으로 이것을 추종함으로써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청소년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인위적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려는 획일화된 잣대로 판단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일탈적 하위문화나 비행의 전조로 보는 부정적 시각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의복행동은 기성세대의 의복행동과는 다르다. 뒤집어 입은 바지, 찢어진 바지, 속옷의 겉옷화 현상, 자기 사이즈보다 큰 옷과 신발을 착용하는 힙합 스타일,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초록 머리 등의 머리 염색은 인위적 규제를 벗어나 스스로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체로서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차림에서 다양한 생각, 창조성, 발전적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자기표현에 능숙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외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말고 그들 나름대로 문화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양한 미에 대한 시각을 수용하며, 어떤 형식이나 제도에 구애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그들의 자연스런 특성을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또한 학업에서 뒤쳐짐으로 인하여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일탈되어 의복이나 외모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청소년들에

게는 더욱 개별적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3) 신체관 정립을 위한 미디어교육 방향 및 실천방안⁹⁾

청소년들의 야외모임에 TV화면에서 배운 유행어, 유행 노래, 유행 몸짓, 유행 의상, 유행 악세사리, 유행 게임 등이 지배하는 현상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모습의 비슷한 놀이들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활용되는 점도 바로 TV가 창조하는 유행의 동질성 추구경향 때문이다. 결국 TV를 통해 창출, 확산되는 각종 유행현상은 동질성을 특성으로 한다는 얘기다.

무분별한 유행창조와 모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TV를 통한 유행창조 현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모방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를 유행어 중에서 찾아 활용한다면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좋아하는 인기인의 모습이나 의상을 흉내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따라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지나침에 있고 무분별에 있으며 맹목적일 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창조의 주요 대상들인 청소년 시청자들에게만 모든 문제를 맡겨 둘 수가 없으며 프로그램의 품위와 품격을 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행이 번져 갈 수 있는 소지는 TV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장면에 포함되어 있다. 출연자들의 세세한 몸짓이나 악세사리에서부터 배치되는 가구, 타고 나오는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유행의 불길을 탈 수가 있다. 우스갯소리로 내뱉는 말 한마디, 바보짓까지도 유행이란 이름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9) 이 부분은 김기태(방송평론가)가 집필하였음.

유행을 한번 타면 멈추게 하기가 어렵다. 유행은 한번 불이 붙으면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전염되는 특성을 지닌다. 대중매체의 품위와 품격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외모행동관 정립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대중매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매체수용은 대부분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습관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매체의 종류를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매체 내용 즉 장르나 프로그램 또는 기사를 선택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능동성과 적극성을 견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매체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의 경우는 매체에 접촉하는 총 시간량 즉 시청시간조차 자신의 의도대로 정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TV에 끌려 다니는 시청자가 대부분이다.

이런 매체수용에 있어서의 수동성과 소극성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매체수용 및 활용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바로 미디어교육이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대상매체나 매체환경에 따라 때론 문화수용교육으로, 문화향수교육으로, 시민의식화교육으로, 인성교육 등으로 실천 가능한 다양성을 지닌다. 결국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외모행동관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에 비추어보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외모행동관 정립을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소년 미디어교육을 위한 기본방향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미디어교육의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매체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매체환경의 구조적 이해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정

확한 이해와 평가를 근거로 새로운 미디어교육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과 세계적인 매체 개방 추세 그리고 매체통제 유형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지난 6월 전면 개방된 일본 대중문화 유입으로 인한 매체 환경의 변화 추세나 인터넷 방송 등 각종 신기술 미디어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새로운 청소년 매체환경의 변화 양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설효성 있는 미디어교육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세대, 영상세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에게 적용시키려 한다면 그저 하나의 행사로만 그칠 뿐 실제 얻고자하는 효과를 얻기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사회 및 가정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도 개별 단위의 자율성에 기초한 교육 실시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한 셈이다.

넷째, 외국에서의 미디어교육 유형 분석이나 이해를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미디어교육 대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사회운동 차원의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남미 제국가의 미디어교육을 비롯하여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일찍부터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연방국가 중심의 미디어교육 유형 그리고 상업주의 매체정책 아래에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 아시아 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따른 독특한 미디어교육 실시 유형 등이 모두 우리의 바람직한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주체가 설정한 교육목적이 제대로 설정, 추진,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교육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해당 교육기간 동안 얻고자 하는 과정적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매체본질 이해와 수용 및 활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비롯하여 비판적 매체수용, 주체적 매체이해, 창조적 매체활용, 능동적 수용자상,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제고,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 질서 회복, 인성교육, 시민교육, 정치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목표가 설정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은 사실상 직접적인 매체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실천을 염두에 두고 기획,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나 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은 실제 매체접촉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을 배제하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결국 가정에서의 실천여부에 있다는 점이 교육의 기획차원에서부터 실천,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최측(학교, 사회단체 등) 뿐 아니라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학부모, 교사, 지도자 등)들도 교육내용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한 미디어교육이라면 결국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실천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부모나 교사 자체를 교육시키기 위한 일반적 매체의식화교육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정과의 연계를 고려한 미디어교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일곱째, 교육대상이나 목표 등 교육여건에 필요한 교재개발이 시급하다. 우선 연령별 미디어교육 워크북이 지도자용 교재와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각 교육 장별 미디어교육 교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

수의 관련 전문연구자, 많은 비용 그리고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공공성을 표방하고 있는 매체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한 과제이다. 개별 연구자 수준의 관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매체사의 일방적인 계획이나 방침(?)에 따라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신중해야 할 일이다. 매체와 정부 그리고 수용자는 기본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비판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범위와 협력의 수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관계 모형이 도출되어야 할 일이라 하겠다. 이미 발간된 몇몇 교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재개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인쇄매체가 아닌 비디오를 비롯한 영상교재의 개발도 새로운 매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여덟째, 새로운 매체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 미디어교육 교사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관련 교과목 교사를 중심으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교사 연수를 교육부와 관련 학회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미 설치되어있는 미디어교육 전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교사나 지도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및 종교 단체의 지도자나 교사들을 미디어교육 교사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매체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언론인을 미디어교육 교사로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전적으로 매체종사자 즉 생산자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신문방송학과에서도 미디어교육 과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설하여 미래의 미디어교육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우기 위한 토대로 작용한다. 예컨대 미디어교육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외모행동관 정립을 위해 실시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기획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주체적인 외모행동관 정립을 위한 미디어교육 실천방안

청소년의 외모행동관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환경 자체의 문제이다. 즉 청소년들을 숲처럼 둘러싸고 있는 문화환경이 그들의 외모행동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중 주로 산업논리가 강조되면서 밀려오기 시작한 각종 외래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과 유포 그리고 무차별적인 접촉과 모방은 가장 먼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즉, 문화개방시대 올바른 청소년문화 수용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보다는 수용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시장과 산업에 문화를 맡겨서는 안되고 결국 인간에게 유용한 문화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문화수용자, 문화향수자 또는 문화행위자의 주체적 선택과 이용이 핵심 논제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공략 대상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향유할 대상물을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우선 '우리 것', '전통', '민족'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이해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것이 아닌 즉 남의 것과의 단순한 차별성이나 적대감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문화 이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계가 같이 어울리고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남과의 이질성 비교 차원에서만 찾아내는 식의 대처방안은 세련된 자세가 아니다. 남과 같이 어울리면서도 우리 것을 찾아 즐기고 지키는 새로운 문화관과 문화수용의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총체적으로 외래문화를 적대시하고 백안시하는 수구적 문화관보다는 국내외 문화를 막

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문화를 찾아 주체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문화의식이 필요한 셈이다.

다음으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문화수용행태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진취적인 문화향수 태도가 필요하다. 다매체, 다채널로 일컬어지는 현매체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용단 폭격과 같은 영상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흠뻑 젖어있는 형세와 다를 없다. 수동적인 대부분의 매체수용자들은 공급자의 의도와 요구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자신의 시간과 생각을 내던질 수밖에 없다. 매체 접촉 시간량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선택과 이를 활용하는 차원에 이르기 까지 도무지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게 없는 형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매체를 선택하고 이를 충분히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매체수용자, 능동적인 문화수용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매체시장 개방이라는 세계적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변화 가운데서도 동요가 적을 것은 물론이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앉아 매체와 문화에 대해 애길 나누고 우리문화와 외래문화와의 차별성과 교류가능성을 논의하는 세련된 문화수용이 생활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상매체를 비롯한 각종 문화물을 공급하는 측에 수용자의 의견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시’와 ‘참여’를 통한 문화창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영상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영향력있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 취향에 따른 선택의 능동성 뿐 아니라 사회적 압력 행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기준이든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의 요건이든 영상매체를 통한 문화물에 대한 수용자들의 견해와 주장 또는 비판은 활발할수록 좋다.

단순히 프로그램 뿐 아니라 문화의 유통 경로와 전달 방식 그리고 사회구조적 생산과정 등도 물론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주체적 문화수용을 위한 대안 마련과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교육 즉, 청소년 문화수용교육은 대부분 학자나 교사 등 어른들의 시각에서 주도됨으로써 청소년들의 감각과 정서에 맞는 실효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올바른 청소년 외모행동관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외모행동관에 미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미 잘 알려진 기존 미디어교육 실천프로그램인 이른바 ‘매체일기쓰기’ 프로그램을 외모행동관이라는 주제에 한정하여 응용하는 프로그램인 셈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가치관이나 규범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의상 또는 외모치장 중 사실상 매체의 영향력에 의해 채택되고 모방된 것들의 종류나 정도에 대한 관찰 과정이다. 스스로 관찰하고 이를 구조화된 양식에 따라 기술하는 행위가 곧 자신의 외모행동관에 미치는 매체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이미 주체적인 외모행동관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스스로의 관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외모행동이 주체적인 선택이 아닌 수동적 모방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습득된 청소년 자신의 외모행동관 중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주체적으로 찾아내도록 유도한다.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규범에 관한 교육의 핵심은 모든 것을 가능한한 스스로 선택하도록 안내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외모행동관의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타인 특히 부모나 교사 등 어른들에 의해 지적되고 제시되는 자신의 외모행동관 비판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강제 또는 강요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교육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바람

직한 외모행동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스스로의 논의와 토론이 전개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나의 외모는 몇 점?”, “나의 의상 및 장신구 선택 센스는 몇 점?”, “청소년의 유행 쫓기, 이대로 좋은가?”, “나의 외모가꾸기에 드는 비용은 적당한가?” 등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토론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오늘날 청소년들의 외모행동관 정립에 대중매체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을 통한 대책도 올바른 청소년 외모행동관 정립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대중매체가 청소년 외모행동관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VII. 결 론

VII.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 측정을 통해 그들의 신체적 자아상을 알아보고,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며, 청소년의 외모행동을 규율하고 있는 학교교칙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외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교사 및 학부모의 의식을 조사하여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의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도 불만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만족도가 낮았다. 불만이 많은 신체부위는 다리, 치아, 키, 몸무게 등이다. 또한 이상적인 신체상은 남녀 모두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 주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한달 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옷 67,256원, 모자 등의 신체 부착물 29,353원, 화장품 26,366원, 머리하기 16,257원이다.

셋째, 청소년의 다이어트 등 몸매관리 경험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았으나 여자보다 남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아버지학력이 높은 집단, 생활주준이 '중'보다는 '하'인 집단의 경험 정도가 많았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운동이며, 가장 해로웠던 것은 아침굶기였다고 한다.

넷째, 청소년의 미용행동 경험은 무스·스프레이·젤 등을 사용한 머리치장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염색, 코팩, 파마 등의 순이다. 집단별로는 문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용행동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험율이 높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성

보다는 유행이나 또래와의 동일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복장은 강남의 경우 세미힙합, 강북이나 강동은 캐주얼이라고 한다.

여섯째, 교복착용에 대해서는 10명중 7-8명 정도의 청소년이 반대하거나 지금보다 규제를 줄인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불만이 유로는 디자인이 촌스럽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일곱째, 외모관련 학교교칙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발제한이고, 다음은 머리길이 제한, 가방제한 등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제한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이나 탈선방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두발제한반대운동에 거의 대다수 청소년이 찬성하고 있다.

여덟째, 신체만족도와 교칙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미용행동 경험, 외모관련 교칙의 완화에 대한 허용도와 비행성향의 관련성은 세 가지 요인 모두 비행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관련성의 정도나 설명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교칙에 위반한 미용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곧 비행청소년일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자녀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은 청소년의 자기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들보다 딸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청소년들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해서는 상위에서 오른 조건들의 경향이 청소년들과 큰 차이가 없어 세대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모관련 교칙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의견은 현행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귀뚫기, 교복변형, 염색, 화장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이러한 규정을 어긴 학생은 다른 비행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편 교사와 학부모들은 청소년들과는 달리 청소

년의 외모에 대한 제한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탈선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두발제한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청소년만큼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청소년의 외모를 비현실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교칙에 대한 개선방안과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신체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체관 정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외모관련 학교규율 개선방안은 학생부에서 학생회의 토론과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칙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도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학생외모 관련 각종 학교규율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자율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나 일단 합의된 학교교칙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사회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관련된 제언으로 이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섭식장애의 부정적 영향 홍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객관화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는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제언으로 가정-기술교과서를 통한 미적 안목과 가치관 확립,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실용적인 프로그램 배정, 청소년의 외모행동에 대해 일탈적 하위문화나 비행의 전조로 보는 기성세대의 사고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신체관 정립을 위한 미디어교육에 관한 제언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외모행동관에 미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관찰하는 기회 제공과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외모행동관 정립을 위한 논의와 토론의 장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혜원(1996).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고애란 · 김양진 · 심정은(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3, pp. 31-41.
- 교육부(2000). 학생 용의 · 복장 자율화 입장. 서울: 교육부.
- 구미희(1999). 청소년기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양숙 · 추태귀(199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pp. 29-39.
- 구자명(1993). 사춘기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동기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구자명, 이명희(1994).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100호, pp. 153-163.
- 구정화(1997). 청소년 소비문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두승 · 조아미(1998). 청소년의 섭식행동 및 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10, pp. 77-98.
- 김기태(1999). 텔레비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한나래.
- 김기태(2000). 일본문화 개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 21세기 청소년포럼 발제문.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김기태(2000). 청소년 방송문화 정립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역할. 제36회 청소년문제 세미나 발제문.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미옥(1995). 외모, 성격, 학업성적이 아동의 대인매력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미(1975).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pp. 31-41.

- 김양진(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1996). 유행 의복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1985).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문제성향과의 관계: 서울·경기도지역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인(1981).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김준기(1997). 먹고 싶다, 그러나 마르고 싶다. 서울: 도서출판 푸른숲.
- 김진희(2000).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우울이 의류제품의 중독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2000). 깨끗한 미디어를 만드는 교사들의 이야기. 서울: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 문교부(1981). 학생교복자율화지침. 서울: 문교부.
- 박광희(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1998). 성인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의복착용스타일.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방희선(1999).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금용(1998). 청소년의 의복행동 특성 및 관련변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자(1999). 신체이미지·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지각적 신체이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숙현(1994). 여대생의 섭식장애행동과 부모와의 애착에 관한 연구. 이화

-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정숙(1993). 아동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옥경(1987). 법적낙인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93). 청소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서원.
- 윤창숙(1983).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이남범(1985). 문제여고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의식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 충청남도내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동연 편(1998).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 서울: 문화과학사.
- 이명희(1982).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 이부희(1996). 남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 자아중심성·자의식·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김현식·손원교(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pp. 383-395.
- 이선경(1993). 남성복 유형과 얼굴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이수지·이인자(1996). 성인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커트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 30(1), pp. 59-68.
- 이영운·강혜원(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한국의류학회지, 6(2), pp. 17-24.
- 이은미(1984). 여자 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1995). 청소년의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실(1983).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형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남윤자(1997).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도와 1999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1(1), pp. 159-169.
- 조선명(200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1999a). 한국 여고생의 체형에 대한 태도와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 연변대학 건교 50주년 학술회의: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여성문화발전과 전망 발표논문, 중국 연길: 연변대학교.
- 조아미(1999b). 청소년의 정서관련 섭식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0(1), pp. 123-138.
- 주재은(1998). 신세대 여성의 성격특질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이미지 선호도.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천세영(1999).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 탐색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진숙(1991). 청소년기 섭식장애, 대한의학협회지, 34, pp. 1179-1182.
- 한국청소년학회(1999). 청소년학총론. 서울: 양서원.
- 허정아(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현실문화 편(1995). 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 현택수(1996). 옷과 유행. 일상문화연구회 편. 한국인의 일상문화(pp. 223-246). 서울: 도서출판 한울.
- 홍선옥(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시 영향집단과의 관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황진숙(1998). 신체만족도가 의복선호에 미치는 영향. 복식, 41, pp. 107-116.

- Boumann, C.E. & Yates, W.R.(1993). Family risk factors for bulimia nervosa: Negative outcome for three variables. *Eating Disorders*, 1, pp. 254-260.
- Casper, R.C.(1996).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pp. 413-418.
- Feldman, W., Feldman, E., & Goodman, J.T.(1988). Culture versus biology: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inness and fatness. *Pediatrics*, 81, pp. 190-194.
- Gralen, S.J., Levine, M.P., Smolak, L., & Murnen, S.K.(1990). Dieting and disordered eating dur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Do the influences remain the sam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9, pp. 501-512.
- Hamilton, L.H., Brooks-Gunn, J., & Warren, M.P.(1985). Sociocultural influences on eating disorders in professional female ballet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 pp. 465-478.
- Hill, A.J. & Bhatti, R.(1995). Body shape perception and dieting in preadolescent British Asian girls: Links with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 pp. 175-183.
- Killen, J.D., Barr Taylor, C., Hammer, L.D., & Litt, J.(1993). An attempt to modify unhealthful eating attitudes and weight reduction practices of young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3, pp. 369-384.
- Klesges, R.C. & Klesges, L.M.(1988). Cigarette smoking as a dieting strategy in a university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7, pp. 413-419.
- Kog, E. & Vandereycken, W.(1985). Family characteristics of anorexia

- nervosa and bulimia: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5, pp. 159-180.
- Ledox, S.L., Choquet, M., & Flament, M.(1991). Eating disorders among adolescents in an unselected French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0, pp. 81-89.
- Muuss, R.E.(1985). Adolescent eating disorder: Anorexia nervosa. *Adolescence*, 20, pp. 525-536.
- Muuss, R.E.(1986). Adolescent eating disorder: Bulimia. *Adolescence*, 21, pp. 257-267.
- Patton, G.C., Johnson-Sabine, E., Wood, K., Mann, A.H., & Wakeling, a.(1990). Abnormal eating attitudes in London schoolgirls-a prospective epidemiological study: Outcome at 12-month follow-up. *Psychological Medicine*, 20, pp. 383-394.
- Polivy, J. & Herman, C.P.(1976). Effects of alcohol on eating behavior: Influences of mood and perceived intox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pp. 601-606.
- Sargent, J., Liebman, R., & Silver, M.(1985). Family therapy for anorexia nervosa. In D.M. Garner & P.E. Garfinkel(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for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w York: Guilford Press.
- Sasson, A., Lewin, C., & Roth, D.(1995). Dieting behavior and eating attitudes in Israeli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 pp. 67-72.
- Strober, M.(1986). Anorexia nervosa: History and psychological concepts. In K.D. Brownell & J.P. Foreyt(Eds.), *Handbook of eating disorders: Physiology, psychology and treatment of obesity, anorexia and bulimia*(pp. 231-246). New York: Basic Books.

- Thompson, J.K., Coovert, M.D., Richards, K.J., Johnson, S., & Cattarin, J.(1995).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female adolescents: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pp. 221-236.
- Wadden, T.A., Brown, G., Foster, G.D., & Linowitz, J.R.(1991). Salience of weight-related worries in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 pp. 407-414.
- Xiniris, S. & Boland, F.J.(1990). Disordered eating in relation to tobacco use, alcohol consumption, self-control, and sex-role id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9, pp. 425-433.
- Dion, K., Berscheid, E., and Walster, E. (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4, pp. 285-290.
- Dipboye, R. L., Arvey, R. D., and Terpstra, D. E. (1977). Sex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raters and applicants as determinants of resume evalu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2, pp. 109-294.
- Duke-Duncan, P., Ritter, P. L., Dornbusch, S. M., Gross, R. T., and Carlsmith, J. M. (1985). The effects of pubertal timing on body image, school behavior, and devi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4, pp. 227-235.
- Ford, I. M., and Drake, M. F. (1982). Attitude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1 No. 2, pp. 189-197.
- Francis, S. K. (1992). Effects of perceived clothing deprivation in high

- school students' soci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2 No. 2, pp. 29-33.
- Hendricks, S. H., Kelly, E. A., and Eicher, J. A. (1963). Senior girl'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10 No. 3, pp. 167-172.
- Horn, M. J. (1975).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Horn, M. J., and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Hurlock, E. B. (1974).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 Macgrow-Hill, Inc.
- Hurlock, E. B.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New York : Arno Press Inc.
- Jacobi, L., and Cash, T. F. (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s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4 No. 5, pp. 379-396.
- Keeton, W. P., Cash, T. F., and Brown, T. A. (1990). Body image or body images : Comparativ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s*, Vol. 54 No. 1, pp. 213-230.
- Krebs, D., and Adinolfi, A. A. (1975). Physical attractiveness,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9 No. 2, pp. 245-253.
- Labat, K. L., and DeLong, M. 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pp. 43-48.
- Landy, D., and Sigall, H. (1974). Beauty is talent : Task evaluation as

- a function of the performers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9 No. 3, pp. 299-304.
- Lapitsky, M., and Smith, C. M. (1981). Impact of clothing on impression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writing abil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9 No. 4, pp. 327-335.
- MacGillivray, M. S., and Wilson, J. 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5 No. 1, pp. 43-49.
- Rudd, N. A., and Lennon, S. J. (1994). Aesthetics of the body and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Vol. 7, pp. 163-175.
- Ryan, M. S. (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ecord, P. F., and Jourard, S. M(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17 No. 3, pp. 343-347.
- Sigall, H., and Ostrove, N. (1975). Beautiful but dangerous : Effects of offender attractiveness and nature of the crime on juristic jud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1, pp. 410-414.
- Sontag, M. S., and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 No. 2, pp. 1-8.
- Walster, E. (1966). Importa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d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 pp. 508-516.

부 록

1. 청소년용 설문지
2. 교사 · 학부모용 설문지

부록 1 : 청소년용 설문지

--	--	--	--	--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관심에 대해 알아보아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 2188-8835

1) 키(cm) 2) 몸무게(kg)

B. 다음은 당신 자신의 신체와 기타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다음 각 신체부위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별 불만사유는 ‘매우불만’ 또는 ‘불만’에 표시한 사람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불만사유 1개만 골라 주십시오.

자신의 다음 각 신체부위에 대해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사유 (“매우불만 또는 “불만”을 고른 사람만 응답하십시오. 1개만 선택)
1) 눈	1	2	3	4	5	①작다 ②크다 ③쌍꺼풀이 없다 ④쌍꺼풀이 있다 ⑤눈꺼풀이 두껍다
2) 코	1	2	3	4	5	①낮다 ②크다 ③들창코다 ④매부리코다
3) 입	1	2	3	4	5	①작다 ②크다 ③얇다 ④ 두껍다
4) 치아	1	2	3	4	5	①작다 ②크다 ③고르지 않다 ④색깔이 나쁘다
5) 얼굴 크기	1	2	3	4	5	①크다 ②작다
6) 얼굴형	1	2	3	4	5	①길다 ②둥그랗다 ③각졌다 ④광대뼈가 나왔다 ⑤살찐다
7) 얼굴색	1	2	3	4	5	①검다 ②노랗다 ③창백하다
8) 얼굴 피부	1	2	3	4	5	①여드름이 났다 ②잡티가 많다 ③거칠다
9) 얼굴 생김 전체	1	2	3	4	5	①못생겼다 ②개성이 없다
10)머릿결	1	2	3	4	5	①곱슬머리이다 ②두껍다 ③거칠다
11) 목	1	2	3	4	5	①짧다 ②굵다
12)몸피부	1	2	3	4	5	①검다 ②잡티가 많다 ③거칠다

자신의 다음 각 신체부위에 대해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사유 ("매우불만" 또는 "불만"을 고른 사람만 응답하십시오. (개만 선택))
13) 어깨	1	2	3	4	5	①넓다 ②좁다
14) 가슴	1	2	3	4	5	①작다(여)/근육 빈약(남) ②크다(여)/근육 너무 발달(남) ③짜짜이 ④쳐졌다
15) 팔	1	2	3	4	5	①가늘다(여)/근육 빈약(남) ②굵다(여)/근육 너무 발달(남) ③짧다 ④길다
16) 손	1	2	3	4	5	①크다 ②작다 ③손가락이 짧다 ④손가락이 굵다 ⑤손톱이 못생겼다
17) 허리	1	2	3	4	5	①굵다 ②길다 ③너무 가늘다
18) 배	1	2	3	4	5	①배가 나왔다 ②왕(王)자가 안 생긴다
19) 엉덩이	1	2	3	4	5	①크다 ②작다 ③짜짜이 ④쳐졌다 ⑤오리궁둥이
20) 다리	1	2	3	4	5	①짧다 ②굵다 ③가늘다 ④휘었다
21) 발	1	2	3	4	5	①크다 ②작다 ③볼이 넓다 ④발톱이 못생겼다
22) 몸매 체격	1	2	3	4	5	①균형이 안잡혔다 ②뚱뚱하다
23) 키	1	2	3	4	5	①작다 ②크다
24) 몸무게	1	2	3	4	5	①적다 ②많다
25) 헤어 스타일	1	2	3	4	5	①촌스럽다 ②개성이 없다
26) 옷차림	1	2	3	4	5	①촌스럽다 ②개성이 없다
27) 외모 전체	1	2	3	4	5	①촌스럽다 ②개성이 없다 ③못생겼다 ④매력이 없다

C. 다음은 이상적인 신체나 외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 중에서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개 이내로 골라 주십시오.

- | | | |
|-------------|---------------|---------------|
| 1) 큰 눈 | 2) 쌍꺼풀 | 3) 오뚝한 코 |
| 4) 도톰한 입술 | 5) 작은 입 | 6) 가지런한 치아 |
| 7) 작은 얼굴 | 8) 가름한 얼굴형 | 9) 흰 피부 |
| 10) 고운 피부 | 11) 얼굴전체의 조화 | 12) 날씬한 몸매 |
| 13) 풍만한 가슴 | 14) 풍만한 엉덩이 | 15) 가는 팔 |
| 16) 긴 다리 | 17) 큰 키 | 18) 세련된 헤어스타일 |
| 19) 세련된 옷차림 | 20) 외모전체의 스타일 | |

2. 다음 중에서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개 이내로 골라 주십시오.

- | | | |
|-------------|---------------|---------------|
| 1) 큰 눈 | 2) 쌍꺼풀 | 3) 오뚝한 코 |
| 4) 짙은 눈썹 | 5) 쌍꺼풀없는 눈 | 6) 가지런한 치아 |
| 7) 작은 얼굴 | 8) 가름한 얼굴형 | 9) 흰 피부 |
| 10) 고운 피부 | 11) 얼굴전체의 조화 | 12) 균형잡힌 몸매 |
| 13) 근육질 | 14) 작은 엉덩이 | 15) 넓은 가슴과 어깨 |
| 16) 긴 다리 | 17) 큰 키 | 18) 세련된 헤어스타일 |
| 19) 세련된 옷차림 | 20) 외모전체의 스타일 | |

3. 당신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있다 ② 조금 관심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관심없다 ⑤ 전혀 관심없다

4.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친구나 선후배 ② 부모님 ③ 선생님 ④ 패션잡지 ⑤ TV
⑥ 인터넷 ⑦ 영화나 비디오 ⑧ 길거리 ⑨ 상점 ⑩ 기타()

5. 어떤 외모를 가진 친구들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까?

- ① 얼굴이 예쁜 친구 ② 최신유행을 따르는 친구
③ 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하는 친구
④ 키가 크고 날씬한 친구 ⑤ 깔끔하고 세련된 친구

6. 당신의 외모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은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6-1.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① 얼굴이 못생겨서 ② 뽕뽕해서
③ 너무 왜소해서 ④ 옷을 잘 못입어서
⑤ 유행물품(핸드폰 등)이 없어서 ⑥ 기타()

D. 다음은 당신의 몸매관리 및 외모치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당신은 자신의 몸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기간을 오른쪽에서 골라 주십시오.

해본 것 중에서 몸매관리에 효과가 좋았던 것과 건강에 해로웠던 것을 골라 각각 해당 칸에 ○표해 주십시오.

몸매관리법	해본 기간					효과 있는 것	해로운 것
	안해 봤음	10일 이내	1달 이내	1-6 개월	6개월 이상		
1) 아침굶기	1	2	3	4	5		
2) 저녁굶기	1	2	3	4	5		
3) 간식이나 단음식 안먹기	1	2	3	4	5		
4) 다이어트약 먹기	1	2	3	4	5		
5) 다이어트법 시행 (황제다이어트·포 도다이어트·덴 마크다이어트 등)	1	2	3	4	5		
6) 이노제나 설사제 사용	1	2	3	4	5		
7) 담배피기	1	2	3	4	5		
8) 단식원이나 비만 교실 참가	1	2	3	4	5		
9) 버스탈 수 있는 곳 걷기	1	2	3	4	5		
10) 헬스클럽 이용 이나 헬스기구 사용	1	2	3	4	5		
11) 헬스 이외 운동	1	2	3	4	5		

2. 다음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해 해본 적이 있는 것과 해보고 싶은 것을
 골라 해당 칸에 ○표 하고, 해본 또는 해보고 싶은 이유를 아래 보기
 에서 1개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구분	해본 적이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	해본 또는 하고 싶은 이유
1) 색조화장			
2) 속눈썹 붙이기			
3) 코팩			
4) 피부마사지			
5) 무스 · 스프레이 · 젤			
6) 파마			
7) 염색			
8) 성형수술 (미용을 위한)			
9) 치아교정 (미용을 위한)			
10) 시력교정수술 (미용을 위한)			
11) 피어싱 (신체에 구멍내기)			
12) 문신			

- * 이유 보기 : ① 유행이니까 ② 예뻐지니까 ③ 튀니까
 ④ 하지 말라는 거니까 ⑤ 그냥 좋아서 ⑥ 기타

3. 당신은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조금 긍정적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4.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 한달에 얼마를 씁니까?

구입하는 것	구입비용
1) 옷	원
2) 옷 외의 신체 부착물 (모자, 머리핀, 핸드폰장식, 가방, 신발 등)	원
3) 화장품	원
4) 미장원 등 머리하기	원

E. 다음은 당신의 의복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1. 당신은 옷을 입을 때 가장 신경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 ① 유행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 ② 친구들과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
 ③ 비싸 보여야 한다 ④ 이성친구에게 멋지게 보여야 한다
 ⑤ 다른 사람 보다 튀어야 한다 ⑥ 기타()

2. 최근에 가까운 친구들과 가장 유행하고 있는 복장은 무엇입니까?

- ① 세미힙합 ② 리얼힙합 ③ 빈티지룩(구제품)
 ④ 케쥬얼 ⑤ 명품 ⑥ 정장 ⑦ 기타()

3. 당신은 학생이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지금보다 규제를 줄이면 찬성 ③ 반대

4. 현재 입고있는 교복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4-1. 불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1개만 골라 주십시오.

- ① 디자인이 촌스럽다 ② 색깔이 칙칙하다 ③ 천이 나쁘다
 ④ 계절의 변화를 적절히 맞추기 어렵다 ⑤ 가격이 비싸다
 ⑥ 옷 종류가 제한된다(여자의 경우 치마만) ⑦ 개성이 없다

5. 교복을 맞출 때 예쁘게 또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신경쓰거나 나중에 수선해서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키가 크거나 살이 찌서 수선한 경우 제외)

- ① 없다 ② 있다

5-1. 수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1) 여학생 : ① 허리에 꼭 맞게 ② 엉덩이에 꼭 맞게
 ③ 어깨에 꼭 맞게 ④ A라인 치마형으로
 ⑤ 치마 길이를 짧게 ⑥ 윗도리 길이를 짧게
 2) 남학생 : ① 바지를 세미힙합형태로 ② 바지를 몸에 꼭 끼게

5-2. 당신이 이와 같이 교복을 고쳐입은 이유를 1개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유행이니까 ② 예쁘니까 ③ 튀니까
 ④ 하지 말라는 거니까 ⑤ 그냥 좋아서 ⑥ 기타

F. 다음은 외모와 관련된 학교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의 교칙 중 학생들의 외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항목	세부규정
머리	1)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머리를 묶을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3) 머리핀은 검정색 일자형 편만 꼽을 수 있다 4) 염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cm를 넘어서는 안된다
용모	7) 귀를 뚫어서는 안된다 8) 매니큐어, 화장, 반지, 팔찌, 귀걸이, 장식용목걸이는 안된다 9) 고의적인 문신이나 흉터는 금한다
가방	10) 학생용 책가방과 백만 허용하며 원색은 금한다
복장	11) 지정된 교복 외의 착용과 휴대를 금한다 12) 치마를 접어올려 짧게 입는 것을 금한다 13) 동절기엔 검은색 스타킹을 하절기엔 흰색 양말을 신는다 14) 교복의 형태를 규정을 어겨 변형시켜서는 안된다
신발	15) 검정색이나 갈색의 학생화와 굽이 없는 운동화만 허용한다

2.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하고 있는 두발제한 철폐 서명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② 안다



2-1. 이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찬성 ② 부분적 찬성 ③ 반대

3. 다음은 외모에 관한 학교교칙의 개선방안입니다. 오른쪽에서 동의하는 정도를 골라 ○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하는 편	그저 그렇다	동의 하는 편	매우 동의
----------------	----------------	-----------	---------------	----------

- 1)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로만 제한한다 1 2 3 4 5
- 2)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을 때는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1 2 3 4 5
- 3) 머리핀이나 곱창고물줄, 머리띠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1 2 3 4 5
- 4) 갈색 염색이나 코팅은 허용한다 1 2 3 4 5
- 5)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허용한다 . 1 2 3 4 5
- 6) 남학생의 머리는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고 앞머리는 5cm까지 허용한다 . . . 1 2 3 4 5
- 7) 귀를 뚫고 하는 눈에 띄지 않는
귀걸이는 허용한다 1 2 3 4 5
- 8) 연한 색의 립그로스를 허용한다 1 2 3 4 5
- 9) 단순한 형태의 반지, 팔지, 귀걸이,
목걸이를 허용한다 1 2 3 4 5
- 10) 가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2 3 4 5
- 11) 스타킹과 양말을 제한하지 않는다 1 2 3 4 5
- 12) 교복의 형태를 다양화해 선택하게 한다 . . 1 2 3 4 5
- 13) 굽높이 5cm이하인 신발은 제한 안한다 . . . 1 2 3 4 5

4. 당신은 외모제한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이라는 교육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③ 전혀 도움이 안된다

5. 당신은 외모제한이 청소년의 탈선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③ 전혀 도움이 안된다

6. 다음은 당신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다
-----------------	------------------	-----------	------------	-----------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가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1 2 3 4 5

9. 나는 가끔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0. 나는 가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H. 당신은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당신이 경험해본 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경험한 행동	해본 정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담배피우기	1	2	3	4
2) 술마시기	1	2	3	4
3) 본드, 가스, 환각약품 사용	1	2	3	4
4) 소주방이나 호프집에서 술마시기	1	2	3	4
5) 밤10시이후 노래방이나 PC방 출입	1	2	3	4
6) 18세미만 관람불가 영화보기	1	2	3	4
7) 음란비디오(포르노) 보기	1	2	3	4
8) 돈이나 물건 훔치기	1	2	3	4
9) 돈이나 물건 빼앗긴 경험	1	2	3	4
10) 돈이나 물건 훔치기	1	2	3	4
11) 다른 사람 때리기	1	2	3	4
12) 다른 사람에게 맞은 경험	1	2	3	4
13) 폭력싸움(일진회 등) 가입	1	2	3	4
14) 성경험	1	2	3	4

I. 당신은 다음의 매체들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오른쪽에서 당신이 이용해본 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기간	매체종류	이용정도
일일	TV시청	① 안봄 ② 30분 ③ 1시간 ④ 2시간 ⑤ 3시간이상
평균	인터넷접속	① 안봄 ② 30분 ③ 1시간 ④ 2시간 ⑤ 3시간이상
한달	영화·비디오	① 안봄 ② 1편 ③ 2편 ④ 3-4편 ⑤ 5편이상
평균	패션잡지	① 안봄 ② 1편 ③ 2편 ④ 3-4편 ⑤ 5편이상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 : 교사·학부모용 설문지

--	--	--	--	--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외모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아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 2188-8835

A.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세)
3. 이 문항은 교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속한 학교 사항입니다.
 - 3-1. 교급은?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 3-2. 고등학교인 경우 계열은? ① 인문계 ② 실업계
4. 이 문항은 학부모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 4-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 4-2. 교급은?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 4-3. 고등학교인 경우 계열은? ① 인문계 ② 실업계

B. 다음은 학생의 외모와 관련된 학교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하고 있는 두발제한 철폐 서명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모른다 ② 안다

↓

 - 1-1. 이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찬성 ② 부분적 찬성 ③ 반대

2.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의 교칙 중 학생들의 외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
 되는 것과 이런 규정을 어기는 학생이라면 다른 비행도 저지를 것이라
 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골라 해당 칸에 ○표해 주십시오.

항 목	세부규정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을 완화해야함	이 규정을 어긴 학생은 다른 비행도 저지를
머 리	1) 고개를 바로 들었을 때 뒷머리가 옷깃 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머리를 묶을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3) 머리핀은 검정색 일자형 편만 꼽을 수 있다		
	4) 염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cm를 넘어서는 안된다		
용 모	7) 귀를 뚫어서는 안된다		
	8) 매니큐어, 화장, 반지, 팔찌, 귀걸이, 장식용목걸이는 안된다		
	9) 고의적인 문신이나 흉터는 금한다		
가 방	10) 학생용 책가방과 책만 허용하며 원색 은 금한다		
복 장	11) 지정된 교복 외의 착용과 휴대를 금한다		
	12) 치마를 접어올려 짧게 입는 것을 금한다		
	13) 동절기엔 검은색 스타킹을 하절기엔 흰색 양말을 신는다		
	14) 교복의 형태를 규정을 어겨 변형시켜 서는 안된다		
신 발	15) 검정색이나 갈색의 학생화와 굽이 없 는 운동화만 허용한다		

3. 다음은 외모에 관한 학교교칙의 개선방안입니다. 오른쪽에서 동의하는 정도를 골라 ○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하는 편	그저 그렇다	동의 하는 편	매우 동의
----------------	----------------	-----------	---------------	----------

- 1)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로만 제한한다 1 2 3 4 5
- 2)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을 때는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1 2 3 4 5
- 3) 머리핀이나 곱창고물줄, 머리띠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1 2 3 4 5
- 4) 갈색 염색이나 코팅은 허용한다 1 2 3 4 5
- 5)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허용한다 . 1 2 3 4 5
- 6) 남학생의 머리는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고 앞머리는 5cm까지 허용한다 . . . 1 2 3 4 5
- 7) 귀를 뚫고 하는 눈에 띄지 않는
귀걸이는 허용한다 1 2 3 4 5
- 8) 연한 색의 립그로스를 허용한다 1 2 3 4 5
- 9) 단순한 형태의 반지, 팔지, 귀걸이,
목걸이를 허용한다 1 2 3 4 5
- 10) 가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2 3 4 5
- 11) 스타킹과 양말을 제한하지 않는다 1 2 3 4 5
- 12) 교복의 형태를 다양화해 선택하게 한다 . . 1 2 3 4 5
- 13) 굽높이 5cm이하인 신발은 제한 안한다 . . 1 2 3 4 5

4. 당신은 외모제한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이라는 교육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③ 전혀 도움이 안된다

5. 당신은 외모제한이 청소년의 탈선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③ 전혀 도움이 안된다

C. 다음은 이상적인 신체나 외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 중에서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개 이내로 골라 주십시오.

- | | | |
|-------------|---------------|---------------|
| 1) 큰 눈 | 2) 쌍꺼풀 | 3) 오뚝한 코 |
| 4) 도톰한 입술 | 5) 작은 입 | 6) 가지런한 치아 |
| 7) 작은 얼굴 | 8) 가름한 얼굴형 | 9) 흰 피부 |
| 10) 고운 피부 | 11) 얼굴전체의 조화 | 12) 날씬한 몸매 |
| 13) 풍만한 가슴 | 14) 풍만한 엉덩이 | 15) 가는 팔 |
| 16) 긴 다리 | 17) 큰 키 | 18) 세련된 헤어스타일 |
| 19) 세련된 옷차림 | 20) 외모전체의 스타일 | |

2. 다음 중에서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개 이내로 골라 주십시오.

- | | | |
|-------------|---------------|---------------|
| 1) 큰 눈 | 2) 쌍꺼풀 | 3) 오뚝한 코 |
| 4) 짙은 눈썹 | 5) 쌍꺼풀없는 눈 | 6) 가지런한 치아 |
| 7) 작은 얼굴 | 8) 가름한 얼굴형 | 9) 흰 피부 |
| 10) 고운 피부 | 11) 얼굴전체의 조화 | 12) 균형잡힌 몸매 |
| 13) 근육질 | 14) 작은 엉덩이 | 15) 넓은 가슴과 어깨 |
| 16) 긴 다리 | 17) 큰 키 | 18) 세련된 헤어스타일 |
| 19) 세련된 옷차림 | 20) 외모전체의 스타일 | |

D. 이 문항은 학부모만 응답해 주십시오.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신체와 기타 외모에 대한 부모님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른쪽에서 만족의 정도를 골라 ○표해 주십시오.

자녀의 다음 각 신체부위에 대해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눈	1	2	3	4	5
2) 코	1	2	3	4	5
3) 입	1	2	3	4	5
4) 치아	1	2	3	4	5
5) 얼굴크기	1	2	3	4	5
6) 얼굴형	1	2	3	4	5
7) 얼굴색	1	2	3	4	5
8) 얼굴피부	1	2	3	4	5
9) 얼굴생김 전체	1	2	3	4	5
10) 머릿결	1	2	3	4	5
11) 목	1	2	3	4	5
12) 몸피부	1	2	3	4	5
13) 어깨	1	2	3	4	5
14) 가슴	1	2	3	4	5
15) 팔	1	2	3	4	5
16) 손	1	2	3	4	5
17) 허리	1	2	3	4	5
18) 배	1	2	3	4	5
19) 엉덩이	1	2	3	4	5
20) 다리	1	2	3	4	5
21) 발	1	2	3	4	5
22) 몸매/체격	1	2	3	4	5
23) 키	1	2	3	4	5
24) 몸무게	1	2	3	4	5
25) 헤어스타일	1	2	3	4	5
26) 옷차림	1	2	3	4	5
27) 외모 전체	1	2	3	4	5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구자문진 ◆

고성혜 자녀안심재단 서울지부 연구위원
박준표 사이버유스 편집장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연구협력진 ◆

김성식 본원 초빙연구위원, 전 서부교육장
김윤희 신경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
박용옥 둔촌고등학교 학생주임
이선우 도곡중학교 2년

◆ 집필진 ◆

구자명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김기태 방송평론가
김성식 본원 초빙연구위원, 전 서부교육장
박준표 사이버유스 편집장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2000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정책 연구 보고서】

- 00-R01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이종원 · 주동범 · 서정아)
- 00-R02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주동범 · 이동원)
- 00-R03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정희욱 · 길은배 · 김정래)
- 00-R04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이광호 · 맹영임 · 임성택)
- 00-R05 청소년단체의 운영실태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임성택 · 김영한 · 장동현)
- 00-R06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최원기 · 김창남 · 전경숙)
- 00-R07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와 평가방안 연구(윤철경 · 이상오 · 김경준)
- 00-R08 21세기 농촌청소년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성수 · 김경준 · 전경숙)
- 00-R09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중 ·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이철위 · 박창남 · 정혜영)
- 00-R1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한준상 · 이춘화 · 윤옥경)
- 00-R11 현안 청소년문제 분석 연구-청소년 사이버일탈과 비행이론의 적용-(천정웅 · 한상철 · 임지연)
- 00-R12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촉실태와 대책 연구(김문조 · 윤옥경 · 이춘화)
- 00-R13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 연구(이용교 · 이혜연 · 박영균)
- 00-R14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박영균 · 김정렬 · 이혜연)
- 00-R15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실태 조사 연구(김정배 · 정익재)

- 00-R16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의 실태와 문화적 권리신장 방안 연구
(조은 · 김영지 · 김희진)
- 00-R17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회상된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
간의 관계 : 비교문화연구 (장미경)
- 00-R18 학교실패 현상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김민)
- 00-R19 가상현실의 형성과 N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정용교)
- 00-R20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안 연구-인터넷 미
디어교육 시안제시를 중심으로- (김기태)
- 00-R21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실태 연구(황진구)
- 00-R22 청소년의 웹진(Webzine)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김
영지)
- 00-R23 소도시 청소년의 사회계층의식의 이해 유형에 대한 탐구-경
제적 불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김경모)
- 00-R24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자녀지도의 기본원리(김성일)
- 00-R25 청소년육구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 지도방법 연구 (김문섭)
- 00-R26 제2차청소년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함병수 · 이종원 · 길
은배 · 주동범 · 서정아)
- 00-R27 새천년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한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청소년의 비교-(윤철경 · 전경숙 · 최원기 · 김경준 · 주동범)
- 00-R28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운영 방안 연구(함병수 · 주동범 · 최원
기 · 김혁진 · 권이중 · 이철위 · 정재희 · 전동익)
- 00-R29 한국청소년중앙공원과 독립기념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권이중)
- 00-R30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청소년교류프로그램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이철위)
- 00-R31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시설안전 및 환경위생관리 지침(정재
희 · 전동익)
- 00-R32 한국청소년중앙공원 홍보용 홈페이지 개발

- 00-R33 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연구(이광호 · 김영한 · 임성택 · 맹영임 · 전명기)
- 00-R3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확보 제도 연구(김영한 · 이광호 · 맹영임 · 강영모)
- 00-R35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지침서(김영한 · 이광호 · 맹영임 · 강영모)
- 00-R36 비행청소년의 사회재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백철, 김현중, 송성자)
- 00-R37 일탈 청소년의 해외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경준 · 전경숙 · 천정웅 · 이춘화 · 윤옥경)
- 00-R38 청소년해외체험 프로그램(김경준 · 전경숙 · 천정웅 · 이춘화 · 윤옥경)
- 00-R3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산운영 프로그램 개발 연구(박창남 · 김진호 · 정혜영 · 이경주)
- 00-R40 청소년기관 정보화 실태와 DB ·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황진구 · 이현수 · 김성희)
- 00-R41 21세기 한국형 청소년자원봉사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김정배 · 정익재 · 함병수)
- 00-R42 청소년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김정배 · 정익재 · 조미영)
- 00-R43 청소년자원봉사 리더 양성 · 활용(김정배 · 정익재 · 조미영)
- 00-R44 청소년직업체험활동보고서(김정배 · 정익재 · 조미영)
- 00-R45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길은배 · 서정아 · 김희진)
- 00-R46 제주시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연구 -청소년비전 2005-(박영균 · 김정주 · 김영지 · 김희진)
- 00-R47 제주시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연구-요약-(박영균 · 김정주 · 김영지 · 김희진)
- 00-R48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zone조성방안 연구(함병수 외)

- 00-R49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zone조성방안 연구-요약-(함병수 외)
- 00-R50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zone지역실태 및 환경조사 연구 (노대명 · 김은경)
- 00-R51 인천광역시 청소년들의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 및 욕구 조사 (이종원 외)
- 00-R52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zone 프로그램 운영 계획 (김혁진 · 김진호 외)
- 00-R53 비정부(NGO)기구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협력 방안 연구 (함병수 · 길은배 · 이종원 · 최원기)
- 00-R54 학생교육원 수련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김영지 · 임지연 · 김정주 · 김성식 · 선행기 · 장경선)
- 00-R55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 연구 (허종렬)
- 00-R56 UN/ESCAP 등 주요 국제기구 청소년분야 사업분석 및 한국 참여 확대 방안 (김승목)
- 00-R57 일본의 청소년교류 정책의 실태 (양관수)
- 00-R58 청소년지도자의 철학적 태도와 지도양식에 관한 연구 (권두승)
- 00-R59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변화의 차별적 특성과 향후 양성방향에 관한 연구 (이광호)
- 00-R60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구창모)
- 00-R61 한국형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진모델 개발 연구 (최창섭)
- 00-R62 학교 자율 규율 제정 방안 연구 (천세영)
- 00-R63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가능성과 운영 방향(배임호)
- 00-R64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신미식)
- 00-R65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조아미)
- 00-R66 한국의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방안 탐구 (박영균 · 주동범)

【수련 프로그램 개발】

- 00-R67 사진체험 수련활동(김혁진·이혜연·김영지·김희진·김정주)
- 00-R68 천체관측 수련활동(김혁진·이혜연·김영지·김희진·김정주)
- 00-R69 과학공작 수련활동(김혁진·이혜연·김영지·김희진·김정주)
- 00-R70 경로봉사 수련활동(김혁진·이혜연·김영지·김희진·김정주)
- 00-R71 진로의사결정 수련활동(김혁진·이혜연·김영지·김희진·김정주)
- 00-R72 청소년기업인 수련활동(김혁진·이혜연·김영지·김희진·김정주)
- 00-R73 통일준비 수련활동(김혁진·이혜연·김영지·김희진·김정주)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 00-S01 전국청소년수련활동 관계자 워크샵(2000.1.워크샵 자료집)
- 00-S02 전국학생교육원협의회자료집(2000.2.10.워크샵 자료집)
- 00-S03 10대가 말하는 우리의 삶, 청소년의 권리(2000.5.28. 청소년 토론회 자료집)
- 00-S04 인터넷 문화:청소년참여와 사이버 일탈(2000.7.26. 워크샵 자료집)
- 00-S05 제주도 청소년육성 현황과 정책과제(2000.8.29.워크샵자료집)
- 00-S06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000.10.16, 인천광역시토론회자료집)
- 00-S07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 정책수립의 과제(2000.10.10.국제심포지움 자료집)
- 00-S08 중고등학생 두발제한 반대운동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2000.11.8, 정책토론회 자료집)
- 00-S09 글로벌시대:청소년전통예절과 에티켓(2000.12.6.워크샵자료집)
- 00-S1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직원직무연수교재(2000. 7.연수교재)
- 00-S11 청소년지도사연수교재(2000.11. 연수교재)
- 00-S12 전국공공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연수회(2000.12.12~14. 연수교재)

【학술논문집】

- 『한국청소년연구』 2000년 제 11권 제1호 통권 제31호(2000.6)
- 『한국청소년연구』 2000년 제 11권 제2호 통권 제32호(2000.12)

연구보고 00-R 1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인 쇄 2000년 12월 27일

발 행 2000년 12월 30일

발 행 인 최 충 옥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137-715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문명사

전화 (02) 739-217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2188-8844(총무부)

ISBN 89-7816-312-2(93330)

